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4

제 33권 제1호 통권 35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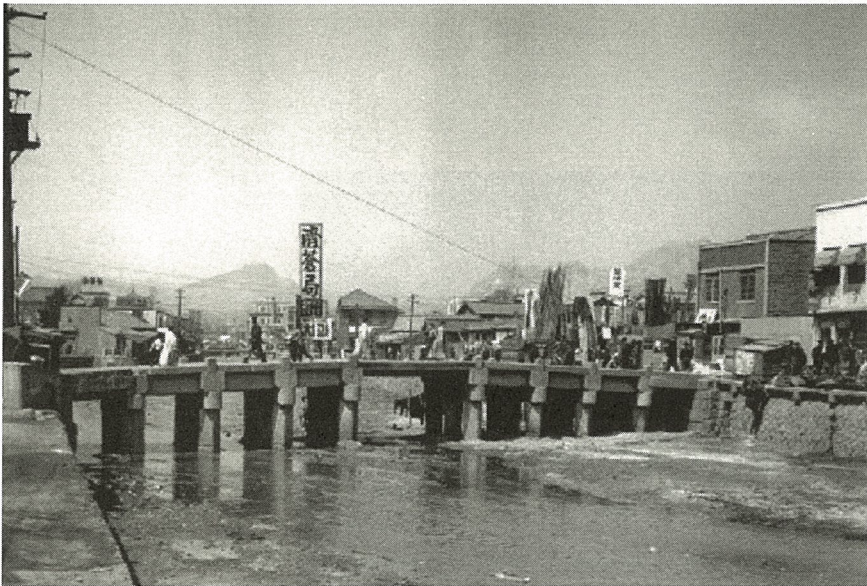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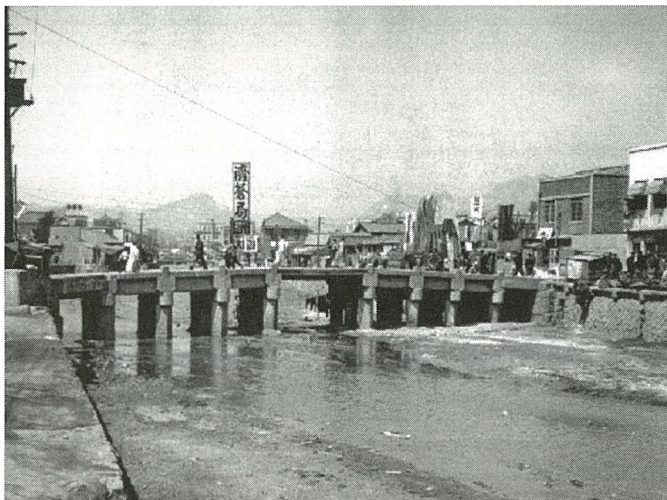
제 33권 제1호 통권 35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설명〉

삼각동은 중구에 있는 삼각정(三角町) 1번지였다. 그 자리 동쪽에 한성치과의원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곳에 바로 제창국이었다. 중구 수하동 20번지 였다. 표지사진을 보면 청계천에서 을지로쪽에 제창국이 있었던 것이다. 그곳을 이후 중구 삼각동이라고 하여 불리웠고 이후 개발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혼다방이 들어선 것이다. 혼다방이 들어서기 전의 사진

치의학의 역사 교육과정에 내재된 윤리와 철학, 예술성 그 지침서 저술에 관여하는 회원과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1990년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시이사회(4월 12일 아침 8시30분 광화문 봉줄 다방)에서는 중국과 없었던 치의학 교류를 논의하고 있었다. 필자가 수소문해본 결과 이미 3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북경을 다녀왔으나 어느 누구도 중국치과계를 언급하거나 발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 및 중국여행사를 통해 다녀왔다. 중국여행사는 국영이어서 다소 믿음이 가는 구석도 있었다. 당시 중국은 국교가 체결되지 않은 미수교국未修交國이었다. 국교가 이뤄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치과계 방문 건’은 어렵게 통과 되었다.

학회 종신명예회장 이한수李漢水 박사님은 필자에게 주대성周大成 박사에게 관한 이름 석자와 전 직장 이름만 적힌 쪽지를 전해 주셨다. 中國의 그 넓은 北京에서 천신만고 끝에 필자는 그해 6월 어느날 밤10시 30분경 주대성 박사 침소를 찾아들었다.

다음 해《중국구강의학과中國口腔醫學史考》(1991)를 내셨다. 필자 내외는 세계의 석학 주대성 박사와 사모님 천우화 여사를 알현했다. 생존하신다면 105세이다.

《중국구강의학과中國口腔醫學史考》100권을 구입해 귀국해 학회 회원들과 나누었다.

“모든 면에서 일본이 발전했으나 체계적인 구강의학사 부문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박사의 저서 두 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1990년, 주대성 박사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나라 치의학계는, 11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에 치의학의 역사학 교실이 없는 중대환과제를 가지고 있다. 반가운 일은 의철학-윤리-문학 등이 의과-치과 교과과정에 출현하거나 내비쳐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대의 흐름과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전국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에서 치의학의 역사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치의학도에게 제공할 지침서를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의 치의학 관련 사실史實-事實이 들어 있다. 이로써 앞으로의 치의학계는 보다 충실한 국제 및 국가 구성의 한 부분이 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나갈 방향제시와 품위견지, 선후배간 공동체의식 고취, 진료와 인간애 등을 통해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정립에 등대가 될 것을 확신한다.

25년 전 “한국치과의사학계가 세계 제일”이라고 하신 주대성 박사님을 흠모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은, 규모가 커지는 우리 학술대회와 치의학도를 위한 치의학역사 지침서 저술에 관여하는 교수들의 활동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25년 전 필자가 大韓齒科醫史學會에 가졌던 그때 그 시절의 희망과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은 것은 회원 여러분 때문이다.

大韓齒科醫史學會를 애호하는 회원 모두에게 건승을 빈다.

2014년 12월 31일

회장 이병태

목 차

치의학의 역사 교육과정에 내재된 윤리와 철학, 예술성 그 지침서 저술에 관여하는 회원과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회장 _3	President
한국 치과의사학 연구 동향과 저서..... 7	
The study trend of Korean history of dentistry and research	Shin, Jae-Eui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역할..... 17	
A Support Part of Non-Official Dental Group	Shin, Duck-jai / Jeon, Kiha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33	
	Kweon, Hoon
18세기 피에르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65	
The Professionalism and Enlightenment of Pierre Fauchard, a scholar of 18th century	Lee, Jue-Yeon
이(齒) 위생..... 81	
	Shin, You-Suk
구강솔의 발달과 구강위생관리의 고찰..... 83	
Development of Oral brush and maintaining of oral hygiene	Park, Joon-Bong
이한수 박사와 나눈 이야기들.....95	
	이병태 원장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원고 투고 규정..... 147	
The Regulation of Contributions for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학회활동..... 151	
Academic Activities	
임원 명부..... 153	
List of Board Members	

한국 치과의사학 연구 동향과 저서

The study trend of Korean history of dentistry and research

신 재 의

Shin, Jae-Eui

1. 본론

2. 맺음말

종 설

한국 치과의사학 연구 동향과 저서

대한치과의사회 고문 신 재 의

The study trend of Korean history of dentistry and research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Adviser

Jae Eui Shin, D.D.S., M.S.D., Ph.D.

The research of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KAHD) has begun for purpose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past history and future dentistry with Jin Hwan Choi's suggestion to Han Soo Lee.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has been published by KAHD since Dec 1st 1960.

From 1966 to 2014, 54 kinds of papers were introduced as a form of research, co-author work and translated research. The contents were covered with the lecture materials of dental history, the knowledge of East-west dentistry, the news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and its branch and Korean history of Dentistry.

Keywords : Dentistry, History of dentistry,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research

주제어: 치의학, 치과의사학, 치과의사학회지, 연구

1. 본론

역사가 흐르듯이 한국의 전통치의학은 근대를 맞이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서양의 근대 치의학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 치의학은 중국, 미국,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광복 후 일본과의 교류가 일정기간 단절되고 현대 치의학은 미국과 함께 세계 조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광복 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만들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에 분과학회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들에 의하여 생기게 되었다. 이들 분과학회는 1959년 5월 28일 대한치과교정학회, 6월 20일 대한치과보철학회, 6월 27일 대한치과보존학회, 6월 30일 대한구강외과학회, 7월 4일 대한소아치과학회, 1960년 10월 7일 대한치과치주학회가 설립하게 되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이 과정 중에 설립되었다.

196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안중서, 이한수, 최진환 등 17명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3강의실에서 설립하였다.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처음 명칭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였다. 고문으로 김두중, 신인철, 안병식, 안중서, 이호곤, 이희창, 한동찬을 모시고 회장에 이한수, 총무에 최진환을 선출하였고, 조사전문위원으로 이돈형, 박원수, 정달수, 정옥균, 최희섭, 최재경, 전태국, 변도엽이 참여하였다.

이한수의 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의 결성 구상은 당시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갓 졸업한 최진환이 제안했다. 그 시절 치과역사에 관련된 글을 가끔 썼던 이한수를 최진환이 찾아와서 그의 포부를 자세히 말했다. 이한수는 전적으로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여 함께 일하기로 다짐했다.

1960년 12월 1일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는 학술지『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제1호를 발간하였다. 이한수 학회장은 창간사에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 설립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역사를 사랑한다 하며 지난날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치의학까지 책임지려는 의욕을 갖는다고 하였다.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제1호는 광복 후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치과계 잡지 중에서 페이지 수로 보아선 제2위를 차지하는 것이었고, 대한치과의학회 각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것 중에선 단연 제1위였다.

1962년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에서 개칭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분과학회의 인준을 받아 정식 발족됐다. 발족 당시 임원은 회장에 이한수, 총무에 최진환, 간사에 박광진, 김황중, 변도엽, 김기중, 전태국 등이었다.

1962년 중신명예회장으로 안중서, 1967년 이동섭을 각각 추대하였다.

1966년 최진환는 대학교재로 모리스 스미드(Maurice Smith)가 지은 『치과의학사(A Short History of Dentistry)』를 번역하여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 발행하였다. 이 책은 필경본으로 부록에는 한국치학사라는 한국 치의학의 역사에 관한 28쪽의 글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1966년 최진환는 프렌 B. 로우저(Fred B. Rogers)가 지은 『의학사 강요(A Syllabus of Medical

History)』를 번역 출판하였다. 이 책은 필경본으로 부록에 한국의학사라는 한국 의학의 역사에 관한 9쪽의 글이 수록되었다.

1967년 최진환은 펠릭스 마아티-이바네즈(Felix Marti-Ibanez)가 지은 『의학사서설(A Prelude to Medical History)』을 의학계사에서 출판하였다.

1971년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변동을 맞게 되었다. 설립 후 계속하여 살림을 맡았던 최진환의 미국행 때문이었다.

1973년 이한수는 『주말의 치과의』, 1976년 『이한수 치학 박물관』, 1977년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 출판을 하면서 한국치과의사학의 초석을 쌓았다.

1974년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제2대 회장으로 이덕일을 선출하였다.

1978년부터 대한치과의사학회는 국내치과대학 치과의사학 강좌에 사용될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여 학술집담회 때마다 교재내용을 중심으로 학술발표와 토의를 거듭하였다.

1982년 3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화보 26쪽을 포함하여 409쪽으로 1912년부터 1980년까지 치과의사 단체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 4월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사의 편찬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은 적극 참여하였다.

1982년 12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회장에 이한수를 재선임하였고, 전 회장 이덕일을 종신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1983년 12월 31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4권 제1호가 복간되었다.

1984년 12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에 김정균이 선임되었다.

1987년 7월 22일 기창덕의 『한국치과의학사 상』이 민족문화문고간행회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부록 포함 370쪽으로 한국의 선사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치의학을 다루었다.

1988년 8월 20일 이한수는 『치과의사학』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390쪽으로 치과의사학이란 무엇이나 로부터 시작하여 원시치과의술에서 근대치과의학과 한국의 치과의학의 여명까지 다루었다.

1988년 11월 15일 이한수는 『한국치학사』를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80쪽으로 고대치과의학사로부터 중세, 근세, 근대 치과의학사까지 다루고 있다.

1989년 6월 13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이병태가 선임되었다.

1991년 10월 29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에서 이병태는 주대성(周大成)의 『중국구강의학사』(인민위생출판사 발행)를 배부하였다.

1992년 5월 16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이한수 회장을 종신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치과의사학 강좌 교수 요강(안)이 채택되었다.

1992년 5월 16일 회장으로 박승오가 피선되었다.

1993년 1월 30일 이한수는 『서역치과의약전래사』를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175쪽으로 서역 치과의학사를 비롯하여 한국의 선사, 고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치과의학사까지 연계를 다루었다.

1993년 7월 29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가 엠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학술집담회 연제는 일본치과의사학회의 현황, 연자는 야쓰 미즈오(일본대학치학부 교수)였다. 통역은 기창덕이었다.

1995년 3월 10일 이한수는 『서양치과의학사』를 군자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40쪽으로 고대 치과의술로부터 19세기 치의학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1995년 5월 10일 이종찬은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를 도서출판 명경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13쪽으로 선사시대로부터 20세기까지 의학의 발전 과정과 의료 테크놀로지와 사회, 복지국가와 의료보장, 보건과 의학의 철학적 탐구와 역사적 전망까지를 다루었다.

1995년 5월 23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임경빈이 선임되었다.

1995년 6월 10일 기창덕은 『증보 한국치과의학사』를 도서출판 아카데미아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503쪽으로 한국의 선사이후 현대(1980년)까지의 치과 의학사들을 다루었다.

1995년 7월 25일 기창덕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들』을 도서출판 아카데미아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319쪽으로 32명의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들을 다루고 있다.

1995년 9월 16일 기창덕은 『한국근대의학교육사』를 도서출판 아카데미아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89쪽으로 한국의 서양의학교육의 효시, 관의 의학교육,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평양, 대구, 여자의학교육, 치과의학교육, 동의교육 등 광범위한 의학사들을 다루었다.

1995년 강신익은 곤도 히로시 지음『환자와 의사의 인간학』을 번역하여 장락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1995년 이병태편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회사』를 출판하였다.

1996년 3월 30일 이한수는 『치과보철사』를 연세대학교출판부에서 발간하였다. 총233쪽으로 본문은 서양사에 비중을 둔 세계 치과보철학 역사이고 부록은 한국사에 중심을 둔 ①한국의 의치관련 옛 기록의 문제, ②치충(齒蟲)의 존재를 신봉한 역사, ③금 백금 등의 치과보철에의 이용, ④근세사에서 가장 유명한 의치, ⑤최초로 외국의 의치를 본 한국인, ⑥대한제국 시대 입치 영업자, ⑦의치에 관한 예화들, ⑧보철, 기공이라는 용어를 수록하였다.

1996년 10월 22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소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연제는 “치과의사학 강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이었다.

1997년 9월 8일 FDI 서울 총회에서 치과의사학 연자로 세계치과의사학회회장인 스웬슨과 임경빈, 이종찬이 참여하였다.

1998년 5월 26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신재의를 선임하다,

1998년 10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조영수 편집으로 『한국치과의학사문헌집』을 발행하였다.

1998년 11월 24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세계치과의학사』편저 출간준비를 하였다. W. Hoffman-Axthelm의 『History of Dentistry』와 M. Ring이 쓴 『An Illustrated History of Dentistry』을 기본 교재로 초고를 마련하였다.

1998년 12월 8일 『대한치과의사학회지』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을 배정받았다. 그 번호는 ISSN 1226-9638(한국문헌번호센터)이었다.

1999년 4월 2일 기창덕은 『한국개화기 의문화년표』를 도서출판 아카데미아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31쪽으로 한국개화기 1864부터 1910년까지의 의문화년표를 다루고 있다.

1999년 11월 27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43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을 “치과의학사, 21세기 한국치과의학의 좌표”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좌장은 김정균이었다.

- 연제 1. 일본 치의학 발달 개관(이한수, 이병태)
- 연제 2.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 치과전문직의 역사와 문화 (강신익)
- 연제 3. 교정학의 역사에서 “발치-비발치 논쟁”에 대하여(김정철)
- 연제 4. 조선시대말과 일제식민지시기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한 고찰(이주연)
- 연제 5. 구강보건주간행사의 기원과 발전과정(변영남)

2000년 3월 14일 이종찬은 『한국에서 의를 논한다』를 소나무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86쪽으로 동과 서, 좌와 우 패러다임의 혼란 등과 건강을 위한 의료를 다루었다.

2000년 10월 25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사라 네틀턴(Sarah Nettleton) 지음『푸코와 치아(Power, Pain and Dentistry)』를 도서출판 한울에서 번역 출판하였다. 이 책은 239쪽으로 기존의 치과의학사를 논하며, 치과의원 찾아가기, 치의학 대상, 예방, 구강보건교육, 가정에서 치아관리, 고통과 공포, 설탕, 현대 치의학, 치의학 연구, 푸코, 건강과 의료의 사회학 등을 다루었다.

2001년 3월 10일 이병태는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을 도서출판 정상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62쪽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고대, 중세, 근현대까지의 동서양의 치과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쓴 것이었다.

2001년 3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변영남이 선임되었다.

2001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린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창립총회에 대한치과의사학회 변영남, 김평일, 이준규가 참석하였다.

2002년 4월 3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이사회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제 실시에 따른 치과의사학 강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2년 강신익은 에릭 J. 카셀 지은 『고통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번역 도서출판 들녘에서 출판하였다.

2004년 4월 1일 신재익은 『한국근대치의학사』를 참운 퍼블리싱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95쪽으로 한국에서 근대치의학의 도입, 치과의사의 등장과 진료, 치과의사 교육, 치과의사회와 치과의학회의 설립과 활동 등을 다루었다.

2004년 4월 13일 이종찬은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를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387쪽으로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한의학, 의학, 근대, 제국, 전통 등의 관계를 다루었다.

2004년 5월 15일 신재익은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를 참운 퍼블리싱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73쪽으로 한국에서 근대치의학교육의 시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육,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의학전문학교와 부록으로 경성치과대학연혁사 등을 다루었다.

2005년 7월 5일 신재익은 논문자료집『한국치의학사연구』를 참운 퍼블리싱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403쪽으로 한국치의학사의 12편의 논문과 9편의 자료로 편집되었다.

2005년 신재익의 편찬위원장은『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회사』를 편찬하였다.

2006년 3월 24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김평일이 선출되었다.

2006년 3월 25일 이주연은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을 도서출판 혜안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511쪽으로 한국 근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한국 현대 치과의료체계의 발전 등을 다루었다.

2006년 변영남 편찬위원장은 『대한국치과이식학회 30년사』를 편찬하였다.

2007년 3월 13일 신재익은 『한국 기독교와 초기 의료선교』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269쪽으로 한국에 온 의료선교사들의 활동과 진료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되었다.

2007년 5월 25일 배광식은 편찬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사』를 편찬하였다.

2007년 11월 24일 대한치과의사학회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공동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과건강보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강신익은 의사학에 관한 『몸의 역사: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도서출판 살림과 『몸의 역사 몸의 문화: 동과서, 전통과 현대의 눈으로 본』도서출판 휴머니스트 그리고 공저 『의학오디세이: 인간의 몸, 과학을 만나다』를 역사비평사에서 출판하였다.

2008년 3월 20일 화요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배광식이 선임되었다.

2008년 강신익은 공저, 『생명 인간의 경계를 묻다』를 웅진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하였다.

2009년 4월 10일 신재익의 편찬위원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 50년사』를 편찬하였다.

2009년 4월 27일 이종찬은 『의학의 세계사』를 몸과 마음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545쪽으로 고대 의학에서 근현대 의학 등을 다루었다.

2009년 9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기념일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09년 10월 20일 김평일은 『말보다 귀』를 한맥문학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300쪽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열린치과의사회 “열린 뜻”지 시론모임의 논설집이었다.

2009년 강신익은 공저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를 운주사에서 출판하였다.

2010년 3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사』2010는 1권에 화보 74쪽, 영문초록 10쪽, 본문 818쪽과 한국치과진료봉사 232쪽, 문화 예술 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 278쪽, 총 1412쪽으로 1912년부터 2010년까지 치과의사 단체 활동을 기록하였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2010년 11월 1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 50년사』를 참운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231쪽으로 대한치과의사학회 연구 발전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강신익은 공저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를 도서출판 휴머니스트에서 출판하였다.

2011년 3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조영수가 선임되었다.

2011년 6월 20일 치과의사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가 발족하였다.

2011년 12월 15일 신재의는 『한국 치과기자재의 역사』를 참운에서 발간하였다. 이 책은 333쪽으로 한국에서 광고 되어진 치과기자재의 역사를 살필 수 있었다.

2011년 강신익은 공저 『치료를 논하다: 21세기 인문학의 새로운 도전』를 도서출판 산책에서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을 창비에서 출판하였다.

2012년 후반기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지』합본를 제본하고 있다. 이 합본은 『대한치과의사학회지』32권으로 대한치과의사학회 연구 발전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강신익은 공저 『의대담 : 교양인을 위한 의학과 의료현실 이야기』를 메디치미디어에서 출판하였다.

2013년 6월 20일 대한치과의사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이병태가 선임되었다.

2013년 7월 10일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의 『치과 의사(Le Chirurgien Dentiste)』가 번역 출판되었다. 옮긴이는 대한치과의사학회(大韓齒科醫史學會)의 강명신 김백일 김혜영 김희진 박용덕 박호원 이주연 조영수이었다. 이 책은 668쪽으로 18세기 프랑스의 치과 의사 피에르 포샤르가 자신의 치료법, 사례들과 함께 발치나 틀니 같은 당시의 치과 기술에 대해 정리하여 치과를 전문 영역으로 독립하게 한 책이었다. 이 책은 2014년 6월 2일 학술원 자연과학 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2013년 강신익은 『불량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 인문의학자가 들려주는 생로병사의 과학』를 페이퍼로드에서 출판하였다.

2014년 3월 31일 이병태 이찬규 부자 치과의사는 『이치의학사전(Lee's English-Korean-Han Dictionary of Dental Science and Art)』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2166쪽으로 치의학 및 의학 용어가 주로 수록돼 있다. 한의학(南)·고려의학(北)·약학 등 밀접한 분야, 생물학·화학·물리학 등 과학 분야, 치의학과 관련된 역사·철학·문학·정치·경제·사회분야 용어를 관찰해 최대한으로 널리 실었다. 이미 사라지거나 소멸된 학설·제도·기구·약품·치과 기자재도 포함시켰다.

2014년 강신익은 공저 『통섭과 지적 사기: 통섭은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배신했는가』를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판하였다.

2. 맺음말

대한치과의사학회의 치과의사학 연구는 이한수에게 최진환의 제안으로 역사를 사랑하여 지난날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치의학까지 책임지려는 의욕으로 출발하였다. 역대 회장으로 이한수, 이덕일,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임경빈, 신재의, 변영남, 김평일, 배광식, 조영수가 참여하였다.

1960년 12월 1일 대한치과의사학회는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제1호를 발간한 이후 통권 34호에 이르렀다.

1966년 이후 2014년까지 저서, 공저, 번역서를 포함하여 54종에 달하였다. 그 내용은 치과의학사 강의의 교재, 동서양 치의학에 관한 견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지부사, 분과학회사. 한국치의학사 등을 포함하였다.

참고문헌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 50년사』, 참운, 2010.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합본, 대한치과의사학회, 2012.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역할

A Support Part of Non-Official Dental Group

신덕재 · 전기하

Shin, Duck-jai Jeon, Kiha

I. 서론

II. 본론

(1) 새터민의 일반적 상황

1. 새터민의 탈북 현황

2. 새터민의 구강상태

(2)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보철지원 상황

(3)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에 대한 새터민의 사고

1. 새터민들의 반응

2.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에 대한 새터민의 만족도

(4)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앞으로 할 일

1. 치과진료 내적 사항

2. 치과진료 외적 사항

III. 결론

종 설

한국 치과의사학 연구 동향과 저서

* 치의학박사 신 덕 재

** 보건학석사 전 기 하

Abstract

A Support Part of Non-Official Dental Group

(A Support Part of Yollin Dental Society Corporation)

*D.D.S PhD. SHIN DUCK JAI

**Public Health M.S. Kiha Jeon

A Support Part of Non-Official Dental Group(N.D.P) means A Support Part of Yollin Dental Society(Y.D.S) corporation at HANAWON.*

Because Y.D.S corporation is unique N.D.P at HANAWON.

The results of a support part of non-Official dental group are these following.

1. Y.D.S corporation has treated north korea defector from 2003 year.
2. A number of N,K defector are 25,179 persons on April 2014.
3. The rate of treatment(a number of patient / a number of N,K defector x 100) is 136.9%.
4. N,K defectors have been treated all dental disease.
5. Specially, this paper stress a prosthetic restoration. Because a prosthetic restoration give N,K defector a mastication function and an aesthetic effect.
6. The prosthetic restoration(29.1%) hold a metal crown(40.9%), a porcelain crown(46.8%), a removable partial denture(9.1%), a full denture(2.9%).

7. N,K defector's satisfaction degree is 86.2 point among 100point.
8. HANAWON and Y.D.S corporation sign M.O.U about a support of N,K defector's medical treatment, education, employment.
9. Now, 7 N,K defectors attend at a nurse assistant course lecture.

The Conclusions of a support part of N.D.G are following.

The first is a prosthetic treatment, Specially, because of giving N,K defector a mastication function and an aesthetic effect.

The second is a M.O.U signature between HANAWON and Y.D.S corporation.

* HANAWON is an asylum for North Korean defector to set up in South Korea life, where is ANSUNG province.

1. 서 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이하 하나원) 내에서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로 (사)열린치과봉사회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 교육생을 위해 치과진료를 담당해 왔다.^{1) 2)}

따라서 하나원 내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의 역할이라 하면 (사)열린치과봉사의 치과진료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논제의 목적은 새터민이 하나원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된 생활을 할 것인가를 위해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있다.³⁾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① 새터민들의 일반적 상황을 알아보고 ②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가 진료한 보철치료 현황을 알아보고 ③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에 대한 새터민들의 생각을 종합하고 ④(사)열린치과봉사의 향후 나갈 바를 검토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새터민의 탈북숫자는 2014년 4월 현재까지 25,179명(남자 7,074명, 여자 18,105명)이 하나원에 입소했다.⁴⁾ 이 중 제2하나원에서 2003년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치과진료를 받은 새터민의 숫자는 31,909명이다.⁵⁾ 보철치료와 일반치료의 비율(4,965/ 26,944)은 18.42%이다.⁶⁾ 이는

1) (사)열린치과의사회 10년사:2011년 11월. p370-376

2) 한국일보:2008년 5월 25일자:열린치과의사회 회원들이 하나원 본원에서 월 4회 하나원 본원에서 월 3회 진료를 한다.

3) (사)열린치과의사회 10년사:2011년 11월: 누구도 돌보지 않는 다수의 소외된 이와 고통을 나누어 새로운 천년에는 보람된 삶의 지평을 열어 주도록 하겠다. (취지문 일부)

4) 하나원 제공: 사망자, 비보호 결정자는 제외 돼 입소자와 퇴소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5) 하나원 제공: 제2하나원 관리후생팀 제공. 중복 치료숫자로 치료교육생이 많다.

6) 하나원 제공: 제2하나원 관리후생팀 제공.

2009년 북한이탈주민 건강방안에 관한 세미나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에서 나오는 39.5%보다 작게 나왔다.⁷⁾

입소자의 97-98%가 치과질환자이고,⁸⁾⁹⁾ 입소자 대비 치과치료 교육생의 비율 즉 치료율이 133.9%로 나타났다.¹⁰⁾ 이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새터민에게 진료 역할을 해 왔다는 뜻이다.

II. 본 론

(사)열린치과봉사회가 하나원을 방문해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하나원을 수료 후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

년 도	지 원 내 역	금 액	비 고
2002년	치과 Chair Unit 1대 기증	700만원	02년도부터 하나원分院 진료 시작
2004년	교육생 김00(여) 수술비	120만원	49기 유방암
2006년	교육생 황00(여) 수술비	220만원	75기 어깨근육암
2008년	교육생 고00(여) 수술비	250만원	107기 선천성 고관절 탈구
2009년	교육생 최00(남) 수술비	100만원	120기 활동성 간염
	교육생 이00(남) 수술비	200만원	10기 간암
2010년	치과 Chair Unit 1대 기증	1,200만원	본원 치과진료실 증축 기념
2011년	교육생 홍00(남) 수술비	200만원	141기 간질
2012년	교육생 이00(여) 수술비	100만원	159기 직장루수술
2013년	교육생 노00(남) 수술비	200만원	151기 사고
	교육생 윤00(남) 수술비	200만원	174기 고관절 장애

이번 논제에서는 (사)열린치과봉사회의 수술비 지원 내역 보다는 보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열린치과의사회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한다.¹²⁾

(1) 새터민의 일반적 상황

1. 새터민의 탈북 현황

지금까지 새터민의 숫자를 알아보자. 새터민은 1999년 6월 25일 하나원 입소 제1기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29일 192기까지 25,170명의 새터민이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에 왔다.¹³⁾

7)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2003-2008년 사이의 통계임.

8) 동아닷컴:2008년 6월 14일자-100명중 97-98명은 치과질환자이다.

9) 한국일보:2008년 5월 25일자-하나원 입소자(11,515명)중 96%인 11,116명이 치과치료를 받았다.

10) 하나원 제공 (전정희 사무관): 치료율(치과치료건수(17,154)/입소자수(12,804)x100=133.9%)

11) 하나원 제공 (전정희 사무관):(사)열린치과봉사회 의료지원 동향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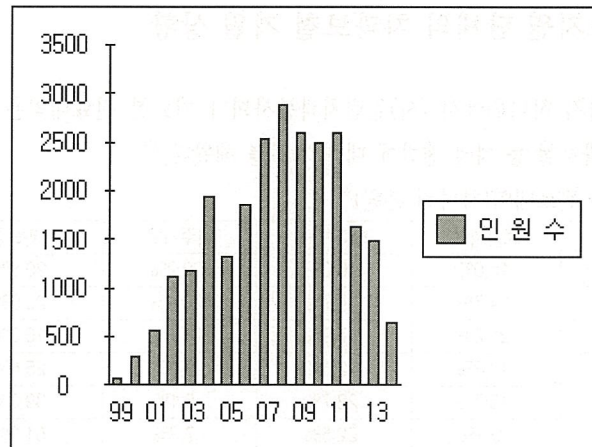
12) 전정희 사무관: 교육생에게 발치,레진,스켈링 등 치과 일반치료 및 저작 곤란 환자에게 보철치료도 함.

13) 하나원 제공(전정희 사무관):북한이탈주민 입소 현황

연 도	인 원 수	남 자	여 자
99	61명	41명	20명
00	297명	169명	128명
01	572명	299명	273명
02	1111명	496명	615명
03	1175명	435명	740명
04	1935명	651명	1284명
05	1316명	406명	910명
06	1856명	479명	1377명
07	2530명	559명	1971명
08	2881명	620명	2261명
09	2607명	617명	1990명
10	2493명	568명	1925명
11	2598명	753명	1845명
12	1622명	478명	1144명
13	1486명	356명	1130명
2014년도(4월)	639명	147명	492명
합 계	25,179명	7,074명	18,105명

199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새터민의 탈북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⁴⁾ 표-2

그림-1



다시 그림으로 표시하면 위의 그림-1과 같다.

표-1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1000명대, 2007년부터 2011년에는 2000명대의 탈북인이 탈북을 하고 있으며 2008년 2881명으로 최대로 탈북을 했다. 2002년부터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탈북 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15) 16)}

14) 하나원 제공(전정희 사무관):북한이탈주민 입소 현황표

15) 하나원 제공(전정희 사무관):북한이탈주민 입소 현황표

16) (사)열린치과봉사회 자료집: (사)열린치과의사회 10년사, 2011년

2. 새터민의 구강상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입소인원과 치과치료 환자의 비율을 보면 127%를 나타내고 있다.¹⁷⁾

탈북한 새터민의 97-98%가 치과질환에 이환 되어 있다.¹⁸⁾

2009년까지 치과치료건수(17,154)/ 입소자수(12,804)×100=133.9%로 치과율이 높다.¹⁹⁾

표-3: 새터민 진료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일반치료	1068	1325	1314	1564	2895	3908	4204	876	17154
치과보철	47	205	217	229	370	448	449	96	2061
입소인원	1111	1175	1935	1316	1856	2530	2881		12804

새터민 진료현황 표-3을 보면 치료율 즉 치과치료건수 (19,215)/ 입소자수(12,804)×100=150%를 나타낸다.

종합해 보면 새터민이 (사)열린치과봉사회에서 진료를 받은 치료율을 보면 약 136.9%이다. 이는 입소자 숫자보다 치료를 받은 숫자가 높다는 뜻이고 중복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2)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치과보철 지원 상황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하나원에서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치료한 진료내역은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치과보철 등 치과 전반에 대해 치료를 해왔다.²⁰⁾

표-4 : 2003-2008년 진료내역(하나원 본원)²¹⁾

연 도	신경치료	보존치료	외과치료	치주치료	치과보철	기 타
2003년	11.8%	16.0%	16.0%	29.2%	20.8%	6.2%
2004년	11.0%	14.7%	14.7%	29.4%	22.9%	7.3%
2005년	14.1%	21.9%	17.9%	25.7%	15.0%	5.3%
2006년	22.2%	18.3%	22.6%	8.6%	25.6%	2.7%
2007년	14.0%	15.7%	22.7%	5.1%	39.3%	2.8%
2008년	8.5%	9.2%	22.5%	7.3%	51.3%	0.9%
평 균	13.6%	15.98%	19.46%	17.55%	29.15%	4.2%

표-4를 보면 보철수복이 29.15%로 가장 높다. 이는 2006년 이후 새터민의 의식구조가 바뀐 경향 때문이다. 고가의 보철치료를 하나원 내에서 마무리 짓고 퇴소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치관 같은 심미적

17)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 2009년 p17. 통일부 하나원

18) 한국일보: 2008년 5월 25일자-하나원 입소자 11,154명 중 96%인 11,116이 치과질환을 가지고 있다.

19)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 2009년 통일부 하나원. p14.

20)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 2009년. 통일부 하나원. p18.

21)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 2009년. 통일부 하나원. p18. 표-2,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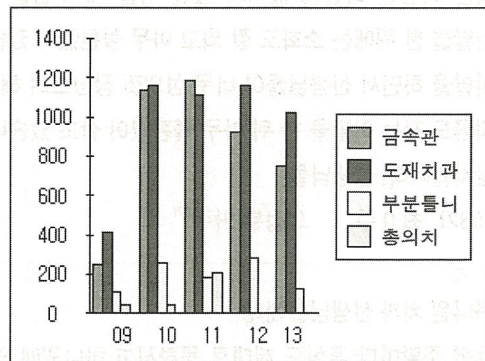
효과가 있는 보철수복을 통해 사회에 나가 구직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²²⁾

(사)열린치과봉사회는 많은 새터민에게 치과보철시술을 해 왔다.

다음은 보철수복물 사항이다.

표-5: 치과보철수복물 내역²³⁾

년 도	금속관	도재치관	부분틀니	완전틀니
09	254	412	107	43
10	1136	1165	255	44
11	1185	1112	184	206
12	925	1163	284	7
13	754	1022	128	7
합 계	4254	4874	958	307



단위: 금속, 도재치관: 개, 부분틀니, 총의치: 상

그림-2: 2009년-2013년 금속관, 도재치관, 부분틀니, 총의치 치료구성비²⁴⁾

새터민이 생활해 가는데 꼭 필요한 저작기능인 구치부의 금속관이 40.9%, 심미적 효과를 나타내는 도재치관이 46.8%로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새터민에게 사회적응에 큰 도움을 주었다.²⁵⁾

(3)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에 대한 새터민의 사고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인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새터민에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치과진료를 해왔다. 이에 대해 새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열린치과봉사회의 진료에 얼마나 만족도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²⁶⁾

1. 새터민들의 반응

새터민들이 (사)열린치과봉사회의 치과진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사)열린치과봉사회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반추할 수 있다.

다음은 새터민 교육생의 수기이다. 새터민 교육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2) 한국일보: 2008년 5월 25일자 새터민 인터뷰 내용

정영희(36. 여. 가명) "빠진 뺨뼈에 사기치아를 넣으니 아주 감쪽같다"

23) (사)열린치과봉사회 제공:

24) (사)열린치과봉사회 제공: 연도별 보철치료 내역

25) 인터넷 한국일보: 2008년 5월 31일자 새터민 인터뷰 내용

홍영숙(36. 여. 가명) "어금니가 없어 그냥 넘기다시피 했는데 치료를 잘 해 주어서 이제 맛있게 씹어 먹는다."

26) (사)열린치과의사회 10년사: 2011년.11월. 발기 취지문

하나의원

저는 이전엔 이발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소화도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하나원에서 이발을 한 뒤에는 소화도 잘 되고 아무 불편없이 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성의껏 정성드려 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발을 한 뒤 아무 불편없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153기 최 0 주 의정부 거주²⁷⁾

하나원 치과 선생님들에게

매번 주말마다 휴식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나원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치과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마음놓고 하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치료 받는 날 한 여자선생님은 막 쓰러지면서 까지도 집에 안들어 가시고 마자막까지 저희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길래 그렇게 까지 돌봐 주시는지…….

그런것도 모르고 때로는 자기만 빨리 이발을 하겠다고 떠들며 선생님들의 애만 태우던 저희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선생님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 합니다.

153기 최 0 숙 강원도 원주 거주²⁸⁾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발이 빠져서 많은 고충을 받아오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육생들의 치과치료를 하여 준 하나의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발이 3대가 없는 것을 하나의원 선생님들의 감사한 치료에 의하여 모든 이발을 정상적으로 하여 이쁜 모습으로 변화였습니다.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53기 정 0 옥 충남 아산거주²⁹⁾

27) 하나원 제공: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본인의 글대로 씀.

28) 하나원 제공: 원문대로 기재 함.

29) 하나원 제공: 원문대로 기재 함.

저는 지금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하는 첫 순간부터 새터민 우리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대한민국의 사랑과 배려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곳에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치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깐깐하게 치료를 잘 하시는지 우리 새터민들에 대한 이곳 선생님들의 봉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고 하나원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친형제 친혈육처럼 사소한 불편도없이 극진히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대한민국과 이 곳 하나원 선생님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53기 김 0 옥 대구 달서구 거주³⁰⁾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감사하다” “고맙다” “편하게 잘 쓰고 있다” “열심히 살겠다” “이쁘다” 등등의 긍정적 이야기가 많다. 이는 (사)열린치과봉사회에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다.

2.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에 대한 새터민의 만족도

민간치과의료지원단체인 (사)열린치과봉사회에 대한 새터민들의 치과진료 만족도를 하나원 본원 191기와 192기 교육생을 중심으로 설문지³¹⁾ 조사를 통해 새터민들의 의식구조를 다음 표-6과 같이 알아보았다.

표-6: (사)열린치과봉사회에 대한 새터민의 만족도 설문지 결과

이름	기수	성별	나이	만족도여부	만족도(점)
정 0 회	191	여	47	0	0점
박 0 옥	191	여	32	x	0점
주 0 숙	192	여	34	x	0점
고 0 애	192	여	48	x	0점
이 0 옥	191	여	52	0	100점
김 0 회A	192	여	58	0	100점
이 0 옥	191	여	30	0	100점
박 0 영	191	여	40	0	100점
주 0 회	191	여	45	0	100점
오 0 금	191	여	39	0	100점
정 0 화	191	여	50	0	100점
황 0 회	191	여	31	0	100점
장 0 정	191	여	22	0	100점
박 0 혜	191	여	26	0	100점
김 0 애	192	여	47	0	100점
백 0 영	192	여	37	0	100점
안 0 화	192	여	50	0	100점
박 0 아	191	여	23	0	100점

30) 하나원 제공: 원문대로 기재 함.

31) 설문지 내용은 후미에 있음

정 0 속	192	여	57	0	100점
김 0 순	192	여	23	0	100점
박 0 옥	192	여	44	0	100점
조 0 옥	192	여	45	0	100점
박 0 현	192	여	43	0	100점
김 0 영	192	여	34	0	100점
박 0 순	191	여	49	0	100점
송 0 미	191	여	42	0	100점
박 0 금	191	여	63	0	100점
전 0 성	191	여	22	0	100점
문 0 순	191	여	44	0	100점
평 균			40,59세	89,6%	86,2점

하나원 본원의 191기, 192기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에 의해 알아본 결과 만족 여부에서는 89.6%를 나타내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2점을 나타냈다. 만족도 여부와 만족도를 표시하지 않은 교육생의 경우는 정확한 치료를 받기 전이거나 진행 중인 교육생이었다.³²⁾

위의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교육생인 89.6%가 (사)열린치과의사회의 진료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앞으로 할 일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인 (사)열린치과봉사회가 하나원과 새터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치과진료 내적 사항과 진료외적 사항으로 고찰해 새터민들이 사회에 나가 생활을 하는데 얼마의 도움을 주고 삶의 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자.³³⁾

1. 치과진료 내적 사항

(사)열린치과봉사회는 하나원과 제2하나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료를 해 왔다.

- ① 2003년부터 하나원과 제2하나원 개설 및 유지에 표-1과 같이 설비 및 자제를 지원했다.³⁴⁾
- ②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4년 4월 현재 25,179명³⁵⁾이고 2014년 5월 22일자 데일리안E 기사에 의하면 26,500명³⁶⁾이다.
- ③ 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하나원 및 제2하나원에서 (사)열린치과봉사회로부터 진료를 받은 비율 즉 치료율을 보면 127%³⁷⁾, 133.9%³⁸⁾, 150%³⁹⁾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평균내면 136.9%이다. 이는 하나원에 입소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새터민이 (사)열린치과봉사회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뜻이다.

32) 신덕재: 2014년 5월 25일 하나원 본원에서 (사)열린치과봉사회 새터민 치료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함.

33) (사)열린치과의사회 10년사: 취지문 의 내용과 일치

34) 표-1과 같이 unit & chair 설치 및 제공

35) 표-2, 그림-1 참조.

36) 데일리안 2014년 5월 22일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강연내용

37)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상황:2009. p17. 통일부 하나원.

38)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사항:2009. p14. 통일부 하나원

④ 진료를 받은 새터민의 진료내용을 보면 신경치료(13.6%), 외과치료(19.4%), 보존치료(15.9%), 치주치료(17.5%), 보철치료(29.1%)⁴⁰⁾등 치과 전반에 대해 받았다.

⑤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진료 내용 중 새터민의 저작기능과 심미적 효과를 주는 보철치료에 대해 금속관(40.9%), 도재치관(46.8%), 부분틀니(9.2%), 총의치(2.9%)⁴¹⁾등 새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술을 했다.⁴²⁾

⑥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위와 같은 진료를 통해 새터민이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각된 유연성과 자기 효능감을 높였다.⁴³⁾

위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새터민의 구강건강에 대해 세심한 관리와 치료로 새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회 활동에 능동적 활력을 주어야 한다.

2.치과진료 외적 사항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새터민에게 치과진료 외에 사회적응과 자립, 융합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① 새터민의 80%가 극빈자⁴⁴⁾이고 2004년 하나원 조사에 의하면 40.8%가 실업자⁴⁵⁾이고 새터민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4대보험이 보장 된다 해도 월 실 급여가 기초수급보다 적다는⁴⁶⁾ 보도가 있다. 이런 점을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인지하고 새터민의 생활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새터민의 견실한 취업을 돕는 일환으로 하나원과 (사)열린치과의사회는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사)열린치과봉사회(이하 열린치과회)는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지원”이라 함은 열린치과회 의 하나원 방문 치과진료와 퇴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39) 본문 표-3 참조

40)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사항:2009년, p18, 표-2,표-3

41) 본문 표-5, 그림-2 참조

42) 전기하 석사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구강건강지표와 구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p29, 2012년

43) 전정희 석사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신념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p48, 2010년

44) 2004년 8월 16일자 프레시안 기사.

45) 2005년 3월 16일자 대전일보 기사.

46) 2014년 5월 22일자 프레시안E 기사: 정옥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 강연내용.

2. “교육과 취업 지원” 이라 함은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간호조무사과정, 교육자문, 동 과정 이수자에 대한 취업 및 장기적 경력개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력분야) 양 기관간의 업무협력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린치과회는 하나원에서 의뢰한 입소, 퇴소 교육생의 치과진료(보철치료 등)및 치료 후 관리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2. 하나원은 열린치과회의 교육생 진료비 등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3. 열린치과회는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간호조무사과정, 교육프로그램(치과관련) 개발 및 전문 강사 선정을 지원한다.

4. 열린치과회는 간호조무사 이수자의 취업 및 장기적 경력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5. 하나원은 열린치과회의 간호조무사과정에 대한 교육지원, 동 과정 이수자에 대한 취업 및 장기적 경력개발 지원 노력에 따르는 요청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협력이행)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1. 양 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정보나 신원을 식별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 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기관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14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 장 김 형 식

(사)열린치과의사회

회 장 안 성 훈

지금 제2하나원에서 7명의 수강생이 1년 과정으로 간호조무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더 많은 수강생이 모집 될 예정이다.

③ 새터민이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사)열린치과의사회가 해야 한다.

④ 다른 질환: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⁴⁷⁾, 결핵⁴⁸⁾, 부인병⁴⁹⁾ 등의 질환 치료와 연계해 치과진료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47) 뉴시스 2007년 9월 28일자, 연합뉴스 2008년 9월 25일자, 데일리 NK 2008년 10월 2일자 관련기사.

48) 뉴시스 2007년 9월 28일, 연합뉴스 2008년 9월 25일자 관련기사

49) 뉴시스 2007년 9월 28일, 세계일보 2008년 9월 25일자 관련 기사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치과진료 외적인 사항으로는 새터민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을 해 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법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안정을 이루게 해야 한다.⁵⁰⁾

III. 결 론

하나원에서 민간치과의료단체의 역할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열린치과봉사회의의 역할과 같다. 민간치과의료단체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① (사)열린치과봉사회는 2003년부터 새터민을 위해 치과진료를 해 왔다.
- ②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4년 4월 현재 25,179명⁵¹⁾이다.
- ③ 치료율(치료 받은 환자 수/ 입소자 수 x 100)이 136.9%이다. 이는 입소자보다 치료 받은 환자 수가 더 많다는 뜻이다.⁵²⁾
- ④ 입소자들은 (사)열린치과봉사회로부터 신경치료(13.6%), 보존치료(15.9%), 외과치료(17.5%), 치과보철시술(29.1%) 등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받았다.⁵³⁾
- ⑤ 특히 보철치료는 저작기능의 회복과 심미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치료다. 이번 논제에서는 보철치료(29.1%)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⑥ 보철치료는 금속관(40.9%), 도재치관(46.8%), 부분틀니(9.1%), 완전틀니(2.9%)⁵⁴⁾로 저작과 심미효과가 큰 치료이다. 저작기능의 향상으로 원활한 영양섭취로 전반적 건강이 증진되고 좋은 심미적 효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사)열린치과봉사회의의 큰 역할이다.⁵⁵⁾
- ⑦ (사)열린치과봉사회의의 진료에 대한 새터민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2점이다.⁵⁶⁾
- ⑧ (사)열린치과봉사회는 치과치료 외적사항으로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 했다. 이는 새터민이 하나원을 나온 후 견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이다.⁵⁷⁾
- ⑨ 현재 제2하나원에서 7명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수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수강생을 있을 것이다.⁵⁸⁾
- ⑩ 민간치과의료단체가 좀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법적, 금융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⁹⁾

50) 뉴시스 2005년 3월 16일, 대전일보 2008년 9월 25일, 인천일보 2008년 11월 12일자 관련기사

51) 하나원제공

52) 하나원 제공: 치과진료건수/입소자수x100=치료율

53) 북한이탈주민의 구강상태와 진료현황: 2009년, 통일부 하나원, p18, 표-2, 표-3.

54) 표-5참조

55) 한국일보: 2008년 5월 25일자 새터민 인터뷰 내용

정영희(36, 여, 가명) "빠진 윗니에 사기치아를 넣으니 아주 감쪽같다"

56) 신덕재: 2014년 5월 25일 하나원 본원에서 (사)열린치과봉사회 새터민 치료 만족도 설문조사에 의함.

57)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

58) 2014년 3월 14일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김형식과 (사)열린치과봉사회 회장 안성훈 간에 MOU 체결

59) 2014년 5월 22일자 프레시안 E기사: 정옥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 강연 내용.

끝으로 민간치과의료 단체의 역할에 대해 총론을 내린다면 (사)열린치과봉사회가 첫째 금속관, 도재치관과 같은 치과보철시술⁶⁰⁾을 통해 새터민에게 저작기능의 회복과 심미적 효과를 줘 취업과 사회생활에 좋은 이미지를 부여한 역할이 크다.

둘째는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 의료 및 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 해 새터민에게 간호조무사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지원을 한 역할이다.

60) 이병태·이창규 : <이치의학사전>(2014)

(사)열린치과봉사회 새터민 치료 만족도 설문 조사서

1.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중복 선택도 좋습니다.

- ① 뽑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외과 ()
- ② 때우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보존 ()
- ③ 해 넣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보철 ()
- ④ 틀니를 했습니다. - 보철 ()

2. 치료에 만족 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3. 만족 하시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

4. 다음을 적어 주세요.

- ① 나이 () ② 기수 ()
- ③ 성별 () ④ 이름 ()

5. 위 설문에 동의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권 훈
Kweon, Hoon

머리말

북한

1. 검은 모루 동굴: 평양시 상원군
2. 승리산 동굴: 평안남도 덕천시
3. 단군릉: 평양시 강동군
4.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수도권

1. 세종대왕 동상: 서울 종로구 세종로
2. 백련사 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3. 이해 박는 집: 서울 종로구 종로3가
4. 세종원: 서울 종로구 재동
5.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 강우규 동상: 서울 용산구 동자동
7. 허준 박물관: 서울 강서구 가양동
8. 정관현: 서울 중구 정동
9. 이규보 묘: 인천 강화군

충청/강원

1. 상시 바위그늘 유적: 충청북도 단양군
2. 청원 두루봉 동굴: 충청북도 청원군
3. 아산 어금니 바위: 충청남도 아산시
4. 안축 시비: 강원도 속초, 태백, 양양

경상

1. 조도: 부산 영도구 태종로
2. 한국전쟁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부산 영도구 동상2동
3. 이색 목은 기념관: 경북 영덕군
4. 월아산: 경남 진주시

전라/제주

1. 김현승 시비: 광주 북구 금곡동, 남구 호남 신학대학, 남구 양림동
2. 광주기독병원: 광주 남구 양림동
3. 다산초당: 전남 강진군
4.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 제주도

맷음말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미래아동치과 권 훈

머리말

뜻밖의 우연으로 齒科醫史學을 접하게 되었고, 치과의사학을 통해 치과와 관련된 인물을 이해할 수 있었고, 치의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이의 인생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나의 삶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까지 덤으로 얻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뜻밖의 재미까지 제공하니 이것이야말로 영어 사전에 나오는 세린디피티(Serendipity)가 아닐까 싶다.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2012년)(참1)과 ‘미국여행’(2103년)(참2)은 본 연자가 수집한 80여권의 치과의사학 책들을 ‘여행’의 관점에서만 보며 시간과 공을 들여 장소를 찾았다. 이번 ‘한국여행(2014)’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치과의사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선학들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 명저를 남기고 떠나신 기창덕, 이한수 선생님과 활발한 저서 활동 중이신 이병태, 신재의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치과의사에게 여행이란 자신의 직장을 떠나 멋진 풍경만을 보러가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視覺)을 갖고 돌아와 자신의 직업을 더 근사하게 꾸려갈 수 있는 계기(契機)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행은 ‘휴식’의 차원을 넘어 ‘배움’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도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갖고 본다면 여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만남일 뿐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북한까지도 포함하였고 혹시 목록에 빠진 멋진 장소가 있다면 앞으로 추가하는 것을 필자의 숙제로 남기며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을 위한 멋진 여행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

1. 검은 모루 동굴 : 평양시 상원군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 우문봉 남쪽 비탈에 위치한 검은 모루 동굴 유적은 문득 이 노래 가사를 떠오르게 한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땅속을 뒤져보면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있다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발굴된 검은 모루 동굴에서는 29종의 동물 화석과 석기들이 나왔다(참3). 연대는 60-70만년 전으로 추정되며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이다.

발견된 화석은 원숭이와 코뿔소등 아열대 동물들의 것이었고 인류 화석은 발굴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였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검은 모루 동굴의 동물 화석은 만주의 요동반도 김우산(金牛山) 동굴 유적의 포유동물 화석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우산 유적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검은 모루 동굴에서도 이른바 직립 원인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인지 동굴 입구에 큼지막하게 호모 에렉투스 벽화가 그려져 있다. 호모 에렉투스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실 이 벽화는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있는 호모 에렉투스 상상을 그대로 다시 그린 것이다(참4).

검은모루 동굴은 한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없다는 구실로 일본의 식민사관을 합리화시켰다. 그러나 검은모루 유적은 한국의 역사를 70만~100만년 전으로 올려놓아 남북한 통틀어 한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2. 승리산 동굴 : 평안남도 덕천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중 많은 사람들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문장이다. “한반도 내에서 최초의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은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동굴이고, 남한 최초의 인골화석 발견지는 충청북도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이다.” 한반도와 남한으로 구분지어져 남북 분단의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덕천 승리산 동굴과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 모두 이번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승리산 동굴은 평남 덕천시 승리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동굴은 입구의 높이가 7m, 너비가 7m이고 길이는 구불구불하지만 60m나 뻗어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화석이 발견된 승리산 동굴 유적은 한민족의 시원을 밝힐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승리산 동굴은 석회암이 녹으면서 형성된 광물질이 유골과 결합하여 돌과 같이 굳어져 부패작용과 물리적 외력에 저항력이 강해져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여 몇 십만년전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평양 검은 모루 동굴, 충북 단양군 상시리 바위 그늘 유적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모두 석회암 동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시멘트 생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고대 인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2~1973년에 발굴된 승리산 유적에서는 발굴된 화석의 아래층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어금니 2개와 어깨뼈 1개가 발견되었다. 위층에서는 35세로 추정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치아 2개가 박힌 하악골이 나왔다(참5). 이곳에서 나온 뼈는 발견된 지명을 따서 네안데르탈인은 덕천인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승리인으로 부른다(그림1). 이 시대 사람들의 치아는 현대인과 비교했을 때 치아의 크기가 더 크고 심한 교모가 나타났으며 소구치에서는 치관과절도 관찰되었다(참6).

3. 단군릉 : 평양시 강동군

일연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하늘의 신인 환인의 후계자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악(善惡) 등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다(참6). 따라서 환웅은 절대자이며 의학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웅녀의 탄생 과정에 사용된 쑥 한줌과 마늘이 원시의학적인 첫 번째 의료 행위를 들 수 있다.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단군왕검이 태어났고 단군은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한국인의 시조이자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단군의 유골이 발견되어 단군릉을 개건하였다는 좀처럼 믿기 힘든 사실을 북한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최대의 업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단군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많은 옛 문헌들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평양시 강동군에 둘레가 410자(123미터)나 되는 큰 무덤을 단군릉이라 하였고 속종실록과 영조실록에는 단군묘를 수리하였다고 언급되었고 정조때에는 봄가을로 단군묘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참7).

과학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단군릉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흥미롭게 느껴진다. 단군릉은 1993년 착공되었는데 면적은 1.8km²로 크기가 엄청나다(그림2). 무덤 무지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그 높이는 22m로 축조되었고 1994개의 화강암이 사용되어 1994년에 개건되었다(참4). 대한민국 치과의사학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병태 박사는 한민족 치의학의 창시자는 환웅천왕이라 하였다(참8). 통일이 되면 꼭 가봐야 할 목록에 환웅의 아들 단군과 며느리 웅녀가 잠들어 있는 단군릉도 포함시켰다.

4. 조선미술박물관 : 평양시 중구역

평양시내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과 조선민속 박물관과 같은 세 개의 박물관이 있다. 그중에서 토선 함석태의 수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에 유독 관심이 간다. 조선미술박물관은 1948년 건립되었고 크기는 4층 건물이며 모두 2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의 제1호실에서 12호실까지는 고대에서 근대 미술품이 있고, 3층의 제13호실에서 26호실까지는 해방 후 창작된 현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참4).

함석태는 독립운동가 오세창(1864~1953)의 권유로 문화재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도자기를 좋아해서 자신의 호를 '토선(土禪)'이라 하였다. 그는 근현대 미술 애호가 및 수장가 14인에 포함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개최된 고서화 전람회에 출품된 그의 수장품들의 면면을 보면 간송 전형필과 필적할 정도로 국보급들이 많았다. 겸재 정선의 금강전경액와 호계삼소, 현재 심사정의 매도와 묵연, 단원 김홍도의 화조대폭, 구룡폭(그림3)과 노예혼기(그림4), 추사 김정희의 행서칠언대련, 적고당예액, 부용추수비인거액, 조선의 반고호로 불리우는 최북의 금강총도(그림5), 허련의 산거도(그림6)등

함석태가 보유했던 수장품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함석태는 일본을 왕래할 때 항상 ‘금강산 연적’(그림7)을 지니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일본 형사들에게 까다로운 심문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골동품 집착에 대한 소문이 나서 연적만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참9). 그때의 그 연적은 지금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평양 조선 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2006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북녘의 문화재’ 전시회에 함석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백자 금강산 연적이 출품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해방전후 혼란시기에 함석태는 일제 소개령에 따라 1945년 자신의 소장품들을 평안북도 영변으로 옮겼다. 해방 후 함석태의 자취는 어디에도 없고 다만 그의 일부 소장품들은 지금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중인데 차라리 그때 서울에 그대로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만 가득하다.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4편 ‘평양의 날은 개었습니다.’에 함석태의 수장품중 일부가 자세히 소개되어 본문을 그대로 옮겨본다(참4).

“조선미술박물관에는 이제까지 세 점의 단원 김홍도 작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나는 사자인지 삽살개인지 모르는 털복숭이 네발짐승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늙은 짐승’이라는 동물화고, (중략) 마지막 하나는 금강산 구룡폭포를 대담한 붓놀림으로 명쾌하게 요약해낸 ‘구룡폭’이라는 제목의 산수화다. (중략)

‘늙은 짐승’에서 터럭들이 부풀어 일어날 것만 같은 생동감, ‘약초를 캐고서’에서 선묘의 강약이 드러나는 리듬감, ‘구룡폭’에서 바윗결을 화강암의 절리현상에 따라 혹은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혹은 사선으로 죽죽 그어 내리면서 곳곳에 윤치있게 소나무를 그려 넣음으로써 설경의 사실감을 조형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모습은 그림이 왜 사진보다 감동적일 수 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중략)

‘늙은 짐승’은 50대 초반 작품으로 그의 40대 때 동물화에 비할 때 분방한 붓놀림이 눈맛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이며, ‘구룡폭’은 50대 중반 그림으로 그가 44세 때 정조의 명을 받아 금강산을 다녀와서 그렸던 구룡폭포 그림에 비하면 그 원숙한 맛이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었다.

수도권

1. 세종대왕 동상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두 분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만 홀로 외롭게 서있었지만 2009년 10월 9일부터는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광화문 광장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동상 뒤편에 있는 ‘세종 이야기’ 전시관을 둘러보면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몹시 쇠약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세종은 의료계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세종은 지방에서 의녀를 선발하여 서울에서 교육시킨 후 다시

지방으로 배치하여 전국의 모든 부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의녀의 자식들만은 평민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의녀들의 사기를 더욱 높였으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의녀들이 일을 하였을지 상상이 된다(참10).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된 의녀(醫女)로는 가씨, 장덕, 옥매, 귀금의 활약을 보면 비록 천한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조선시대의 여성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도 의녀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에 사는 효덕이 교치(이갈이)를 고칠 수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세종 52권, 1431년 5월 6일, 제주 사람 효덕에게 쌀·면포 등을 주다

제주에 사는 효덕(孝德)이란 여인은 어두운 눈에 티를 없애고, 교치(嚙齒) 후충(喉蟲)을 고치므로, 명소(命召)하여 쌀과 콩 아울러 5석, 염장(鹽醬) 및 면포·정포 각 3필을 주었다.

세종의 왕명에 의해 편찬된 의방유취는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이고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서로 손꼽힌다. 1800년대초에 출판된 서양의 의학백과사전보다 거의 4세기가량이 앞설 만큼 문헌적 가치가 뛰어나다. 의방유취는 세종때 완성되었지만 성종 1477년에 266권으로 정리하여 30절이 인쇄되었다. 안타깝게도 원본은 12권은 사라지고 254권만이 현재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 있다. 국내에는 충북 음성의 한독 박물관에 초판본인 의방유취 1권만이 보물 1234호 지정되어 보관중이다.

2. 백련사 터 : 서울 종로구 삼청동

황산 김유근(1785~1840)은 조선시대 70년 세도정치의 서막을 열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의 장남이고 조선시대 역대 아까운 군주 중 한 명인 효명세자가 믿고 의지하는 외삼촌이었다. 김유근은 아버지 김조순과는 달리 정치보다는 학문과 예술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김조순이 사망한 뒤 세도가문에서 밀려나 실권자가 되었고 1835년에 지병으로 인해 실어증까지 겹쳐 힘든 노년을 보냈다. 아마도 한유의 '낙치'에 운자를 따서 시를 3편이나 지었는데 노년의 회한과 통한을 치통에 비유하여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참11).

백련사는 절이 아니고 김유근의 집 이름인데 북악산 기슭인 백련봉 아래에 있다 해서 백련사라 불렀고 그는 이곳에서 추사 김정희와 이재 권돈인등과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다. 옛날 백련사 터에는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리잡고 있고 평가원 주차장에 백련사터를 소개하는 표석이 남아있다(그림8).

치낙 차한문공운(齒落 次韓文公韻)

생각해보면 나 처음 태어날 때 어찌 어금니 하나 있었겠나

부모님 품에 있는 여덟아홉 달 점차 이빨이 쉬지 않고 자라나

아래위 잇몸에 가득 차고 비로소 멈추었지

나무나 돌을 씹을 정도로 견고했는데 흔들리면 속으로 부끄러워했지
 이빨은 두들겨 부숴서 씹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쇠해져서 이빨 빠지면 늙어 죽는다고 했던가
 세상사람 누구나 이런 탄식하니 남이나 나나 어찌 다르겠는가

육신거리면 따뜻한 술 못 마시고 시리면 찬 물 마시기 어렵지
 이 빠진 곳 붙어난 시냇물 흐를 듯 넓고 빠지는 속도는 가을 낙엽 지는 듯하지
 이빨 빠진 자는 이빨이 빠지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네

빠진 이빨 만지니 별 생각 다 드니 처음 빠질 때와는 다르네
 처음엔 빠지면 또 낫는데 이젠 한 번 빠지면 정말 그만이네
 나는 지금 반평생 살아온 나이 세월 빨라 오심을 지나네
 사람에게 이빨은 중요하니 어찌 팔다리나 손발가락과 같겠는가?

생명은 음식에 의해 유지되니 이빨이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지
 턱을 늘어뜨리고 진수성찬 마주하면 돌아보며 항상 답답하고 우울하지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자 더러운 흙처럼 쓸모없는 존재네
 어떻게 해야 연한 음식 얻어 기뻐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

젊은 시절 다시 올 수는 없지만 남은 이빨 아직 훌륭하니
 낙치(落齒)시에 차운하여 창려(昌黎;한유의 호)를 탄식하노라

차전운(次前韻)
 사람에겐 혈기가 있으니 생명은 이빨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이빨이 모조리 빠진다 해도 빠지면 그만일 뿐이지

한 번 빠지면 깜짝 놀라지만 다 빠지면 또한 그런 마음 없네
 아래위로 남은 이빨 하나 없어도 사람으로서 무엇이 부끄러운가

다만 들으니, 이빨 빠진 이는 머지않아 죽을 것을 걱정한다지
 번거롭게 타인에게 물을 필요 있나 자기 자신 자세히 살펴보면 되지

예전 젊은 시절에는 기운이 왕성해 땅의 물처럼 어디든 통했지
 흰 빛깔은 조개를 엮은 듯 반짝이고 치밀함은 빗살처럼 가지런하고

아무리 딱딱해도 씹을 수 있었으니 날카롭기가 칼날 같았지
견고했던 것이 흔들리고 흔들림이 심하다가 결국 빠지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몇 살이나 물으니
나이는 반백년 지나고 또 네 손가락 더 꼽지

입이 움직일 때 지탱할 게 없고 위아래 턱은 의지할 곳 잃네
오랜 옛날 젓먹이 시절엔 이 이빨의 도움 받은 적 없었지

곤궁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니 늙으면 어린애처럼 되게 마련이지
이미 먹는 일 끊었으니 있다고 기쁘고 없다고 걱정하겠는가

이 일 계기로 마침내 곡기를 끊고 수명 연장하면 아름답지 않은가
모름지기 한나라 율령을 보아야 하니 모두 장창에게서 나왔느니라

우차전운(又次前韻)

지금 내가 너무 노쇠하여 하루아침에 이빨 빠진 것을 읊네
하나 빠진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차례로 연이어 흔들려

아래위 어긋나 제멋대로인데 다 빠지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지
다 빠지고 남은 이빨 없으면 결국 입술이 무색해지겠지

노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니 몸이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태어나던 그 옛날 이빨 없을 때 애시당초 관심 두지 않았지

이것은 뼈의 나머지인데 늘어서서 혈액의 힘의 의지하고
아래위 서른여섯 개 마주보며 서로 의지하며 나란하지

둘러친 담장처럼 둥그렇고 나무 세운 목책처럼 견고하지
살면서 마음껏 먹고 씹으니 이빨 없으면 굶주리게 되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니 몸의 중추적인 부분이지
입만 있고 이빨 없으면 손톱과 손가락 없는 것과 같지

손톱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사용하지만 이빨 없으면 입은 무얼 의지하나

연한 음식 있다 해도 우연히 한두 번일 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 어찌 아무렇지 않게 여기겠는가

나는 이빨이 빠진 뒤로 몸을 어루만지며 울적해 하지

어찌 다만 죽음이 무서워 그러하겠나 조짐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지

세 번에 걸쳐 이것을 읊어 부자(한유)에게 알리노라

김유근이 차운한 중국 당나라의 재상인 한유(768~824)의 시 낙치(落齒)는 이빨이 빠지자 처음에는 탄식하였다가 점차 치아가 상실되는 것에 익숙해져 결국에는 이빨이 없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참12). 다산 정약용의 노인일패사와 어찌면 이렇게 메시지가 똑같은까 라는 감탄이 절로 튀어나온다.

낙치 당 한유(齒落 唐 韓愈)

去年落一牙 거년낙일야 지난해는 어금니 한 개가 빠졌고

今年落一齒 금년낙일치 금년에는 앞니 한 개가 빠졌다.

俄然落六七 아연낙육칠 어느 사이에 6, 7개가 빠졌다.

落勢殊未已 낙세수미이 빠지는 기세가 좀처럼 줄어 들지를 않는다.

餘存皆動搖 여존개동요 남은 것들도 모두 흔들리니,

盡落應始止 진낙응시지 다 빠져야만 그치려나 보다.

憶初落一時 억초낙일시 맨 처음 한 개가 빠졌을 때를 돌이켜 보니

但念豁可恥 단념활가치 환하게 틈이 벌어져 부끄러운 마음 뿐이었다.

及至落二三 급지낙이삼 두 세 개가 빠져가는 지경에 이르자

始憂衰即死 시우쇠즉사 쇠약해져 이대로 그냥 죽나 보다 걱정이 되었다.

每一將落時 매일장낙시 매번 한 개가 빠지려 할 때마다,

懍懍恒在己 늌름항재기 나는 늘 불안해 하곤 했었지.

叉牙妨食物 차야방식물 이가 빠지면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顛倒怯漱水 전도겁수수 뒤집어져서 양치질 하기도 거북했다.

終焉捨我落 종언사아락 마침내 나를 버리고 빠질 때,

意與崩山比 으여봉산비 마음은 마치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今來落既熟 금래낙기숙 이제는 이가 빠지는 일도 익숙해져서,

見落空相似 견낙송상사 이가 빠지는 것을 봐도 그저 그럴 뿐이다.

餘存二十餘 여존이십여 스무 남은 개가 남아 있으니,

此第知落矣 차제지락의 차례로 마저 빠지리라.

儻常歲落一 당상세낙일 가령 해마다 한 개씩 빠진다면,

自足支兩紀 자족지양기 그래도 24년은 버티리라. 紀(버리기)는 열두 해를 이룸

如其落併空 여기낙병공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된다 해도,

與漸亦同指 여점역동지 조금씩 차례로 빠진 것이나 역시 같을 것이다.

人言齒之落 인언치지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가 빠진다는 것은,

壽命理難恃 수명이난시 수명도 어려워지게 되는 이치라고

我言生有涯 아언생유애 나는 말하건대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있어서,

長短俱死爾 장단구사이 장수하던 단명하던 다 죽게 마련이다.

人言齒之豁 인언치지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사이기가 흰해지면,

左右警諦視 좌우경체시 주위에서 눈이 호 동그래져 바라볼 것이라고

我言莊周云 아언장주운 나는 말한다. 장자가 말하기를

木雁各有喜 목안각유희 나무와 기러기는 (장, 단점에) 각기 기쁨이 있다고 했다.

語訕默固好 어와묵고호 말하기 거북하면 아무 말 안 하면 좋을 것이고

嚼廢軟還美 작폐연환미 씹기가 곤란하면 연한 음식이 좋아지리라.

因歌遂成詩 인가수성시 그래서 나는 이런 기분을 노래하고 시를 지어서,

持用詫妻子 지용타처자 아내와 자식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노라.

3. 이해 박는 집 :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926년 6월 10일 순종황제 인산 날 종로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에 ‘이해박는 집’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인다(그림9). 많은 사람들이 이해박는 집을 치과의사가 개원한 의료기관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입치사(入齒師)가 입치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입치사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간단한 기공 기술을 개인적으로 전수받아 보철, 충천 및 발치 정도를 시술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치과의사와 입치사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입치사의 허가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1920년대 입치사의 수는 200여명이 넘는 반면에 치과의사는 20여명에 불과했다. 입치사인 임순철은 1909년 2월 대한매일신보에 ‘대한치과병원’을 개설했다는 광고까지 했기에 일반인들이 두 직종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참6).

또한 이때 허가된 입치영업자들은 한지 치과의사라는 명칭으로 변환되었고 결국에는 치과의사 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는 의료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에 의하면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고 적혀있다.

입치사 등장의 배경에는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묻혀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도입된 입치사는 1906년 일본이 치과의사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강화하자 대거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일본의 침략 정책에 동참한 입치사들의 이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내 보였고 한국인들에게 치과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악영향을 미쳤다(참13). 예를 들면 과도한 상업적인 입치 문화에 의해서 건전치에 금으로 장식을 하는 보철 치료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해박는 집의 현재 위치는 단성사 근처인 종로3가 교차로에서 종로2가행 도로 모서리 측 도로변으로 추정된다(참14). 이해박는 집에서 근무한 입치영업자는 1907년 종로에 개업한 한국인 최초의 입치사인 최승룡이었다. 그는 확실히 않지만 조선 최초의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로부터 입치 기술을 전수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제증원 : 서울 종로구 재동

제증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으로 1895년 4월 10일 미국 선교의사인 알렌의 건의로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명칭이 왕립 광혜원이었지만 개원한지 12일후에는 제증원으로 변경되었다. 제증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폭증하자 1887년에는 구리개(현재 한국외환은행 본점 부근)에 있는 홍영식의 집으로 이전하여 병원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 서울 종로구 재동과 중구 을지로 2가에 가면 제증원이 있었던 터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서 있다(그림10).

한국에서 최초로 치과의료 진료가 행해진 공식 의료기관은 제증원이고 시술자는 알렌과 헤론이다. 제증원이 개원한 첫 해에 충치 60례와 발치 15례 등 구강 질환 처치에 대한 통계가 보고되었다(참13). 1996년 출판된 ‘알렌의 조선 체류기’에 언급된 알렌과 치아에 관한 일화를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의 구강 위생 및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참15).

밥을 먹는 것은 치아의 성장에 좋은 것 같다. 조선인들은 거의 한결같이 진주 같이 흰, 훌륭한 치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심하게 이를 닦는데, 소금은 세척제로 사용하여 칫솔 대신에 손가락으로 치아에 대고 문지른다. ‘창백하다’ 고 할 만큼 초췌한 안색으로 불결한 작은 침실에서 나와 아침에 소금으로 이를 닦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곧 그들도 썩은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학부에 다닐 때 나는 이를 뽑는 법을 배워보려 했으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곤 적절한 핀셋을 골라 빼려는 이를 깊게 꼭 집어 비틀면서 ‘귀중한 생명을 위해 잡아 뽑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심한 치통을 호소했다, 나는 그를 쫓아버리기 위해 이를 빼라고 권했다. 이를 빼라고 하면 환자들은 즉시 도망가 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즉시 이를 빼겠다고 동의를 했다. 나의 처방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능력을 다했는데 한꺼번에 이가 두 개나 빠져버린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몹시 우울했다. 그날 늦게 내가 병원 문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다시 온 것을 보고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나는 그의 썩은 이와 함께 성한 이를 빼버린 데 대해 심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가 그의 아내의 이를 빼달라고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에는 이처럼 통증도 없이 한꺼번에 두 개의 이를 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빼는 일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그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

5.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초상화의 비밀’이라는 기획특별전이 개최되었는데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에 그려진 모든 초상화들이 총망라되어 200여점이 출품되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인데 즉 ‘일호불사 편시타인(一毫不似 便是他人)’이라 하여 터럭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신 이정보의 초상화는 앞에서 말한 원칙대로 그려졌는데 얼굴이 몹시 야위어 안쓰러울 정도이고 광대뼈는 더 돌출되어 보인다(그림11). 윤곽선과 음영으로 얼굴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고 이마는 암적색으로 약간 어둡게 하고 눈썹은 밝게 표현하여 입체감이 도드라진다. 굳이 치과의사의 눈을 빌리지 않고서도 이정보는 다수의 상실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초상화에 관찰된다.

이정보(1693~1766)는 1732년 영조 시절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나 외모에서 풍기는 것처럼 성품이 엄격하고 강인하여 직언을 서슴치 않아 여러 번 파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시조에 능한 재주가 있어 역사적인 인물을 추모하거나 늙어감을 서러워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시조를 남겼고 시조의 주류를 평민층으로 전환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이정보(1693~1766)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꼬

빠진 이 다시 나며 센 머리 검은 손가

세상에 불로초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참6).

6. 강우규 동상 : 서울 용산구 동자동

강우규(1855~1920)는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현재의 서울역)에서 신임 사이토 조선 총독에게 폭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도피 중 일제 앞잡이 형사 김태석에 체포되어 1920년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강우규 의사에겐 두 명의 아들 건화와 건형이 있었는데 차남인 건형은 만주에 살아 생사도 모르는 처지이다. 반면 장남 강건하는 최집손과 결혼하여 복섬, 복동 그리고 영재까지 세 명의 딸을 두었다. 강건하는 만주 연길에서 사망하였고 복섬과 복동은 복녕 땅에 남아 있고 최집손 여사와 딸 강영재는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 월남하여 수원에서 거주하였다(참16).

독립 운동가 강우규의 손녀 딸 강영재(1909년생으로 추정됨)는 치과의사 함석태에게 양녀로 입양되어 함석태의 친손자들과 형제처럼 지내며 성장하였다. 강영재 집에서 발견된 사진이 함석태의 모습을 남긴 유일한 증거이다. 강영재는 이화고녀(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함양에서 교편을 잡았다.

강영재가 선생 노릇을 할 때 강우규 의사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강신호가 사기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잡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강우규 의거가 발생한 지 92년이 지난 2011년 9월 2일 서울역 광장에 서있는 강우규 의사 동상이 세워졌고 오른 손에 폭탄을 쥐고 있는 당당한 모습에서 독립운동가의 결연함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지식인 함석태의 나라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7. 허준 박물관 : 서울 강서구 가양동

허준 박물관은 허준의 업적과 박애 정신을 기리고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에 2005년 3월 23일에 개관한 공립박물관이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선조와 광해군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그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다. 1590년에는 선조의 아들인 광해군(그 당시에는 세자)이 두창(천연두)에 걸렸을 때 치료하여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로 피난갔을 때 많은 신하들이 도망간 반면에 어의인 허준과 몇 십명의 신하들과 환관들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허준과 광해군의 관계를 배경으로 광해군 일기에 실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광해군의 치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허준이 언급한 오래된 증세는 치통이고 지속적으로 침을 맞아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자 광해군이 이를 연속 맞기를 원하자 허준은 그러면 광해군에게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조선시대 의성(醫聖)으로 추앙받았던 허준에게 치통만큼은 극복하지 못했던 질환이었던 것 같다.

광해 58권, 광해군 4년, 1612년 10월 2일

허준과 침을 맞는 것에 의논하다

침을 다 맞고 나서 병풍을 치우도록 명하였다. 허준(許浚)이 아뢰기를, “오래된 증세에는 한 번의 침으로는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모레 다시 맞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일 맞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이 아뢰기를,

“연이어 침을 맞으시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였다.

이항복(李恒福)이 아뢰기를,

“치통 증세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잇몸의 좌우가 모두 부은 기운이 있는데, 왼쪽이 더욱 심하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끓는 것처럼 아프고 물을 마시면 산초(山椒) 맛이 난다.” 하였다. 침을 다 놓고 나갔다.

8. 정관헌 :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에 있는 정관헌은 1900년 러시아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서양 절충식 양식의 건물에서 고종은 외교사절들과 다과회를 개최하고 음악 감상을 했다(그림13). 한때 태조, 고종과 순종의 어진(초상화)이 봉안되어 있었다. 조선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외국인 선교사와 상인들에 의해 1880년대 중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커피를 한약과 비슷하게 보여 ‘양탕국’이라 하였고 ‘가비’는 커피의 고어(古語)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불안한 고종은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 몸을 실고 아침 일찍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성공한다.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아마도 고종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커피의 맛에 푹 빠지지 않았나 싶다. 고종과 커피를 소재로 한 ‘가비’라는 영화에서 고종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나는 가비의 쓴맛이 좋다. 왕이 되고부터 무얼 먹어도 쓴맛이 났다. 현대 가비의 쓴맛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구나.” 이 시기에 고종은 입으로 쓴맛을 느꼈지만 백성은 온몸으로 피눈물을 흘렸었다.

야사에서는 ‘비상’이라는 독약이라 하고 고종실록에서는 아편이라 한다. 김홍록은 고종을 죽이고 자신이 유배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기에 아편보다는 독약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독약이 든 커피를 마신 순종의 치아가 모두 빠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참17). 아마도 순종은 심한 치주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독살 사건이 일어난 후 여러 개의 치아가 동시에 발치되지 않았나 싶다.

커피는 1898년에 일어난 고종 독살 음모사건에도 등장했다. 아관파천 시절에 세도를 부렸던 역관 김홍록이 하루 아침에 세도의 날개가 떨어지게 되고,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자 고종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유배를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처 김소사를 통해 송홍식에게 독약을 전하여 황제의 음식에 몰래 섞어 넣도록 했다. 공홍식은 그전에 보현당의 창고지기로서 임금에게 올리는 서양 요리를 맡았다. 쫓겨난 적이 있는 김중화를 큰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 김중화는 소매에 독약을 감추고 덕수궁 주방에 들어가 고종과 세자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었다.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입에 품었던 독차를 뱉어내어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괜찮았지만, 한 모금을 마셔 버린 세자는 그것을 토하며 고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차사건의 여독으로 인해 18개의 의치를 하게 되었다.

9. 이규보 묘 : 인천 강화군

고려의 문인 이규보(1168~1241)가 남긴 흔적은 무척 다양하다(그림14).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이규보 사당이 있으며 부평구 십정동에는 계양도호부 부사로 재임한 것을 기념하여 이규보 로(路)가 있고 이규보의 문학 시비는 이규보의 고향인 여주, 인천 계양구와 강화도에 소재한다(참18). 마지막으로 강화도에는 그의 문학적 생애를 소개하는 문학관이 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는 옛말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규보일 것이다.

이규보의 묘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참19). 고려의 항복을 받은 몽고는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부셨는데 이 때 이규보의 묘도 훼손되어 무연묘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사람이 이규보의 묘비를 발견하여 이규보의 묘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규보의 묘역은 우리나라 7대 명당에 속한다고 하니 강화가 고려의 수도로 40년 동안 지냈던 이유가 분명하다.

술 없이는 시를 짓지 못하고 술에다 '선생'이라는 호칭까지 붙일 정도로 애주가 시인 이규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치통이었다. 신통치 않은 치아를 지냈던 이규보는 고려 시대에 73세까지 장수를 하였으니 자유분방한 그의 문학 세계가 장수 비결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우치통(又齒痛)

- 고려, 이규보(李奎報, 1168~1241)-

人以食而生 인이식이생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으며)

食必以其齒 식필이기치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이로 씹는데)

齒痛莫加飧 치통막가손 (이가 몹시 아파 먹지를 못하니)

天殆使我死 천태사아사 (하늘이 나를 죽이려는가보네)

剛折亦云經 강절역운경 (강하면 꺾이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老齡更堪恥 노활경감치 (늙고 이 빠지니 더욱 부끄럽네)

餘有幾箇存 여유기개존 (아직도 몇 개가 남아 있지만)

浮動根無寄 부동근무기 (뿌리가 흔들려서 붙을 데 없더니)

今者又復痛 금자우부통 (이제 다시 쏘시고 아파서)

延及頭亦爾 연급두역이 (두통까지 일어나네)

水寒不可飲 수한부가음 (찬물도 마실 수 없고)

湯亦不可試 탕역불가시 (뜨거운 물도 입에 댈 수 없네)

糜粥候冷熱 미죽후랭열 (죽도 식기를 기다려)

然後僅能舐 연후근능지 (겨우 핥아 먹노라)

矧可齧肉爲 신가흘육위 (하물며 고기를 씹을 수 있으랴)

有肉空在杻 유육공재지 (고기가 있어도 한갓 도마에 있을 뿐이네)

是實老所然 시실노소연 (이 모두가 늙은 때문이니)

無身始適已 무신시내이 (죽어야 비로소 끝나리)

10. 성현 묘 : 경기도 파주

조선 초기 문신 성현(1439~1504)은 호가 용재이며 한명회와 친분이 두터웠고 유자광과 함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괘범 편찬하였다(참20). 연산군 시절에는 공조판서와 대재학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성현은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의 신하 이육(1438-1498)과 절친이자 사돈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조선 시대 의녀의 활약상이 담긴 책을 저술하였다. 이육은 중국 명나라를 다녀와서 쓴 견문인 '청파극담'이라는 책에서 의녀 가씨, 장덕과 옥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성현은 조선시대 사회 전반을 다루는 잡기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용재총화'에서 장덕이 죽은 후 사대부들의 치통을 치료하는 또 다른 의녀를 거론하였다(참8). 그녀는 바로 성종의 치아를 치료했던 제주 의녀 귀금이다.

용재총화 10권 24~25면

조정에서 각사 각관의 나이 어린 여종을 뽐아 해민서에 소속시킨 후 의서를 가르쳤다. 이름하여 여의라 했으며 부인의 병을 치료하게 됐다. 제주에서 온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의술은 알지 못했으며 오직 치통을 제거했다. 사대부 집안에서 서로 다투어 불렀다. 그 여인이 죽자 다시 한 여인이 있어 그 일을 이었다. 나도 역시 불려서 치통을 치료했다.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고 입을 열게 한 후 은비로 조그맣고 하얀 총을 잡아냈다. 은비가 치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치아에서 피도 나지 않았다. 그 용이함이 이와 같았다. 또 그 치충제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다. 비록 조정에서 죄로 다스리려 했으나 태연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는 필시 환술이며 정업은 아닐 것이다.

충청 / 강원

1. 상시 바위그늘 유적 :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 바위그늘 유적은 1981년 연세대학교 박물관 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3개의 바위그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바위그늘마다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그림15). 1 바위그늘은 구석기 시대 유적이며, 2 바위그늘은 빗살무늬토기와 더불어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등이 나와 신석기에서 청동기까지의 시간을 보여준다. 3 바위그늘은 맨 아래층인 6층에서 점멸종인 하이에나의 뼈가 나와 후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4층에서 1층까지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상시 1 그늘은 바위그늘이라기 보다는 작은 동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늑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1 바위그늘은 11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층에서 사람의 뒷머리뼈 조각, 주걱뼈, 앞팔뼈, 위팔뼈 그리고 사람의 치아가 발굴되었다. 사람 화석의 머리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추정되고 우라늄계열 연대 측정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절대연대는 3만±7000BP로 나왔다(참21).

상시 바위그늘 유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치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고를 준비하면서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 동굴,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과 부산 영도구 조도에서 유골과 치아가 발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골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치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 같다.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치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치아는 인체 장기 중 가장 견고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저항성이 높아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혹시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유적이 발견된다면 치과의사도 발굴팀에

참여하여 인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단양 팔경 휴게소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2. 청원 두루봉 동굴 : 충청북도 청원군

두루봉 동굴은 석회암 채굴장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으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발굴 조사하여 구석기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석회암 발파작업 중 희귀하게 생긴 동물 뼈(하이에나, 쌍코뿔이, 원숭이)들을 발견한 공사 현장 인부가 세상에 알림으로써 충북대와 연세대 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유물을 찾았다(참22).

특히 이곳에서는 4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완전한 사람 뼈가 발굴되었는데 5세 가량의 아이로 추정되며 키는 110-120 센티였다. 이 유골은 1983년 김홍수가 처음으로 발견하여 ‘홍수아이’라 불리우고 발견된 유적지는 ‘홍수굴’이란 이름을 붙였다(그림16). 또한 홍수아이 주변 흙을 채취하여 분석하니 가슴뼈 부분에서 국화과의 꽃가루가 나왔다. 어린 아이의 매장 과정에 국화꽃을 이용한 장례가 치뤄졌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평양의 검은 모루동굴과 같이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서도 원숭이와 코뿔이의 턱뼈 화석이 발견되어 이 무렵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세 홍수아이에서는 치아가 포함된 두개골이 발굴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자료가 없는 것 같아 아쉬움만 가득하다.

청원 두루봉 동굴 한국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인류 화석이 발견되어 모든 역사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유적이다. 그러나 유적이 발굴된 후 석회암 채굴이 지속되어 현재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상태다. 1970년대 경제 개발 시기에 이러한 유적의 소중함을 미처 못 알아챈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3. 아산 어금니 바위 : 충청남도 아산시

충남 아산에서 ‘아’는 어금니 아, 산은 피산 그래서 牙山이다. 산의 모습이 어금니를 뒤집어 놓은 형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문헌에 의하면 아산이라는 지명은 백제 온조왕때부터 사용되었다. 삼국사기 온조왕 43년(서기 25년) 8월에 왕은 아산원에서 5일 동안 사냥을 했다(참23)(溫祖王 43年 秋八月 王田 牙山之原 五日).

지명에 ‘어금니 아’가 사용된 것이 무척 흥미롭고 게다가 아산에는 어금니 바위가 있고 그 바위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스토리도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참24).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고려 말 욕심쟁이 할아버지와 착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승이 이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고 착한 며느리가 쌀을 퍼주었는데 이 사실을 안 부자 노인은 쌀을 빼앗고 대신에 쇠뿔을 한 가득 담아주었다. 착한 며느리는 노승에게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하였다.

노승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떠났다. “이 집은 곧 큰 비가 와서 물에 잠길 터이니 빨리 집을 나와 산으로 피하라고 한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노승의 예언처럼 잠시 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착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노승의 말을 전하며 빨리 집을 떠나야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욕심쟁이 노인은 맹종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집에 남는다.

착한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산으로 오르는데 정말 노승의 말처럼 순식간에 집이 물에 잠기고 만다.

시아버지를 걱정하던 며느리는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며느리는 돌이 되었고 그 바위의 이름이 ‘어금니 바위’ 또는 ‘애기 엮은 바위’라고 불리운다(그림17).

미국 캐년랜드 국립공원에 ‘The Molar Rock’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어금니 바위’가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교훈적인 스토리가 있다니 대한민국이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다.

4. 안축 시비 : 강원도 속초, 태백, 양양

고려말 문신인 안축(1282~1348)은 경북 영주 태생이고 호는 근재이며 고려말 성리학의 전래자 안향의 후손이다. 안축은 국문학사에서 관동별곡, 죽계별곡, 한림별곡의 저자로 유명하며 경기체가의 형성 과정에 크게 하였으나 그의 노래가 한문과 이두로만 전승된 연유로 후대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참25).

안축의 고향은 경북 영주이지만 강원도와 더 친밀한 관계이다. ‘관동와주’라는 기행 시집은 안축이 47세에 강릉도 존무사로 근무시 관동 명승지를 둘러보고 그 감회를 한시로 읊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강원도에 안축의 시비가 세 군데에나 세워져 있다. 속초 영랑 호반에 ‘영랑에 배 띄우고’, 안축이 태백산을 등정하고 남기 ‘태백산에 오르다’라는 시비는 태백산 정상에 있고 마지막으로 양양 낙산사에는 ‘낙산사 시운’비가 있다.

안축의 문집 ‘근재집(謹齋集)’ 권1에 ‘이얌이’라는 제목의 시가 치과의사의 주목을 끈다. ‘약 캐러간 아이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구절에서는 고려 시대에 치통 완화를 위해 약초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부하건대 젊은 그대들이여 조개껍질 묶은 듯 너무 믿지 마시게’라는 안축의 충고는 지금도 유효하다(참26).

장년엔 기력이 넘쳐나더니 나이 먹어 온갖 병 번갈아 드네
 혈맥은 속에서 시들어가고 치아와 머리털은 밖에서 세네
 터럭과 머리칼은 아픈 줄 몰라 하얗게 썩어도 아무렇지 않더니
 온 이가 들떠 흔들리면서 못 참게 시린 것이 칼로 끊어내는 듯
 밥은 거칠어 미음 죽 마시고 고기도 질겨 생선회만 우물거리네
 갈수록 빠져나가 비어만 가니 입술인들 모다 덮을 수 있나
 약 캐러간 아이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홀로 남아 탄식한들 무얼 어찌해
 당부하건대 젊은 그대들이여 조개껍질 묶은 듯 너무 믿지 마시게.

경상

1. 조도 : 부산 영도구 태종로

부산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조도(朝島)’라는 섬이 있다. 예쁘고 작은 것을 경상도 말로 ‘아지’라 해서 아지섬이 되었다 지금은 아지섬으로 호칭되는 이 작은 섬은 1876년 부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개방될 때 인가가 6-7채 정도 있었다고 한다.

조도에 무덤이 없는 이유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참27). 어느 처녀가 부모 모르게 누구와 사랑을 하다 임신을 하였고 태어난 아이를 뒷산에 암매장하였다. 그 일이 있은 후 풍랑이 거세게 일어 마을 사람들은 섬에 식량이 떨어질 때 까지 고립되었다. 곤육을 치른 후 섬마을 사람들은 암매장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기 무덤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무덤을 물으로 이장하였다. 그 후 아치섬 사람들은 섬 안에 절대 무덤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전설을 가진 조도에서 1973년 발견된 조개무덤에서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인골 1구와 더불어 청동기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아치섬 인골에 관한 논문이 대한치과의사협회지(Vol 14, No 11, 1976년)에 ‘한국선사시대인 인골의 개인식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참28). 치아 및 악골의 해부학적 형태와 계측치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상악 제2소구치에는 잔조 치근이, 좌측 하악 제2대구치는 치아우식증이 관찰되고 우측 하악 제2대구치는 상실된 상태지만 비교적 건강한 치열을 갖고 있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1974년 아치섬 사람들을 이주시킨 후 그 조개 무덤위에 한국해양대학교 본관이 건축되는 바람에 더 이상 조개 무덤의 유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그림18).

2. 한국전쟁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 부산 영도구 동상2동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스칸디나비아 3개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각각 적십자 야전병원, 적십자 병원선, 이동 외과병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특히 덴마크가 파견한 8500톤 크기의 유트란디아(Jutlandia) 호(그림19)는 전쟁기간동안 24개국 외국인 부상자 4981명, 한국 민간인 150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하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참29). 종전 후에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이 남긴 의료 장비들이 모체가 되어 1958년에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창설되었다.

부산 태종대 입구에 한국전쟁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는 한국 전쟁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섯 나라의 적십자적 정신과 업적을 찬양하기 위하여 1976년에 건립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덴마크 코펜하겐 랑엘리니 부두에 유틀란디아 호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자 1990년에 기념비를 건립했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틀란디아호를 격려차 방문하시면서 치과 진료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3. 이색 목은 기념관 : 경북 영덕군

고려 말 정치가이자 대학자였던 목은 이색(1328~1396)의 기념관은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에 있다(그림20). 동쪽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보이고 서쪽으로 드넓은 영해평야가 펼쳐져 있는 이곳의 풍광은 이색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정도전의 스승이었던 이색은 고려조에 충성을 다하였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협조하지 않아 69세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6000여수에 이르는 방대한 시문을 남긴 대문호였던 이색은 문집 목은집에서 ‘대사구두부내향’이라는 제목의 시로 두부를 예찬하였다(참6). 연로하여 치아가 좋지 않았던 당신이 두부만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1786-1856)도 ‘대팽두부와강채’라 하여 최고가는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라 하였다. 그 시절에 두 분다 고희로 접어들 정도로 장수하셨으니 두부는 참

좋은 음식인 것 같다.

大舍求豆腐來餉 대사구두부내향 (큰집에서 두부를 구하여 먹이다)

菜羹無未久 채갱무미구 (채소국에 입맛을 잃은 지도 오래 되었다.)

豆腐截肪新 두부절방신 (두부를 썰어보니 기름진 비개같이 새롭구나)

便見宜疎齒 편견선소치 (문득 보아하니 치아가 성글지 않아도 좋은 듯하니)

眞堪養老身 진감양노신 (정말로 늙은 몸을 보양할 만하다.)

4. 월아산: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의기 논개이다. 그녀는 임진왜란 중 일본군이 축석루에서 벌이는 만찬에 참석하여 어금니를 짊 문채로 계야무라 로구스케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다. 그녀의 신분보다는 그녀의 충절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진주의 또 다른 명소인 월아산(月牙山)은 송림이 울창하여 일년 내내 삼림욕장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장소로 인기가 높다(참30).

월아산은 달이 떠오르는 모양을 한 산이라는 의미이고 일명 달음산이라고도 한다(그림21). 이 산의 정확한 산명은 달엄산이다. 진주시의 상징적인 산으로 꼽히는 이 달엄산은 산에서 달을 뺄어내듯 달이 떠오르는 모습 같다하여 아산토월(牙山吐月)이라고 불리우며 진주 8경중 하나이다. 또한 질매재에 달이 걸린 모습이 달의 어금니 같다하여 월아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월아산은 진주 시내에서 10여 분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높이도 471m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산이므로 한나절 산행으로 알맞은 곳이다. 특히 월아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 변에 진달래와 철쭉군락이 펼쳐져있으니 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라 / 제주

1. 김현승 시비 : 광주 북구 금곡동, 남구 호남 신학대학, 남구 양림동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시인 김현승(1913~1975)은 평양에서 태어났고 목사인 아버지의 부임지인 전라도 광주로 이사하여 초등 시절을 보냈다(그림22). 하지만 그 후 학창 시절은 평양에 있는 숭실 고등보통학교와 숭실 전문학교를 부모님이 계시는 광주까지 다녀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기에 홀로 기숙사에 남아 사색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김현승은 고독의 시인으로 감수성이 짙은 수많은 시를 발표하였다.

광주에는 김현승 시인의 시비가 세 곳에 세워져 있다. 첫 번째는 1977년 무등산 기슭에 위치한 원효사 입구에 ‘눈물’이란 시가 적혀있는 시비가 세워졌다. 두 번째는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양림동 호남신학대학 교정에 ‘가을의 기도’란 시와 함께 김현승의 약력이 새겨진 시비가 2007년에 건립되었고 마지막 시비는 김현승 탄생100주년을 기념해 ‘절대 고독’이 음각되어 있는 조형물은 김현승의 생가가 있었던 양림동 골목에 설치되었다.

김현승 시인이 40년 동안 발표한 2백30편의 시를 한데 모아 1974년에 발간한 김현승시전집에

‘치아(齒牙)의 시(時)’가 실렸다. 이 시는 이해하기에 무척 난해하지만 제목만큼은 치과의사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치아의 시는 시가 밝고 아름다운 상승 이미지가 아니라 아픈 존재이고 아픈 시는 내가 쓴 나의 아픔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연민’이 표현되어 있다. 치아의 시와 함께 작품 해설을 그대로 옮겨본다(참31).

치아의 시 - 김현승

네 미끄러운 혀보다도

네 부드러운 입술보다도

네 이빨로 말하는

너의 시가 나를 깨문다.

질긴 고기를 가래어 찢는

네 모진 이빨로 말하는

너의 시가 나를 깨문다.

네 영혼을

칼 위에 세우고,

머뭇거리는 네 영혼을 몰아

칼날 위에 세우고,

너를 동여잡은 사슬을 성한 밧줄을

온종일 물어뜯으며

물어뜯으며,

네 아픈 이빨로 말하는

너의 시가 나를 깨문다.

문법도 질서도 음악도

으깨져 사라져버린,

네 마지막 숨소리와도 같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네 소리를

네 소리의 피를

나는 듣는다,

네 영혼의 비록 아둔한 귀일지라도.

〈감상 노트〉

“鉛(연)”과 같은 무렵에 쓴 시다. 여기서도 시인은 이제 시가 밝고 아름다운 상층 이미지가 아니라, ‘네 영혼을 칼 위에 세우고 머뭇거리는 네 영혼을 몰아 칼날 위에 세우고’하는 아픈 존재이다. 그 아픈 시는 그리하여 아픈 나를 깨문다. 왜 ‘내가 여기서 아픈 존재가 되느냐 하면 아픈 시는, 내가 쓴 나의 아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연에서 그는 ‘문법도 질서도 음악도 으깨져 사라져 버린, 네 마지막 숨소리와도 같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네 소리를 네 소리의 피를 나는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자기연민의 감정은 다른 시에서 보면 “나는 이제까지 이방의 시를 써 왔다.”는 탄식과 더불어 토해진다. 그러나 이 나를 물어 뜨는 “치아의” “치아의 시” “가 김현승의 기독교의 신과 그 신에의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점에서 신을 버린, 혹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고독의 시’의 언저리에는 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렵의 김현승 시에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동원된다. 鉛(연)이라는 것도 50년대의 그의 시라면 파고들어 올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 밖의 치아라든지 胴體(동체), 형광등, 무기등도 그러하다. 하나 이 비김현승적 이미지들은 자세히 보면 그의 고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끌어들인 방편적인 언어들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2. 광주기독병원 : 광주 남구 양림동

광주 최초의 근대병원은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Dr. J.W. Nolan이 세운 제중병원으로 현재의 광주기독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치과 진료는 1923년 치과의로 선교사 Dr. J.K. Levie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 태평양 전쟁으로 병원이 폐쇄되었다 1951년 재개원 되었고 치과진료 역시 치과 의사 D.H. Nieuwsma 선교사 한국에 파견오면서 1963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처럼 광주 기독병원 치과는 전라도에서 근대치의학의 효시이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곳이다.

닥터 뉴스마는 광주 기독병원에 부임하면서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설하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무의촌 진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일년에 1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특히 닥터 뉴스마는 2년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외국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치과 의사 면허(치과 의사 유수만, 면허번호 1299)를 취득하였다(그림23).

닥터 뉴스마의 또 다른 업적으로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과재료를 강의하였다(참32). 또한 1977년에는 서원전문대학(현 광주 보건대학)에 치위생과를 개설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고 직접 치과방사선 촬영, 치과재료학, 예방 치의학 등을 가르쳤다. 닥터 뉴스마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영혼까지 웃게하라’에 나온 필자의 모교 설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무등산 기슭 조선대학교에 있는 삿갓 모양의 흰색 건물은 광주의 대표적 표지물로 유명하다. 시멘트 사업으로 성공한 박철웅 씨가 투자해 세운 학교로, 나는 지역 행사에서 가끔 그를 만났고 집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호남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치과대학을 시작할 거란 말을 들었을 때 내게 강의를 요청해 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1976년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인 2월 중순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다. 얼마 후 그가

진료소에 찾아와 두 과목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치과재료학 한 과목을 택했다. 곧 알게 된 사실은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는 한 치과의사와 함께 교수진이 우리 둘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후에 몸담았던 오랄 로버츠 대학의 치과대학 개설을 준비하며 여섯 명의 교수단을 두고 3년간 작업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3. 다산초당 : 전남 강진군

영조가 66세 때 맞은 두 번째 아내인 정순왕후 김씨는 순조 재임 시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정약용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보냈다. 정약용은 이미 정조 시절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성을 짓고,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연두 치료에 관한 의서 ‘마과회통’을 편찬하는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었다.

강진으로 귀향은 정약용은 해남 윤씨 외가의 도움으로 천 여권의 장서와 함께 제공해준 다산초당에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보내면서 50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그림24).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정약용이 생을 마감할 무렵 노인의 유쾌한 일 6가지를 주제로 시를 썼는데 두 번째 주제인 ‘이가 다 빠져 치통이 없는 즐거움’을 일독을 권한다.

老人一快事 노인일쾌사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이란)

齒豁抑其次 치활억기차 (치아 없는 게 또한 그 다음 일이어라)

半落誠可苦 반락성가고 (절반만 빠진다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全空乃得意 전공내득의 (완전히 없어야 마음이 편안하리라)

方其動搖時 방기동요시 (한창 움직여 흔들릴 때에는)

酸痛劇芒刺 산통극망자 (가시로 찌른 듯 매우 시고 아파라)

鍼灸意無靈 침구의무령 (침놓고 뜸질해도 효험은 전혀 없고)

鑽鑿時出淚 찬착시출루 (쑤시다가는 때로 눈물이 났었어라)

如今百不憂 여금백불우 (이제는 걱정거리 전혀 없어)

穩帖終宵睡 온첩종소수 (밤새도록 잠을 편안히 자노라)

但去鯁與骨 단거경여골 (다만 가시와 뼈만 없애면)

魚肉無攸忌 어육무유기 (어육도 꺼릴 것 없이 잘 먹는다)

不唯香細聶 불유탄세섭 (잘게 씹는 것을 삼킬 뿐 아니라)

兼能吸大載 겸능흡대자 (큰 고깃점도 능란히 삼킬 수 있어라)

兩醵久已堅 량악구이견 (위아래 잇몸 이미 굳은 지 오래라)

頗能載柔膩 파능절유니 (제법 고기를 부드럽게 끊을 수 있어라)

不以無齒故 불이무치고 (그래서 치아가 없다고)

悄然絕所嗜 초연절소기 (슬피 먹고픈 것을 끊지는 않는다.)

山雷乃兩動 산뢰내량동 (다만 턱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여)

嗑嗑差可愧 합합차가괴 (씹는 모양이 약간 부끄러울 뿐이로다.)

自今人病名 자금인병명 (이제부터는 사람의 질병 이름)

不滿四百四 불만사백사 (사백 네 가지가 못 되리라)

快哉醫書中 쾌재의서중 (유쾌하여라, 의학도서 중에서)

句去齒痛字 구거치통자 (치통이란 글자는 빼 버려야겠다.)

4.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 : 제주도

2001년에 발간된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의 표지에 조선시대 성종의 치통을 치료했던 의녀 ‘장덕’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그림25). 우리나라 치과의사학의 거목인 이한수 박사가 꿈에서 만난 장덕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참8).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자나 깨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상의 초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원로학자 꿈에서도 나온 의녀 장덕이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에 드디어 장덕이 출연하였다. 대장금의 주인공인 장금은 조선 11대왕인 중종 때 인물이었고 장덕은 9대왕인 성종 때 의녀이다. 두 사람 모두 실존 인물이지만 동시대를 살지는 않았기에 역사적 사실로만 보면 허구이다. 드라마 스토리에서는 제주도로 귀향가서 방황하는 장금에게 의녀 장덕은 멘토가 되어준다. 그 결과 의녀 장덕(김여진 분)은 장금(이영애 분)을 수랏간 나인에서 내의원 최고의 의녀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492년 성종이 귀금에게 국문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의녀 두 명에게 치충제거술을 전수할 것을 명하였으나 2년뒤인 1494년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성종의 사망이후로 귀금이 의술을 전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성종이후의 임금들은 치과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조선의 9번째 임금인 성종의 신하 이육(1438-1498)이 중국 명나라를 다녀와서 쓴 견문인 ‘청파극담’과 성종실록에 치과치료를 할 수 있었던 의녀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기에 그 본문을 옮겨본다.

이육의 ‘청파극담’

내가 젊었을 때 제주에서 ‘가씨’ 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문벌이 좋은 집을 드나들며 치충을 잡아내면 효험이 있었다. 그 후 역시 제주에서 계집종 장덕이 ‘가씨’에게 기술을 배웠다. 치통이나 눈과 코에 병이 있으면 수많은 벌레를 잡아냈다. 그러면 병도 조금씩 나았다. 대낮에 침을 써서 벌레를 잡고 여러 날 동안 죽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치료 광경을 보았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일찍이 대궐에 들어가 이를 치료하여 낮게하자 헤민서에서 여의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이 어린 여의 여러명에게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으나 끝내 전수받은 자가 없었다. 다만, 장덕의 개인종 옥매라는 여자 아이가 그 집에 있었는데 장덕이 죽었지만 옥매가 그 기술을 다 배웠기 때문에 역시 헤민서에 소속시켰다.

성종 266권, 성종 23년, 1492년 6월 14일

부스름을 제거시키는 기술을 가진 귀금이 기술을 숨긴다 하여 불러서 묻다.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의녀(醫女) 장덕(張德)은 치충(齒蟲)을 제거시키고 코와 눈 등 모든 부스름이 난 것도 제거시킬 수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사비(私婢) 귀금(貴今)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면천(免賤)시켜 여의(女醫)를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자 하여 두 여의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귀금이 숨기고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즈음 황을(黃乙)이라는 자가 고독(蠱毒: 뱀 · 지네 · 두꺼비 등의 독으로 만든 독약을 사람에게 몰래 먹여서 배앓이 · 가슴앓이 · 토혈(吐血) · 하혈(下血) · 부종(浮腫) 등의 증세를 일으켜 점차 미쳐거나 실신하여 죽게 만드는 일)을 잘 다스리는데, 숨기고 있다가 세 차례나 형문(刑問)한 다음에야 말하였습니다. 여의 분이(粉伊)는 그 기술을 배웠으나, 황을만은 못하니, 이는 그 기술을 다 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청컨대 귀금을 고문하여 물어보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귀금을 불러서 묻기를,
 “여의 두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다니게 하였는데, 네가 숨기고 전해 주지 아니하니, 반드시 그 이익을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끝까지 숨긴다면 마땅히 고문을 가하면서 국문(鞫問)하겠으니, 다 말하여라.” 하자,

귀금이 말하기를,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 여섯 살이 되어서야 완성하였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익히지 못할 뿐입니다.” 하였다.

맺음말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는 세계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절대 짧지 않고 콘텐츠 역시 풍부하다. 본고에서는 ‘치과’라는 창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치의학과 연관있는 유적과 인물을 들여다보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치의학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문헌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 역사와 유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목적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유럽과 미국 여행에 이어 한국 여행지로 26곳을 선별하였다. 특히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치과의사에게 권장할 만한 북한의 유적 네 군데를 포함하였다. 검은 모루 동굴, 승리산 동굴, 상시바위 그늘, 두루봉 동굴, 조도의 조개무덤에서는 선사시대의 원초적인 역사를, 이해박는 집, 강유구 동상, 정관현을 통해서도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김유근, 이정보, 이규보, 안축, 이색, 정약용의 참기 힘든 치통을 문학적인 시로 승화시키는 시적 재능을 감상할 수 있었고 조선시대 임금과 사대부의 치통을 치료했던 의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한국여행에 소개된 장소들은 유럽이나 미국여행과는 다르게 큰 비용과 긴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치과의사에게 충청남도 아산 어금니 바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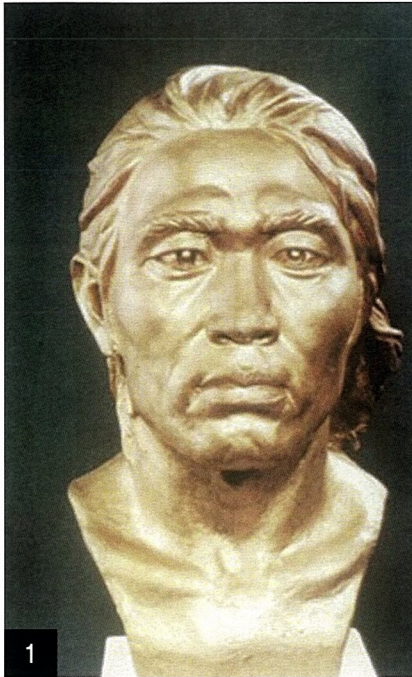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월아산은 동네 뒷산 올라가는 가벼운 느낌으로 해볼 만한 미션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하면서 떠오른 시조 한 수를 읊어본다.

대한민국 오천년을 개원의가 살펴보니
충치풍지 심각한데 구할 치의 한 명 없네.
그 시기로 공간이동 가능하면 좋을 텐데.

참고문헌

1. 권훈(2012),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12; 31(1), 51-76.
2. 권훈(2013),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미국여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13; 32(1), 122-144.
3. “검은모루동굴유적”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2940〉
4. 유홍준 : 나의문화유산답사기 4. 평양의 날은 개었습니다., 2011
5. “승리산동굴유적”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55322〉
6. 기창덕 : 증보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7. “단군릉”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B%A8%EA%B5%B0%EB%A6%89>
8. 이병태 :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9. 이한수 : 치학 박물관, 석암사, 1976
10. 한희숙 : 의녀 팔방미인 조선 여의사, 문학동네, 2012
11. “황산 김유근” <http://blog.daum.net/0113508344/4719841>
12. 가와이 코오조오 :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13. 이주연 :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06
14. 조재오(2013), ‘이해박는 집’ 위치에 관한 소고,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13; 32(1), 92-96.
15. 호레이스 N. 알렌 : 알렌의 조선 체류기,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6
16. “동아일보”, 1959년 11월 26일자 열사의 후예들(4) ; 강우규 의사 말 머누리
17. 강준만, 오두진 :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5
18. “이규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A%B7%9C%EB%B3%B4>
19. “경인일보”, 2015년 1월 16일자 고려문인 이규보의 詩에 투영된 인천
20. “성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4%B1%ED%98%84>
21. “상시바위그늘유적”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2410a〉

22. “중부매일”, 2013년 7월 14일자 30만년전 구석기 시대 동굴생활 밝혀낸 쾌거
23. 백제 시조 온조왕 본기- 3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Y4Sf&articleno=368#
24. 전설따라 삼천리, 아산 어금니 바위를 찾아서 <http://boskim.tistory.com/501>
25. “안축”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C%B6%95>
26. 서정화, 안득용, 민세현 : 근재집, 한국고전번역원, 2014
27. ‘영도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 사업’ 보고서, 2010
28. 김종열(1976), 한국선사시대인 인골의 개인식별; 주로 치아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Vol 14, No 11, 1976년)
29. “MS 유틸란디아”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MS_%EC%9C%A0%ED%8B%80%EB%9E%80%EB%94%94%EC%95%84
30. 한국의 산하; 월아산 https://www.koreasanha.net/san/wola_jinju.htm
31. 최하림 : 김현승 시가 있는 명상노우트, 일월서각, 1987
32. 뉴스만 : 영혼까지 웃게하라, 흥성사, 2008



1

1. 승리산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사람
화석을 복원한 승리산인
2. 1994년 10월 11일 평양 근교의
강동군 대박산 기슭에 개건된 단군릉
준공 기념우표
3. 김홍도 : 구룡폭(1745년)
4. 김홍도 : 늙은 사자(노예흔기)
5. 최북 : 금강총도
6. 허련 : 산거도
7. 금강산 연적
8. 김유근의 집 백련사 터 표지석
9. 이해박는 집
10. 제중원 터 표지석
11. 이정보 초상화



2



3



4



5



6



9



11



7

백련사터 白蓮社址

백련사는 조선말 시(詩), 서(書), 화(畫) 삼절(三絶)로 이름났던 김유근(1785~1840)의 집이다. 그는 대사헌, 예조판서, 병조판서, 판돈녕부사에게 올랐던 당대의 세도가였다. 김유근은 이곳에 집을 마련한 후에 집 뒤에 있는 산봉우리가 백련봉인 것을 감안하여 백련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Site of Baengnyeonsa

Baengnyeonsa was the house of Kim Yugeun (1785~1840), a famous poet, calligrapher, and painter of the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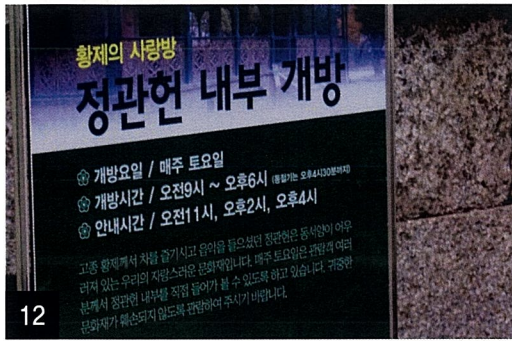
8

제중원 터

濟衆院址

제중원은 1885(고종 22)년 앨런(Allen)의 배의에 따라 동리교입동상사부아문 산하에 설립된 자선적 병원이다. 처음에는 관배원(館배院)으로 이름 붙였다가 취소하고 제중원으로 하였다. 2년 뒤에 구리역(郊里驛)로 옮겼다. 제중원 건물은 홍영식(洪榮植)의 집이었다.

10



12



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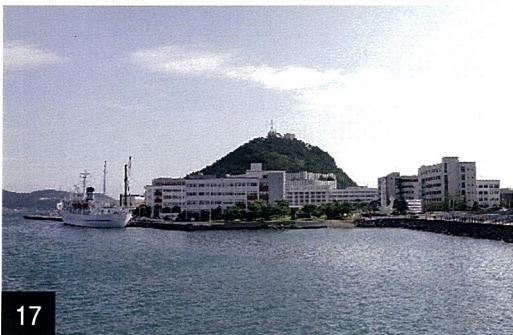
15



1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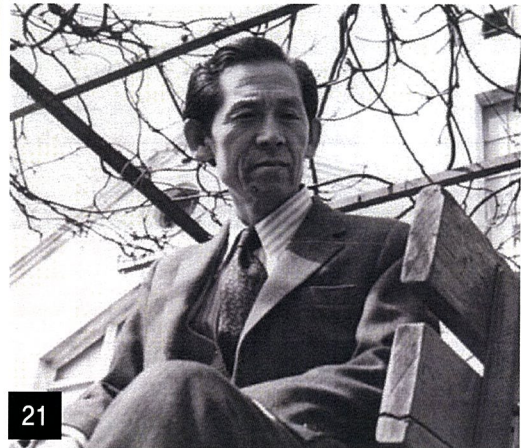


17

12. 정관현
13. 이규보
14. 충남 단양 상시 바위그늘 유적
15. 충북 두루봉 동굴 유적과 흥수아이가 전시되어 있는
충북대학교 박물관
16. 충남 아산 어글니 바위
17. 한국 해양대학교가 있는 부산 영도구 아치섬(조도)
18. 유들란디아 병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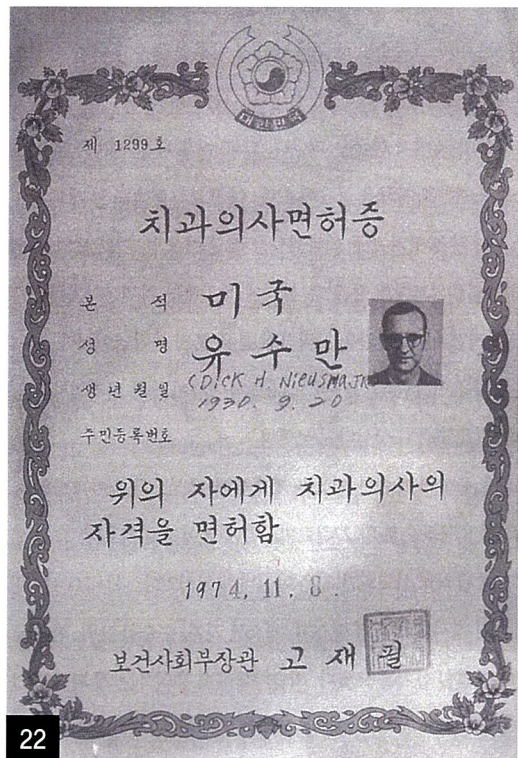
1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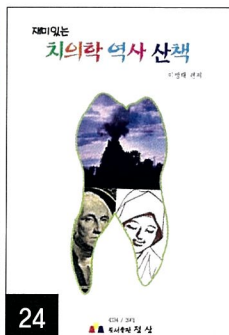
20



22



23



24

19. 이색

20. 경남 진주 월아산

21. 다형(茶兄) 김현승 시인

22. 유수만(Dr. Nieusma) 치과의사 면허증

23. 전남 강진군 다산초당

24. 의녀 장덕의 상상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 표지

18세기 피에르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The Professionalism and Enlightenment
of Pierre Fauchard, a scholar of 18th century

이주연

Lee, Jue Yeon

- | | |
|---------------------------------|---------------------|
| I. 서론 | (1) 치의학 기초와 예방 |
| II. 본론 | (2) 보존학 |
| 1. 18세기 프랑스 | (3) 보철학 |
| 1) 정치, 경제, 사회구성의 변화 | (4) 외과학 |
| 2) 외과학의 발전을 통한 치의학의 독립 | (5) 치주학 |
| 3) 과학발전과 계몽주의 | (6) 교정학 |
| 2. <치과의사>에 나타난 전문가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 | 2) 치과의사의 전문가주의 |
| 1) 근대 치의학문의 독립 | 3) 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
| | III. 결론 |

18세기 피에르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세브란스치과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 이주연

The Professionalism and Enlightenment of Pierre Fauchard, a scholar of 18th century

Severance Dental Clinic

Jue-Yeon Lee, D.D.S, M.S.D, Ph D.

This literature considers Pierre Fauchard's exploits under historical context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surgery during 18th century in France. < Le Chirurgien Dentiste, ou Traite des dents>, a vast collection of the former and contemporary dental knowledge, technologies, and skills, established Modern Dentistry. To emphasize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treatment and actions involving it, Fauchard replaces the title 'dental expert' with 'stomatologist, or Le Chirurgien Dentiste' As professionalism tried t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by sharing dent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it had become a model for the dentists. Moreover, the professionalism has been accepted as an important value throughout the manufacture crafts era and the modern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Also the principles of liberty, equality, and tolerance founded during enlightenment movement, which is based on empirical positivism and rational reason, has become the legal basis of modern nations.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or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equality' by 'tolerance for the public benefit', Korean dentists need develop professionalism.

Key words : Enlightenment, Pierre Fauchard, Professionalism

I. 서론

21세기 한국의 치과계는 정부의 치과 의료 복지강화와 영리화 추진 정책, 누적된 치과의사 공급과잉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과의사의 대의(大義)인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가 시장원리에 따른 무한 경쟁이나 법적 공방, 여론에 의해 추락할 위험을 피하고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가 18세기에 '근대 치의학문의 독립'과 '전문가주의'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던 동력을 크게 시대적 배경과 그의 저서인 <치과의사, 치의학 개론 Le Chirurgien Dentiste, ou Traite des dents>¹⁾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어떻게 '치의학의 독립'과 '근대성'이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봉건제적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로 이행되는 시대변화를 배경으로 외과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와의 연관에 주목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치의학 이론과 임상실제를 다룬 <치과의사>에서는 당대 치의학의 특징과 한계, 후대에 끼친 영향을 '전문가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에서 탈근대로 전환되는 오늘날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가 끼치는 영향과 봉착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18세기 프랑스

1) 정치, 경제, 사회구성의 변화

르네상스 이후 서유럽의 절대왕정은 종교개혁과 중상주의의 승리가 정치로 연결된 것이었다. 가톨릭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패권이 기울면서,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독일의 절대왕조가 강화되었다. 특히 피에르 포샤르(1678-1761)가 태어난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72년간 절대군주로 집권(1643-1715)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이루었다. 최초로 국가가 육해군 징병과 상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근대적 의미의 군대조직을 갖추고 대외 침략전쟁을 수행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국왕이 제반 행정체계를 직접 장악하고, 성직자(제1계급), 귀족(제2계급)들은 베르사유 궁전의 사치스런 생활에 탐닉하게 하여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반면 화폐 중심의 상공업을 육성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하급귀족이나 시민계층에서 관리를 채용하였다. 상인 출신으로 재무와 해군,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베르(1619-1683)는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매뉴팩처(가내 또는 공장제 수공업)를 발달시키는 한편, 해군학교와 함선을 정비하고, 프랑스에서 예술과 철학, 과학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했다. 이에 '금석학 및 문학아카데미(1663)',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소속된 '왕립과학아카데미(1666)', '왕립건축아카데미(1671)'가 창설되고, 회원들에게 연금이 부여되었다. 로코코와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궁정과 파리의 살롱 및 대중문화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불란서어가 국제어로 통용되었다.²⁾ 이 과정에서 새로운 중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조아(bourgeoisie)들이 궁정과 파리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하층 농민과 달리 재산과 학식을 꾸준히 상승시켜온 은행가와 법률가, 의사, 상인, 수공업자, 문예사상가들이었다. 이들은 궁정귀족이나 도시민들을 상대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치 참여를 열망하고 있었다. 18세기의 서열화 된 의학계에서 치의학의 독립과 발전을 가져온 커다란 흐름은 전쟁터에서 발전된 외과학에서 유래되었다..

2) 외과학의 발전을 통한 치의학의 독립

중세 수도원에서 외과수술을 금지한 이후 유럽의 의료계는 서열화되어 있었다. 파리대학 의학부는 1271년부터 교수단에 속해있는 내과의사를 상층으로, 외과의사, 약사 순으로 3분화되어 있었다. 최하층은 이발외과의(barber surgeon)로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길드 조직에서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장인이었다. 긴 예복을 입은 외과의사들은 1533년 이래로 생캄학원(Collège de St. Ceôme)에서 교육을 받아 대학교수와 같은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했으나,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과의사들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외과의사들은 이발외과의들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발외과의들의 의학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격상한 것은 유럽 각국의 패권 다툼과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였다.

이발외과의에 대한 수요는 전쟁터와 항해 중인 배에서 제일 많았다. 참전 군의관과 배의 선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외과의사의 정체성은 주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전했다. 이발외과의들의 수련의 많은 부분은 군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수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장교들에게 면도까지 해 주어야 하는 신분이었다.

16세기 프랑스의 앙브루와즈 파레(Ambroise Paré, 1510-1590)역시 이발외과의로 군의관으로 참전(1536)했다. 이탈리아 전에서 총상을 꿰는 기름으로 지지는 방법이 아닌 연고를 제조하여 처방하였고, 혈관을 묶어서 지혈하는 법을 발견했다. 파리대학(1545-)에서 연구한 뒤 국왕의 수석외과책임자(1552-1563)를 지냈다. 외과학, 산과학, 해부학 및 치과치료에서 다양한 기구 개발과 술식을 제시하였고, <외과학 5편>등의 저서를 남겼다.

파레와 같은 이발외과의들이 외과학을 발전시켰음에도 외과의사와 이발외과의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루이 14세는 그 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1655년 칙령으로 모든 외과의들이 단일 조합에 가입하게 했다. 단일 조합의 지위는 여전히 낮았지만 장점도 있었다. 외과의사들은 이발외과의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활용하게 되고, 이발외과의들은 외과의사들과 연합함으로써 신분 격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외과의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은 1686년에 루이 14세의 치루 수술이 성공하는 사건을 통해서였다.

루이14세는 변비를 심하게 앓아 항상 연하제를 쓰고, 관장도 연간 212회 정도나 해야 했다. 결국 치루(anal fistula)가 생겨서 배변 시 통증이 심하고 고름이나 피가 나와 정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왕의 치루 치료는 제일 먼저 왕실 내과의사가 했다. 하지만 내과의사가 제공한 모든 연고와 텅그제가 효용이 없었다. 절망한 루이14세는 왕실 외과의사인 샤를 프라소와 펠릭스(C. F. Felix)에게 수술을 의뢰하였다. 펠릭스(Felix)는 왕을 수술하기 전에 하층 계급의 치루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연습을

하였다. 하지만 실패가 많았고, 사망자도 있었다. 하지만 1686년 펠릭스는 왕의 치루 수술에 성공했다. 왕은 감사의 표시로 펠릭스(Felix)를 귀족으로 봉하였고, 땅을 하사하고, 당시 왕실 내과의사들이 받는 사례금의 3배에 해당하는 15,000 루아도르(금화 30만 프랑)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펠릭스 자신 뿐 아니라 프랑스 외과의사들의 위상을 격상시켰고, 내과와 외과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³⁾

외과의사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법에 의해 도시와 길드를 규제할 수 있도록 외과 임상 규제 입법 운동을 주도했다. 외과의사들 중 일부는 치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치아를 주로 다루는 직종은 치과숙련가(dental expert)였다. 이들은 눈, 항문 등 몸의 일부만을 주로 다루는 이발외과의 계층으로 남아 있었다. 베를린 정부 칙령(1685)보다는 늦었지만 파리 칙령(1699)에는 '탈장 수술자, 눈의사, 치과숙련가(dental expert), 접골사들은 수석왕실외과의, 보좌관, 네 명의 관리자, 의과대학 학장 앞에서 이론과 실기시험 치러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 결과 파리에서 치과분야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파리 칙령에도 '참견꾼, 사기꾼, 돌팔이(quackery) 집단은 의료계에 속하지 않고, 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1743년까지도 파리 의과대학은 이발사들의 진료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외과의사들은 자신들을 이발외과의(barber surgeon)와 구별 짓고자, 공인외과의사(master surgeon), 선서외과의사(Sworn surgeon)등의 자격증이나 계약증을 발급해 갖기도 했다. 학술적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과의사들은 르네상스 이후 발전한 생리학과 현미경 관찰, 사체해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임상에 적용했다. 그 결과 파리의 생콤학원의 외과의사들은 앙드리(Deacon Andry)의 주도하에 내과교수단의 면전에서 강의실 문을 닫고 독립을 선언(1725)할 정도로 외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반면 프랑스의 내과의사들은 사변적인 논쟁에 빠져,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내과의사들은 몸과 손을 사용하는 외과나 산부인과학, 실험실의 작업에 대해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대학의 교육도 아랍의 저자들이 고대 그리스 의학을 번역한 책에 의존하였고, 소변검사가 성행하였다. 일부 계몽사상을 가지거나 왕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은 경험이나 의식불명 등의 이상한 증상이나 유행병의 원인을 신이나 악마가 아닌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의 이상, 현미경에서 관찰한 미생물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한편 왕실외과주치의였던 조르주 마레샬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루이15세의 승인을 받아 1731년 '왕립 외과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1750년에는 외과 실습학교도 설립되었다. 학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왕립외과아카데미는 1776년 '왕립내과의사회'와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외과학의 발전 속에 18세기 초반 치의학 분야는 외과학과 산업기술 발전에 힘입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포샤르의 <치과의사>가 3판까지 출간된 파리는 근대 치의학 발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부상하였다. 포샤르는 '어디에서나 치아와 구강분야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만, 파리는 구강을 보기 좋게 만들고 치아결손을 메우고, 난치병을 낫게 하는데 최고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있다. 외국의 왕자들, 지도자들, 지방 관료들이 젊은 외과의사를 파리로 보내 이 분야를 배우게 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라며 파리의 치의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발치사(tooth drawer)'를 대체할 치과의사(외과치과의, Le Chirurgien Dentiste, stomatologist)가 새로운 직업인으로 탄생하였다.

산과(産科) 역시 분만 겸자의 발명을 계기로 외과에서 독립하여, 파리에서 최초의 산과학 교육시설이 설립(1720)되었다. 영국의 윌리엄 스멜리(william Smellie, 1697-1763)는 파리 유학 후 런던에서 ‘남자조산원’으로 개업(1740)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기반을 닦았다. 소아과의 경우 런던에서 암스트롱이 소아과 병원을 창립(1769)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성 빈센트 드 폴(St, Vincent de paul)의 아동복지나, 앙드레(Andr?)의 ‘아동의 불구 예방과 교정’에 관한 책 출간이 기폭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경험적이며 대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임상의로 분야에서 점차 성과를 높여 나갔다.

3) 과학발전과 계몽주의

17, 18세기 서유럽의 자연과학과 철학, 사회와 산업의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17세기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과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경험주의가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합리주의와 종합된 것이었다. 외과개원의였던 존 로크는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과의 친교를 통해서 자연과학의 수리적 실험 방법을 받아들였다. 또, 애슐리 경의 수술 성공을 계기로 존 로크는 정치에 참여해 정부가 시민들의 자연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힘썼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론적 실증주의는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가 혈액순환을 발견해 생리학을 발전시키고, 레벤후크(Antony van Leewenhoek, 1632-1723)가 현미경을 통해 상아세관과 치태미생물을 밝힌 논문을 발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학에 있어서는 시드넘(Thomas Sydenham, 1624-1689)의 임상의학과 존 헌터(John Hunter, 1728-1793)의 실험의학,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의 천연두에 대한 백신 개발로 발전하였다. 산업적으로는 아마추어 과학자들의 과학기술을 매뉴팩처 기계제조업과 발명에 응용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대장장이였던 뉴커먼이 개발한 증기기관이 학자 출신 기술자였던 와트(1736-1819)에 의해 실용적인 증기기관으로 발전하면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5세(1715-1774)집권기에 볼테르(Voltaire, 1694-1778)의 영국 망명(1726-1727)을 통해 로크의 경험론과 뉴턴의 물리학과 인본적인 정치철학이 받아들여졌다. 절대군주의 통제가 강했던 프랑스에서는 과학 지식과 근대적 이성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계몽주의가 발전하였다. 이어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 달랑베르(Jean Le Rond D'Alembert, 1717-1783),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볼테르와 함께 〈백과전서파〉로 활동하였다.

〈백과전서〉 ‘과학, 예술, 기술의 합리적 사전’이라는 부제로 출판된 이 책들(1751-1772)발행)은 기존의 모든 지식들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집대성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통용되도록 한 협동적인 작업이었다. 고위 관리들에게 예산 지원을 받아 편찬되어야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전제군주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 또 자연과학과 의학, 수공업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에 대해 낙관적이고 실용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출판업과 우편업무가 개선되어 과학문헌이 회람될 수 있었다.

귀족뿐 아니라 상인과 전문가들이 책을 읽었고, 과학 연구를 후원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이러한 과학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서 프랑스 사회도 결국 자본주의 시민사회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지식을 교육 받은 시민들이 낡은 사고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공익에 기여하도록 교양했다. 하지만 <백과전서>의 출간은 순조롭지 못했다. 1752년에 나온 제2권은 발행과 배포가 정지되었고, 점차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았다.⁴⁾ 그 동안 루이 15세는 잇따른 전쟁에서 패배하여 국고를 탕진하였다. 그리고도 재정을 개선하지 못하여, 시민이하의 계층의 세금이 과중해졌다. 그러자 보다 광범위한 시민계층이 부르봉 왕조의 절대군주제를 비판하고 계몽주의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봉건제에서 이탈한 보다 많은 계층들이 사유재산을 보장 받아야, 자유롭게 상품과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18세기 말엽 인간의 자유와 평등, 관용을 보장할 정치체제를 목표로 한 계몽주의는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확립시켰다. 루이 16세(1774-1792) 역시 높은 국가부채를 시민계층에게 떠넘기려 했다. 이를 위해 신분회를 소집한 것이 프랑스혁명(1789-1794)의 도화선이 되어 부르봉 절대왕정은 끝을 맺는다.

2. <치과의사>에 나타난 전문가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

피에르 포샤르의 생애(1678-1761)는 전술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Brittany)반도에서 태어난 포샤르는 15세에 해군에 입대해 외과견습생으로 복무(1693-1696)했다. 당시 포샤르는 외과장교 포트르레(Alexandre Poteleret)가 괴혈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익혔다. 괴혈병에 레몬과 오렌지가 유효하다는 것은 16세기 초 민간요법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도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 함대에서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대에서 다수의 구강질환을 치료한 포샤르는 이후에도 잇몸에 생긴 괴혈병을 계피 보리차와 비타민, 허브액, 방향제를 조제해 치료했다. 제대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포샤르는 앙제(Anger)라는 도시에서 치과의사로 개업(1696-, 18세)했다. 그 후 20여 년간 진료일지를 쓰면서 수익성 좋은 치과의사로 살았다.

루이 15세 집권 초기 포샤르는 낭트, 렌, 투르 등으로 출장 진료(1716-1718)도 하고, 많은 지도급 의사들과 지식을 나누며 명성을 얻어 41세에 파리로 입성(1719)했다.

당시 파리에 있는 치과숙련가(dental expert)들 중 학식이 높은 의사는 소수고, 대부분 상류층 고객들의 외모치장이나, 보철, 치통제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부분 자신의 의료지식과 기술은 비밀로 하고 외부 유출을 막아서 진료업무상의 무능함이 양산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비밀주의나 전매처방은 중세 비밀주의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치과숙련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명망 있는 의사들은 비법공개를 꺼렸다.

파리의 코메디 프랑세즈(Comedie Francaise, 프랑스 국립극장) 거리에 개업한 포샤르는 견습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치의학 교과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구강질환이나 해부학과 관련된 3가지 대표적인 저작들조차 치과의사가 시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기에는 피상적인

수준이었다. 위르뱅 에마르(Urbain Hemard)의 <치아의 정확한 해부학, 그 질병의 본성과 특징에 대한 연구, 1582>는 그리스 의학이론을 사체해부를 통해 검증하는 책이었다. 여러 명의 조산아를 해부해서, ‘유치는 태아가 섭취한 영양분에 의해 유치의 싹이 생겨 형성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정상 신생아에서는 ‘영구치가 우유나 강한 음식을 먹어서 생긴다’는 히포크라테스의 견해는 틀렸고, ‘책이 아니라 자기 눈을 믿어야 한다’는 갈렌의 진술이 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몽펠리에 대학교수면서 외과의사인 리비에르(Riviere, 1589-1655)는 치통 치료에 귀에 약물증기를 쐬어주는 중세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파리의과대학 해부학과 외과학 교수이며 루이14세의 왕실치과의사인 디오니스(Pierre Dionis -1718)역시 황산을 충치에 넣어 소작시키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베르사이유 궁전에 모인 귀족 중 노인들은 ‘의치 사용이 탄로 날까 입도 열지 못할’ 정도로 보철물의 유지력이 낮았다. 포샤르는 에마르와 리비에르, 디오니스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자신의 책에 담았다.

포샤르는 학술과 임상능력에 대한 평판이 좋아 귀족이나 부유한 부르조아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명한 의사 및 치과전문가들과도 교류가 많았다. 그는 여러 의사와 치과의사들과 인터뷰하고 의학 서적들을 모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강전문가로서 정통한 처치법에 관해 썼다.⁵⁾ 5년 만에 책을 완성(1723)하고 최고의 내과 및 외과의사, 왕실주치의들의 검토를 거쳐 1728년(50세)에 출판했다.⁶⁾ 이 책은 인근 유럽국가에도 빠르게 퍼져 1733년에 독일어 번역판이 나왔다. 포샤르는 초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임상결과와 확실히 일치하는 것들을(evidenced-based clinical dental medicine)수룩하기 위하여 증보판(1746, 68세)을 냈다. 이듬해에는 파리의 변화가인 포부르 생제르맹(Faubourg Saint-Germain) 코르들리에 거리(Rue De Cordeliers)에 새로 생긴 외과대학과 생콤의 반원형 계단식 강의실 맞은편으로 치과를 옮겨 환자진료를 계속했고, 83세(1761)에 근처 집에서 작고했다.

사망 당시인 1761년 파리치과의료인(Dentistes) 명부를 보면 외과의사 중 구강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3인을 ‘외과의 대가, Maistres en chirurgie’로 기록하고 있다. 하단에 30인의 치과숙련가(Dental Expert) 명단이 있는데, 그 곳에 피에르 포샤르가 기록되어 있다. 액텀(Walter Hoffmann-Axthelm)은 포샤르가 결국 ‘외과의 대가’가 되지 못해 <치과의사, Le Chirurgien Dentiste>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로저킹(Roger King)은 <치과의사>는 포샤르가 자신을 ‘치과숙련가’나 ‘외과의 대가’와 구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직업명으로 보았다.⁷⁾

이글에서는 포샤르가 왜 평생에 걸쳐 <치과의사, Le Chirurgien Dentiste>라는 직업 명칭을 제목으로 한 책을 썼고, 그 가치는 무엇이며, 당대 계몽주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근대 치의학문의 독립

<치과의사>가 구강질환의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다뤄, 당대 외과학의 변방에서 장인들의 수공업으로 폄하되던 치의학문을 치유적인 의술로 독립시켰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이 과연 어느 정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게다가 계몽주의와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근대성과 과학성, 계몽주의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백과사전식이다. 치의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다. 고대 히포크라테스와 갈렌 의학과 중세 이슬람의 아비센나 의학, 파레의 외과학을 위시하여 당대 유럽의 관련 논문이나 서적뿐 아니라 민간요법서, 당대 이발외과의나 발치사, 장인들의 기술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⁸⁾ 전 시대와 다양한 계층의 학설, 임상예, 기술을 총망라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총체적이다. 또 18세기 초의 현실과 저자인 포샤르의 견해에 비추어, 기존 학설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유능한 인물들의 시술에서 깨우침이 확산'되고, '아이디어라도 기록으로 전수되어야 더 새로운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성공의 모범을 보이고자'한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독자는 치과숙련가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치과의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의사로서 필요한 정규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실하게 교습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진지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엔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 경험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독려하고 있다. 이것은 자율적인 주체가 학습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역량중심의 교육'과도 일치한다. 일반 대중도 치아관리 및 치료법을 알아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1권 질병목록과 임상증례를 분석해보자. '103가지 구강질환의 분류'는 크게 내적 및 외적 원인으로 나눠 정리했다. 내적인 것은 전신성과 체액성, 외적인 것은 열냉작용과 기계적인 것이다. 치의학 기초와 임상과목 분류도 다음과 같이 현대와 유사하다.

(1) 치의학 기초와 예방

구강해부에서는 유치의 치근이 있음을 규명하는 등 세밀한 관찰에 근거하였다.

유치 맹출시 통증과 예후, 치료는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에 머문 한계가 있다. 부은 치은을 십자로 절개한 것은 근대적이다.

삼차신경통과 연관통, 근육경직, 근막성 동통에 대해 현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치아우식의 원인이 설탕과 점성식품이다.

청동을 금박으로 도금하는 거울제작공, 배관공, 광부의 수은으로 인한 직업병을 인지했다.

양치는 거친 칫솔보다 해면에 적절한 분말의 치약과 가글액을 사용하도록 했다.

병사의 송곳니를 빼 중위에게 타가치아를 이식하면서 감염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는 못했다.

치아재식을 한 후 생리적 압력을 가하면 치주인대부착이 더 잘 된다고 보았다.

영구치나 과잉치의 치배가 뒤늦게 봉출한 것을 재생으로 보는 오류가 있다.

(2) 보존학

치아우식의 원인을 고대의 치아벌레가 아니라 체액의 불균형이라 생각하였다.

안드리(Andry, 파리 의과대학장, 기생충학의 시조)나 리비에르(몽펠리에 내과의사)와 달리 포샤르는 현미경을 통해 충치벌레는 발견하지 못했다.

법랑질 형성부전증(enamel hypoplasia)을 법랑질 표면의 부식으로 파악하고, 유백색상아질, 과상아질 형성부전증의 원인을 구루병(rickets)으로 파악한 오류가 있다.

충치는 송곳모양의 기구로 제거한 후 납이나 주석, 금으로 충전할 것을 권장했다.

통증이 있는 치아에 구멍을 뚫고 줄(file)로 와동을 확대한 뒤 정향유(cloves oil)나 계피로 조절해보고, 안 되면 소작하거나 근관 청소를 했다. 근관충전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동요치는 금선에 썬기를 박아 고정하는 시술을 했다.

(3) 보철학

합정 치관(dowel crown)을 사용했고, 치아가 결손된 곳에 다른 사람의 치아, 해마의 송곳니, 코끼리의 상아를 조각해 실로 묶거나 금, 은 부목에 못을 박아 로마시대 이후 첫 고정성 브릿지 제작하였다.

하악 의치에 생선뼈로 만든 용수철을 달아 상악 의치를 고정시키기도 했는데, 인공치 첨두(cusp)나 수직고경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

최초로 무기물질을 인공치아로 사용하고 광택을 내서 기존치아와 조화롭게 만들었다.

파레처럼 금속전색자를 스펀지로 고정시키지 않고, 시계공이 수공업품으로 제작한 두 날개금속판으로 발전시킨 구개전색자(obturator)를 만들었다.

(4) 외과학

발치용 pelican's forcep 창안하였다. 임신부는 2기에만 발치를 허용했다.

숨문치덮개(dressing)의 나쁜 영향을 관찰해 가급적 덮개 사용을 자제하였다.

충치가 원인인 낭종(cyst)은 발치 후 악골까지 절개해서 4일간 열어놓고, 25일간 소독했다. 종양 제거 부위에는 파레처럼 장미꽃과 계란 노른자, 살균액을 거즈에 묻혀 대 주었다.

(5) 치주학

잇몸질환의 원인은 전신적 원인과 국소적 원인이 있으며, 치석은 치은팽창의 원인이다.

최초로 변연성치주염(marginal periodontitis)과 치주농루증(alveolar fistular)에 관해 해부학적 병인과 치료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과잉치은과 치은종(epulis)은 절제하고, 치은농양(parulis)은 깊숙한 곳을 초기에 절개했다. 심한 경우 발치사나 돌팔이에게 맡기지 말고 내과나 외과의사에게 의논할 것을 권고하였다.

(6) 교정학

치아를 펠리컨으로 제자리로 당겨 금선을 명주실로 조여 고정시키는 즉석치열교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보다 배열을 바로 잡기 쉽다는 것을 인지했다.

〈치과의사, 치아개론 제2권〉에서는 치의학 전문 분야별로 기구를 사용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포샤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상 치료 기구는 해부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에 따라 직접 개량하거나 발명해서 사용했다. 귀금속공예가, 시계수리공, 이발사에게 직접 필요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18세기 초반 매뉴팩처 수공업 기술을 전문적인 의료기구 개발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다. 그 결과 다른 외과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구나 손기술보다 더 구강구조에 적합하고 정교하며, 기계적 정밀성까지 갖춘 독립적인 치과치료기구와 술식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장 팔목할 점은 대다수의 발치사들은 환자를 바닥에 앉게 했으나, 포샤르는 '머리받침과 팔걸이가 있는 안락의자에 앉히고, 환자의 체위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시술하도록' 했다. 그것이 환자의 입안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포샤르가 발명하고 소개한 진료기구와 진료의사의 기본 형태는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된 현대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치과의사>는 임상분과에 있어서는 원숙한 경험과 세밀한 관찰에 근거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추론과 유용한 결론에 도달한 부분이 상당하다. 하지만 내과분야에 있어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에 근거해 병인과 치료법을 설명하는 증세적인 의술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프랑스 내과학이 지니고 있던 한계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해부학과 일부 생리학적 지식과 초보적인 현미경 검사를 제외하고는 방사선촬영이나 생이화학적 보조검사가 불가능했던 시대였다. 따라서 임상적인 경험과학으로서의 치의학을 체계화하고 진료기구와 술식을 진보시켰으나, 현대 병리학이나 유전학, 영상의학, 생이화학적 발전에 걸맞은 과학적 추론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 치과의사의 전문가주의

포샤르가 주창한 치과의사는 유럽에서 형성된 구강의사(somatologist)로서 외과 분야를 주 전공으로 하는 <치과의사, Le Chirurgien Dentiste>이다. 법적으로는 프랑스 왕립 외과의사의 감독 아래 시험을 통과해 시술을 허용 받는 치과숙련가(dental expert)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분야에만 평생 헌신하며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직업정신을 발휘할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업집단을 상정한 명칭이다. <치과의사>에 표출된 전문가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더 이상 구강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외과의사나 장인들에게 치과의료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자율성을 표출하고 있다.

18세기 말까지 프랑스 인구의 2%만이 귀족과 성직자였고, 80%이상이 가난한 농민이었다. 따라서 인구의 대부분은 치통이 심할 때 발치사(toothdrawer)나 이발사, 돌팔이 의사에게 가서 이를 빼거나, 약장수를 찾아갔다. 부농이나 상인, 도시 중산층들이 외과의사나 치과숙련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외과의사가 구강분야를 중요히 여기고 세심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적어 오진도 많고 발전이 더뎠다. 포샤르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외과학의 다른 분야보다 덜 유용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외과의사들에 의해 덜 중요한 직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들의 오류와 기만을 공중에 알려 바로잡는 것이 전문직의 명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표명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외과의사보다는 발치사와의 영역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했다. 발치사들의 경우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료로, 환자들을 위험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치과의사가 주도하는 정규 교육과정과 시험제도의 개선, 평생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포샤르는 '치의학 분야만 전문으로 연구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치과의사가 시험위원에 포함된다면 응시자들이 오랫동안 임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해 그 해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못한다. 포샤르는 여러 견습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고, 처남 뒤슈맹(Duchemin)을 견습생으로 가르쳐서 동업하다가 자신이 죽을 때 치과를 물려주기도 하였다. <치과의사>에는 경험에 부족한 치과의사나 견습생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서술이 많다. 특히 돌팔이 치과의사가 치아를 상악동에 밀어 넣고, 환자에게 삼켰다고 거짓말 한 것이 파리의 내과 및 외과의사들의 협진을 통해 밝혀진 사례를 사기꾼과 같은 행위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포샤르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칭송받을 일이다. 무엇이든지 충분히 배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는 자세로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 새로운 수술법을 고안하라’고 제안하였다. 평생 치과견습생을 교육할 책을 썼던 포샤르의 삶은 19세기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가면허시험제도를 마련하고, 윤리강령을 마련하는데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셋째, 영리보다는 윤리를 우선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치과의사이다. 당시 떠돌이 발치사는 치석 제거와 미백을 명목으로 강산을 조제약을 팔아 잇몸을 상하게 했다. 치통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도 많았다. 특허법의 발달과 신문광고로 ‘전매처방’이라는 약광고도 성행했다. ‘말과 십자가 징표와 접촉과 부적 등에 의한 치료를 장담’하는 사기꾼도 많았다. 포샤르는 ‘교회도 이러한 행위를 미신이나 사악한 속임수라고 금지한다’며 기도나 기적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계몽주의자적인 면모를 나타냈다. 주석이나 납으로 충전한 위에 색소나 금을 얇게 입혀 눈속임하는 동료 치과의사들의 속임수도 대중에게 공개했다. 같은 시기에 외과의사 위대한 토머스(Le Grand Thomas 1729-1757)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파리의 폰 네프(Pont Neuf)에서 무료로 즉석공연을 하면서 이를 매우 빠르게 뽑는 시연을 해 유명세를 얻고 돈을 벌었다. 돌팔이가 증가하는 것은 구강분야 뿐 전체적인 추세였다. 이러한 돌팔이에 대한 규제는 정규 의사들의 직업적 규범과 결속력에 따라 결정되었다.⁹⁾ 포샤르는 돌팔이와 사기꾼, 미신, 알팍한 상술을 견제하고자 한 치과의사였다.

넷째, 전문가주의의 핵심은 전문지식과 기술,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다. 포샤르가 ‘개인적 이익에는 손해이나 자신의 정확한 치료법을 모두 공개한 행동’은 치과계 뿐 아니라 기존 의료계의 관행을 깨는 개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치과의사 집단이 근대의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 사회로 옮겨가고 있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 교환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인적 성격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품의 표준화된 가치교환에 의존하게 된다. 치과의료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와 환자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 상품교환이 이루어진다. 치과의사 개개인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일반 대중은 신뢰를 갖고 치과의사를 찾음으로써 치과의료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포샤르의 지식 공개는 치과의사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지적 생산자들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다. 프랑스의 치과의사들이 점차 지식을 공짜로 교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치과의사> 증보판에 기술되었거나, 포샤르와 협동적으로 소통했던 치과의사들의 행적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르클루즈(Louis Lecluse, -1789?)는 볼테르와 함께 희극배우로도 활동했고(1737-1747) 구강구조를 골, 근육, 맥관, 신경으로 분류한 <구강해부학>을 발간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제 3대구치 탈구기구를 개발하였다. <치과외과학의 진료>에서 유치에 치근이 없다고 한 마르탱(Martin)을 반박하고, ‘유치 치근 내부 체액이 자연적으로 방출되어 치근이 용해된다’고 추정한 뷔농과 포샤르의 이론을 공격하였다. 1772년 파리의 극장을 구입해 가난해진 채 프랑스 혁명 도중에 사망했다.

뷔농(Bunon, 1706-1748)은 <임신한 여성의 치아 질환에 대한 아주 위험한 편견에 관한 개론>(1741)에서 임신여성의 치과치료가 가능하며 눈 이빨(eye teeth, 상악 송곳니)을 빼면 시각에 문제가 생긴다는 잘못된 개념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했다. 이 연구가 '미신과의 결별'이라는데 포샤르도 동의함으로써 계몽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포샤르는 <치과의사>에서 영구치 부식이 홍역, 천연두, 악성열병 때문일 수 있다는 외과의사 장 루이 페티(Jean Louis Petit)의 연구를 인용했다. 이 내용에 고무 받은 뷔농은 구루병, 괴혈병, 홍역, 천연두, 기타 질병으로 죽은 어린 아이들의 미맹출치에 부식이 있다는 것을 사체 해부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 실험은 <왕립외과아카데미가 보는 앞에서 살페트리에르와 생폼 병원에서의 경험과 실증 1746>이라는 증보판으로 편찬되었다.

한편 루이15세의 왕실치과의사였던 부르데(Bourdet)는 <치과전서>(1757)에서 하악전돌과 총생(crowding)해소를 위해 유구치 연속발치술을 시행한 것과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묶은 실로 전치부를 원심방향으로 옮긴 사례를 발표하였다. Key를 개발하고, 최초로 금상치의(Denture with metal base)를 개발하고 의치 상을 치조돌기와 치은에 일치시키고 치은색으로 착색했다. 치은절제술(gingivectomy)도 개발하였다.

박애주의 외과의사에서 치과의사로 전업한 주르탱(Ansime Jourdain)은 상악동 질환을 염증, 낭종, 종양성 변화로 분류하였다. <구강의 질병과 외과수술에 관한 논문 (1761년 상악골, 1765년 하악골)>을 간행하였고, 독일어(1784)와 영어 볼티모어(1849), 필라델피아 (1851)로 번역되었다.

포샤르도 사용한 적이 있는 광물성인공치아(Mineral Teeth)는 두샤투(Alexis Duchateau)가 착상해서 1776년 프랑스 왕립외과학술원에 보고하였다. 이어 파리의 치과의사 새만(Dubois de Chemant)이 <무변화 무취의 의치, 곧 새로운 인공치아의 특징(1788)>을 간행하여 루이 16세로부터 특허권을 받게 되었다. 제작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새만(Dubois de Chemant)의 손을 들어주어 19세기에 도재치아(porcelain teeth)가 나올 때 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포샤르의 추종자들은 포샤르의 <치과의사>를 기반으로 하거나, 반박하는 연구와 실험, 임상기구와 재료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각자 1권 이상의 치의학 서적을 발간하였고, 프랑스에서만 <치과의사>라는 제목으로 10여종의 책이 발간되었다. <치과의사>제 3판은 포샤르가 작고한지 25년 뒤인 1786에 포샤르의 후예들에 의해 발간되었다. 프랑스혁명 발발로 유실되었지만, 200년이 지나 각국 치과의사단체에서는 그의 '전문가주의'를 기리는 행사와 활동, 번역작업을 지속하고 있다.¹⁰⁾

마지막으로 포샤르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공공에 가장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바치는 직업인'이다. 포샤르는 증보판 서문에 '고통과 밤샘을 거쳐 얻은 열매를 모두 이처럼 공개하는 것은 치과의사라는 전문 직종을 수행하려는 이들에게 쓸모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승인서(1728)를 쓴 저명한 의사들도 포샤르처럼 의학 지식을 공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피력하고 있다. 당대 지도급 의사들이 지녔던 의학적 계몽주의가 <백과사전파>(1751-1772)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던 것이다. 그렇다면 포샤르의 전문가주의가 계몽주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치과의사>와 <백과전서>의 출판 의도와 시기, 현재 프랑스 국립면허기구의 기원과 치과의사 윤리강령의 일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포샤르의 〈치과의사〉에 나타난 전문가주의와 〈백과전서〉에 나타난 계몽주의가 지니는 공통점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식에 대한 개념과 지식의 획득 과정에 대한 정의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백과전서〉에서 지식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그것의 기술적 응용’이고, 〈치과의사〉에서도 치의학문을 ‘치의학 이론과 임상 실제’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계몽주의에서 ‘개인은 자신의 자율적이고 비판적 이성으로 지식을 획득’한다. 포샤르는 치의학이 외과학 분야를 뛰어넘고 있음에도 그 분야를 책임질 전문직업인이 없어 대중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자율적인 치과의사였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교육이념이었던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자율적인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현대 치의학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둘째, 둘 다 기존의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집대성하여 대중과 미래 세대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였다. 〈백과전서〉파들은 부르조아 계층의 지식 공유를 통해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전제군주제도를 변화시키는 시민의식이 향상되기를 희망했다. 포샤르는 치과의사들과 대중에게 자신의 모든 치의학 지식과 비법을 공개해 치과의사들은 올바른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대중들도 잘못된 미신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다.

셋째, 계몽주의가 ‘지식의 무한한 진보와 보편적 교육이 잘못을 줄이고 인류를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포샤르도 ‘보편적 교육을 위해 오류를 드러내고, 유용한 새로운 연구 보고가 많이 추가되’길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위생이나 모자보건, 정신병에 관한 인식 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피넬(Philippe Pinel, 1745 - 1826)이 파리에서 정신병 환자 요양소의 개혁을 제창하기 시작한 후로 전국에 전문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외과학을 비롯해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의 근대 의학이 발달하게 되자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절대권력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회가 도래하리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후 공방시용(convention)의 결정에 의해 모든 의과대학과 연구소 및 학회 등이 폐지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루소가 아동위생을 강조한 것처럼, 프랑스 국민회의(French National Assembly)는 모자보호령(1893)을 내렸다. 하지만 곧 국민회의는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연합군과 전쟁으로 맞서야 했다. 프랑스 군대에 의사가 부족하게 되자, 푸르크로와(Fourcroy)의 보고서(1794)에 따라 새로운 의과대학인 에콜 드 상떼(Ecole de Sante, 국립위생학교)를 개원하였다. 에콜 드 상떼에서는 외과, 내과, 희귀병 및 난치병 환자를 위한 세 종류의 병원이 운영되었다. 모든 새로운 전문과목이 표방되었고,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았다. 이렇게 하여 에콜 드 상떼 의학교는 19세기 유럽의 병원의학을 주도하게 된다. 파리 국립위생학교의 학생 수는 처음에는 600명이었으나, 수년 후에는 1500명이 되었다.¹¹⁾ 이들은 모두 1820년 프랑스 국립의학아카데미의 소속이 된다. 혁명 후 혼란 속에서도 전술한 것처럼 의학의 각 전문과는 보다 평등한 위치에서 인간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넷째, 계몽주의는 ‘지식을 획득한 인간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포샤르의 전문가주의도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사회적 공익을 추구할 것을 주창한다. 하지만 포샤르의

전문가주의가 백과사전과의 계몽주의와 함께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 올바른 지식과 가치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가치판단이 분리될 수 있고,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배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과사전파의 볼테르는 '관용(톨레랑스)' 정신이 개인과 사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루소와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일부의 관용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파악했다. 루소는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시민사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적인간과 보편이익에 봉사하는 시민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루소는 이들 간의 갈등이 정부의 올바른 법 제정과 교육자 밑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칸트는 이 문제를 개인적 양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만족과 도덕성 사이의 갈등'으로 보아 개인 양심의 자율성에 맡겼다.

루시앵 골드만은 이 문제를 계몽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보았다. 자유민주주의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역시 표방하는 이념과 다르게 자유와 평등, 관용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몰츠는 자유와 평등 중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한 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비윤리적이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때 '사회 정의나 관용'의 법 정신에 의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 골드만은 역시 '어떤 사회에서건 경제가 어려울 때 사적 인간의 이익추구가 공민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¹³⁾고 했다.

V. 결론

이제까지 〈치과의사, 치의학개론〉에 기존의 치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자신의 비법을 공개한 피에르 포샤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았다. 18세기 초 프랑스의 중산계층의 성장과 외과학의 발달 속에 포샤르는 치의학문을 독립시켰고, 근대적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의사를 탄생시켰다. 경험론적 합리론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계몽주의는 지식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전문가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질의 치의학문과 기술의 공유와 교육, 정직하고 충실한 진료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샤르의 전문가주의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치과의사들의 규범이 되고 있다. 3판에 걸친 〈치과의사, 치의학개론〉(1728, 1746, 1786)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협동 작업이었던 〈백과사전〉(1751-1772) 보다 긴 시간에 걸쳐 출판되면서, 치과의사들에게 국한된 전문가주의가 아닌 사회진보와 공익실현에 기여했던 근대적 시대정신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 의료계에는 정부나 의료보험공단, 환자 개개인 뿐 아니라 치과의사 간 소통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는 프랑스의 경우, 공공단체인 프랑스 국립면허기구(Conseil National De L'Ordre Des Meicins)에서 의사와 의사,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조절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윤리강령도 공중보건법 내에 존치시키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의료산업화나 영리 목적으로 전문가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주의는 치과의사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치과의사 집단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에 대한 행동 규범이다. 치과의사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원활해야

전문직의 자율규제와 시대변화에 걸맞은 전문가주의의 발달도 가능해진다.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여하는 ‘전문가주의’를 분별해 낼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경험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피에르 포샤르, 강명신 외 번역, 치과의사(1746),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2. 차하순, 서양사총론 I, 탐구당, 2000; 477
3. Malvin E. Ring, Abrams/Mosby,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1985;145-156
4. 마들렌 피노 저, 이은주 역, 백과전서, 한길사, 1999
5. Lynch CD, O' Sullivan VR, McGillicuddy CT, Pierre Fauchard: the 'Father of Modern Dentistry', British Dental Journal 201: 2006; 779-781
6. The Birth of the Most Important 18th Century Dental Text: Pierre Fauchard's Le Chirurgien Dentist, Andrew I. Spielman, Department of Basic Science and Craniofacial Biology, New York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New York, NY 10010, USA; andrew.spielman@nyu.edu
7. Roger King, The Making of the Dentiste, c. 1650-1760, Ashgate, 1998
8. Walter Hoffmann-Axthelm, History of Dentistry, Quintessence Publishing Co., Inc. 1981; 136-247.
9. 리처드 해리스 슈라이옥 저, 이재담 역, 근세 서양의학사, 위드, 1999: 6-43
10. 기창덕, Pierre Fauchard의 생애와 Le Chirurgien dentiste(치과외과의),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6; 24(5):413-17.
- 기창덕, 치과의사의 아버지 뻘에르 포샤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92; 30(1):69-70.
11. 이재담, 의학의 역사, 위드, 2000; 129-151
12. J. 롤즈,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13. 루시엥 골드만, 계몽주의 철학, 기린문화사, 1977

신 유 석

Sin, You-Suk

이(齒) 위생

신 유 석

기독신보(基督新報 The Christian Messenger)은 조선예수교서회에서 1915년 12월 7일 창간하고, 1937년 8월 1일 휴간당하였다가, 그해 12월 1일 허가 취소되었던 주간지였다. 예수교에서 발행한 신문이었기에 집필진으로 선교사가 적지 않았다. 하리영(河理泳 Robert A. Hardie)은 목사이면서 의료 지식을 가진 선교사였다.¹⁾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병원인 제중원에서 1890년 10월부터 1891년 4월까지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다.²⁾ 그는 해박한 지식으로 치아에 대한 위생 계몽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그는 1932년 2월 26일자 기독신보에 “깨끗한 이는 압흔법이 없다. [니의 표면을 보존하라 그리하면 전체니를 보존하리라 (이 위생표어)]” “이(齒) 위생”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³⁾

하리영은 이글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였다. 치아는 저작작용을 한다. 치아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치아는 두 부분으로 치관과 치근으로 되어 있다. 치관은 법랑질, 치근은 석회질로 되어 있고, 속에는 상아질과 가장 안쪽에는 치수(수질강)가 있다.

치아가 아픈 표적은 치아의 표면에 더러운 것이 붙은 것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랑질을 상하게 하고, 연한 속이 속히 썩는다.

치아가 썩기 시작할 때 치과 치료를 하면 쉽게 치료되나 늦으면 치통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치아가 상함으로 루마치즘, 신경염, 신경통, 심장병, 농창, 피부병, 감기, 중기, 그밖에 신경병 등이 생긴다는 중심감염설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치아에 위생에 중요한 것은 식후와 자기전에 양치질을 할 것이다. 칫솔은 적은 것이 좋고, 너무 힘들여 문지르지 말고, 딱아야 할 면이 5면이 있다는 등 양치질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1) Allen D. Clark,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69쪽.

2)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연세의료원, 2005. 53쪽.

3) 기독신보, 1932년 2월 26일자(제742호), 9쪽.

구강솔의 발달과 구강위생관리의 고찰

Development of Oral brush and maintaining of oral hygiene

박 준 봉

Park, Joon-Bong

I. 서론

II. 본론

1. 구강위생의 중요성

2. 칫솔의 명칭

3. 칫솔의 발달

4. 전통치솔

5. 치실

6. 치약의 발달

7. 근세 조선의 치의학유래

8. 이쑤시게

9. 칫솔의 선택

10. 칫솔질의 순서

11. 칫솔질 후 확인

III. 결론

IV. 참고문헌

구강솔의 발달과 구강위생관리의 고찰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박준봉

Development of Oral brush and maintaining of oral hygiene

Joon Bong Park, D.D.S., M.S.D., Ph.D., FICD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Medical center at Gandong, Dental Hospit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view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oral care devices in the ancient civilization. Through an evolutionary process of oral care devices, the prevalence of periodontal diseases and dental caries has revealed decreasing tendency. Because of the changing the role of the toothbrush, the name of brush should be alter from toothbrush to oral brush. Recent we can apply toothbrush to tongue cleaner to diminish the oral breathe odor. Selection of the toothbrush for fittable for each and every person is the one of important point to maintain the oral hygiene, including check-up the oral hygiene status after toothbrush with disclosing solution.

This review of literature sugges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to maintain the oral health

should be included the selection of proper toothbrush for each person and confirmation of result of toothbrush in oral cavity after had learned tooth brush instruction from professional person.

Key words : Oral brush, toothbrush, oral hygienic device, check-up

I. 서론

치과의료인이 평생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어떤 칫솔-치약이 좋으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생활속 깊이 자리잡은 칫솔-치약의 발명과 개선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만큼 칫솔질이 구강건강관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가도 궁금하다. 칫솔-치약의 구매과정에서 가끔 품질을 따지기도 하겠지만 유명브랜드나 가격파괴를 우선하고 제품이 내게 적합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칫솔의 왕복운동만으로 내 치아와 잇몸은 확실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구강내의 건강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치약과 칫솔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나 일반인에게 적절한 구강위생용품 선정과 정확한 사용법 구사 그리고 칫솔질 후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들을 살펴본다.

II. 본론

1. 구강위생의 중요성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는 1924년 2월11일자 동아일보에 “구강위생 - 긴급한 요건”이란 제목의 수필을 기고하면서 국민들의 치과의료상식의 고취를 호소하여 치과계의 최초의 선학의 심정을 토로 한 적이 있다.¹⁾ 즉 1914년 한반도에 일본치과의사가 4인이고 조선인 치과의사가 1인이었는데 십년 후 1924년 일본인은 21인이 되었으나 조선인 치과의사는 본인 1명으로 증가되지 않은 점에 애석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구강위생의식 함양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당시의 슬로건을 “보건문제는 아동위생으로부터, 아동위생은 구강위생으로부터” 라고 하여 어릴 때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의식개혁 국민참여를 강조하였다.¹⁾

한반도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한 적 있는 일본인 大澤義誠은 1960년 대한치과의사학회지의 전신인 대한치과의사학사연구회지 창간호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 사람은 식사 후에 필히 숭늉을 입에 머금고 마시는 습관을 함수(含漱)이라하여 우리민족의 생활습관이 구강건강에 좋은 형태라고 하였다.²⁾

2. 칫솔의 명칭

원래 구강내를 청결하게 하는 기구로 칫솔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칫솔, 치간칫솔, 전동칫솔, 단모, 치실, 설정기 등의 다양한 구강위생용품들이 개발되어 보다 정확한 치태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칫솔이란 단어도 치아를 닦는 혹은 청소하는 기구라는 의미이지만 근래에 치아사이는 물론 치은자극과 맛사지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칫솔로 설배면까지 청소하게되는 용도확산으로 입속을 청소하는 구강솔 (Oral Brush)이라고 명명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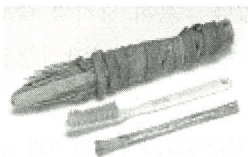
우리민족의 칫솔에 대한 명칭은 2014년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에서 변영남선생이 한국어원학회의 어원사전의 근거하여 발표하신 “양치질의 어원 고찰”을 발표한 바 칫솔질의 어원이 양치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양치질의 어원은 “양지”로써 버드나무라는 양지(楊枝)에 접미사인 “질”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보면 양지질로 표현되고 있다. 양지(楊枝)는 불교용어로서 승려의 비구 18물(物)의 하나로 입을 깨끗이하는 도구이다. 길이는 4지(指), 굵기는 새끼손가락 정도로 한쪽은 굵고 다른 한쪽은 가늘게 하고, 굵은쪽은 가늘게 쪼개어서 세정(洗淨)에 편하도록 만든게 칫솔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를 청소하는 행위를 “양지질”이라고 했던 것인데 점점 “이”의 한자인 “치”에 연결시켜 양치로 해석했으며 “양치(養齒)”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한자어로 만든 단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중국에 영향을 받아 양치질은 중국문헌에서 나온 “수구(漱口)” “수(漱)” 양치물은 “수수(漱水)”라고 하여 Gargle 용액의 어원이 아닌가 생각한다.³⁾

3. 칫솔의 발달

3-1. 고대중동지방의 역사

구강위생 청결술식은 이미 BC 3500-30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평야지대에 Sumerian 인이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고 이때 간단한 수술과 의약품들이 사용되는 의학수준이었다. 메소포타미아 Ur 지방의 유적에서 정교한 금 이쑤시개가 발견되어 구강위생을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 인류문명의 초기부터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BC 1792-1750년 Hammurabi 시절의 법전에는 상벌의 수단으로 치아에다 가혹행위나 약의 사용기록이 있었다.⁴⁾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Siwak 혹은 Misswak 이라하며 *Salvadora persica* 나무의 작은 가지를 물에 하루정도 불려서 미세한 섬유다발을 만들어서 치면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다.⁵⁾



3-2. 고대 이집트의 역사 기록

고대 이집트인들의 Ebers papyrus에 다양한 식물과 광물로 치주질환을 치료하였는데 부형제로 꿀과 식물들을 이용하여 연고형태를 사용한 기록도 있다.⁶⁾

3-3. 고대 인도의 역사

고대 인도의 의학저서인 Charaka Samhita에서는 치아를 닦는 막대기는 단단하면서 뾰족하고 끝은 솔형태를 씹혀져야하고 잇몸을 다치치 않게 하루에 2번 이용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3-4. 고대 중국의 칫솔

고대 중국에서는 이쭉시개인 Chewstick 과 칫솔을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데 Chewstick은 나뭇가지나 뿌리를 이용하여 한 쪽 끝을 두드려 연한 섬유상태로 만들고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였는데 아직 저개발 국가에서는 사용되기도 한다. 최초의 칫솔은 중국에서 원시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최초의 칫솔은 대나무 손잡이에 시베리아 돼지 강모의 집합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야생 돼지털은 잇몸에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말 머리털로 대체하였다.

⁸⁾

3-5. 유럽과 미국의 칫솔발달

프랑스 치과의사가 17C에서 18C 초에 칫솔의 사용을 촉진한 최초의 유럽인이었다.

영국 Clerkenwald의 William Addis는 1780년 최초로 칫솔을 대량생산하였다. 그의 원래 칫솔은 섬유를 부착하는 뼈에 구멍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칫솔로 특허를 얻은 첫 번째 사람은 HN Wadsworth이었고 그 이후 많은 미국 기업들은 1885년 이후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동물의 털을 강모로 사용하였고 뼈를 손잡이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천연 섬유의 문제점은 세균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Florence사는 처음으로 칫솔을 상자에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1938년 DuPont사가 최초로 합성섬유인 나일론 칫솔을 제조하였다.⁹⁾

이즈음 1940년 3월 6일 Hayden과 Harris의 노력으로 Maryland주에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 가 세계 최초 치과대학으로 설립되어 구강위생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4. 전동칫솔

첫 번째 전기칫솔이 1939년 스위스에서 개발되었으나 1960년 Squibb가 미국인으로 최초로 제작하여 Broxodent라고 명명하였다. 1961년 General Electric 사에서 무선충전식 전동칫솔을 개발하였고 1987년 Interplak 사가 회전모식 전동칫솔을 개발하였다.

5. 치실

치실은 선사시대 인간의 두개골 치아에 치실과 이쭉시개 흔적이 발견되었다. 뉴 올리언스 치과 의사 Levi Spear Parmly가 1815년 자신의 치아사이를 명주실 조각으로 닦아 치실을 만들어 현대 치실의 발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882년 매사추세츠주 Codman and Shurtleff of Randolph사가 상업으로

unwaxed silk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 New Brunswick의 The Johnson and Johnson Company는 1898년 치실 특허를 가장 먼저하였다. Dr. Charles C. Bass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일론 치실을 개발하여 실크치실을 대체하였다.¹⁰⁾

6. 치약의 발달

6-1. 조선의 치약

최진환이 1961년에 조선시대의 구강위생학적 지식에 관한 소고에서 동의보감내 치과의학적 고려점이 있음을 밝혔다. 즉 1610년 선조때 허준이 당시 의료기록을 모아 25권의 동의보감을 집대성하고 현재의 치석을 치상(齒狀)이라하고 감도(瘡刀)라는 기구로 제거해야하고 만약 방치한다면 잇몸이 다시 치근에 부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찾았다. 중요한 점은 개치(揩齒) 혹 개아(揩牙)라하여 치아를 문질러 치아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향약집대성에는 상심산(桑椹散)과 동의보감에 백아약(白牙藥)처방이 있어 조선시대의 치마분(齒마분) 즉 치약이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¹¹⁾

6-2. 외국의 치약

치약은 중국과 인도 모두에서 BC5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치약은 1824년 Peabody라는 치과의사가 치약을 개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John Harris는 1850년에 치약성분으로 분필을 포함하기도 하였고 1873년 Colgate사가 향아리 용기속에 넣어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1892년 Connecticut주의 Dr. Washington Sheffield이 접을 수 있는 튜브에 치약을 제조하였고 1896년 Colgate사서도 유사한 튜브에 포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연이어 Colgate 회사에서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2차대전시 Sodium Lauryl Sulphate와 Sodium Ricinoleate 등의 유화제와 치약이 개발 보급되었다.

7. 근세 조선의 치의학유래

대한치과의사학회지의 전신인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에서 한국최초의 서양의술은 1884년 미국선교사인 Horace Alen이었고, 9년 뒤인 1874년 동양최초로 일본에 치과를 개원한 미국인 치과의사 Elliot에게 수학한 일본인 野田가 1893년 인천에 치과의원을 개원한 것이 최초로 치과의술이 전래되었다. 따라서 근대적인 칫솔과 치약은 그 이후에 소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기록은 사람과 업적 중심이 대부분이고 치과 재료나 장비들에 대한 기록은 미미한 편이다.¹²⁾

8. 이쑤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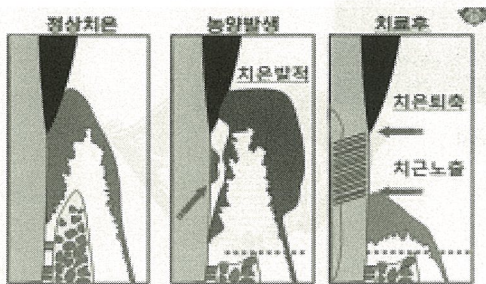
1872년 Silas Noble와 J. P. Cooley가 첫째 이쑤시개 제조기계를 특허얻어 제조를 하였다.

9. 칫솔의 선택

칫솔의 선택은 사용자의 구강내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제품을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대상이 된다.

9-1 연조직 질환의 유무는 당장 사용에 거부를 가져오게 된다. 즉 궤양성질환이나 만성 박리성치은염인 경우에는 강모가 부드러운 솔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 매운 음식을 먹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상피가 부족하여 솔이 접촉만 되어도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9-2. 고령자나 치주수술후 치은퇴축이 심한 경우에는 강모의 길이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솔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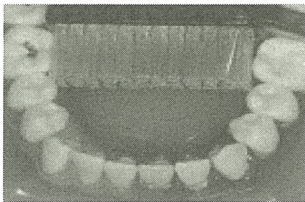


〈그림 2〉 치은 형태에 따라 칫솔 선택이 다름

왜냐하면 치경부와 치근의 단면도를 교합면에서 관찰하면 치면의 만곡깊이가 달라서 강모가 일직선인 솔은 강모가 치간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9-3. 동양인의 입청정 높이과 좁은 악궁에 청결효율성에 영향을 주므로 악궁이 좁고 높은 경우는 강모부위인 두부가 작은 칫솔을 사용한다.

9-4. 입의 크기가 작은 경우 최후방 구치부 협측과 원심면까지 솔이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강모의 끝부분만 더 길게 제작된 칫솔이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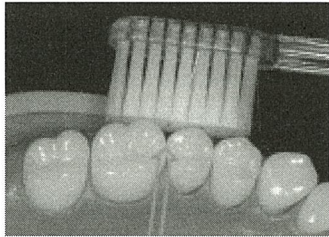


〈사진 1〉 악궁과 칫솔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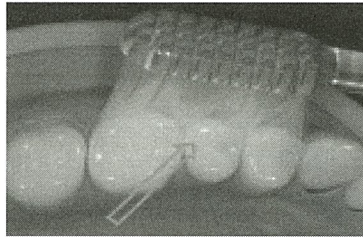
9-5 하악전치부 설측에는 배부분 실제 칫솔이 정확히 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하악전치설명에 치석이 잘 침착되는 경우에는 칫솔의 경부가 심하게 구부러진 칫솔이 접근도가 높다.

9-6 상악 제1대구치 구개측과 최후방 수치의 원심면에는 솔의 끝이 뾰족하게 하고 각도가 있는 솔을 사용하면 정확히 도달된다.

9-7 오래 칫솔질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사이에 칫솔의 강모가 꼭 들어 간 후 치아 하나씩 정확하게 청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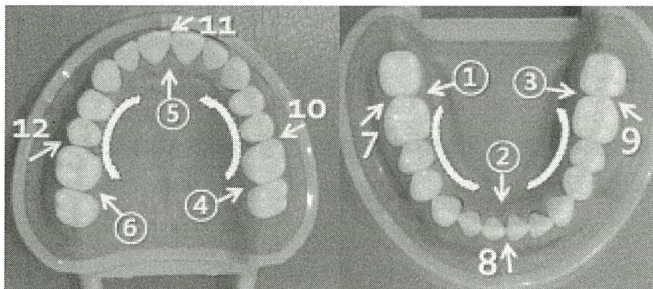
〈 사진 2 〉 치간사이 청소 불량



〈 사진 3 〉 정확한 강모의 위치

10. 칫솔질의 순서

칫솔질의 순서는 가장 닦기가 어려운 부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발치빈도가 가장 높아 보철수복을 많이 하는 하악 부위가 하악 우측 구치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여 칫솔질을 하기 때문에 하악구치부 설면이 칫솔의 도달이 가장 어렵다. 칫솔을 치면에 접근시키고 지속적으로 왕복이나 회전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그림 5 〉 칫솔질 순서

따라서 칫솔질의 순서는

- 1) 하악 우측구치부 설면
- 2) 하악전치부 설면

- 3) 하악 좌측 구치부 설면
- 4) 상악 좌측 구치부 구개면
- 5) 상악 전치부구개면
- 6) 상악 우측 구치부 구개면
- 7) 하악 우측 구치부 협측면
- 8) 하악 전치부 순면
- 9) 하악 좌측 구치부 협측면
- 10) 상악 좌측 구치부 협측면
- 11) 상악 전치부 순면
- 12) 상악 우측 구치부 협측면의 순서로 닦는다. 즉 보이지 않고 치아형태학적으로 만곡도가 깊으며 칫솔의 도달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닦는 것이 효과적이다.

11. 칫솔질 후 확인

현재까지 다양한 칫솔질 방법이 제시되어 왔고 그 종류도 많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그대로 할 수 있다가 문제이고 또 확인여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방법론은 생략한다. 칫솔질 후 확인 절차가 없다면 치료술식후 치유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치과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잔사는 병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제거하고 관리하며, 전문 의료진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부족한 곳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정확한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¹³⁾

11-1. 자가확인법

스스로 칫솔질의 정확도를 확인하려면 감각기능의 훈련이 필요하다. 검사는 혀끝으로 한다. 우선 상악전치부 순면에 혀를 접촉해서 활택도를 다른 부위와 비교한다. 상악전치부 순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칫솔질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매끈한 활택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면과 비교하여 동일한 느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11-2. 병원확인법

의료기관에서 호나자와 의사가 서로 공동의 소통을 위한 검사법으로 치면착색제를 도포한 후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으로 착색제를 도포한 후 물로 세척하고 남아있는 색깔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법이다.



〈 사진 4 〉 착색제로 확인

칫솔질로 쉽게 제거되는 초기의 치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착색하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함께 보는 환자는 의료진의 설명에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치은쪽 1/3에 침착된 치태는 명확하게 구별이 용이하다.

11-3 현미경 검사

대부분 현미경이 TV 화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3000배 정도의 확대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세균의 종류와 양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 기본적인 세균 분류가 가능하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균들의 모습 특히 광학대한 스피로헤타인 경우는 나선형의 운동양상이 대다수 환자들과 보호자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가시적인 효과로 동기유발을 할 수 가 있다.

III. 결론

미생물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야기한다는 기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구강내에 미생물 수를 억제하고 세균의 대사산물형성을 줄여주는 일이 치과내 2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구강내에는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다. 즉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세균 생존번식에 적절하고 치간유두부위나 치은열구등의 만곡이 심해 해부학적 구조가 서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균번식에 요구되는 영양분인 음식물까지 저류된다면 구강내에 질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음식물이 구강내에 저류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질환예방은 물론 치료에도 필수적 요소가 된다.

치면이나 치아사이에 누적되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칫솔질이 최고의 효과적이다. 최근에 좀 더 정확하게 음식물을 제거하는 구강위생용품들의 개발로 과거보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발생율이 떨어지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구강위생 상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환자발생은 많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라 생각된다. 첫째는 일반인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칫솔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칫솔후에 청소가 정확히 되었는가의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 전문의료인이 지시하고 교육한 방법대로 정확하게 칫솔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칫솔질을 잘 하라는 지시와는 별도로 사용하는 제품의 환자의 구강환경에 적합한 칫솔과 치약의 선정과 칫솔질 후 청소상태 확인도 전문의료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참고문헌

1. 함석태(咸錫泰) 구강위생-긴급한 요건, 대한치과의사학사 연구회지 No1: 61-64, 1960
2. 大澤義誠 : 조선치과계 變遷物語, 대한치과의사학사 연구회지 No1: 76-84, 1960

3. 변영남 : 양치질의 어원 고찰,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 2014년 3월 25일
4. Guerini VL History of Dentistry, Philadelphia, Lea & Febiger. 1909
5. Ring, ME : Dentistry—An illustrated History. The C.V. Mosby 1986. pp26, 71
6. Ebble B: The papyrus Ebers. Copenhagen, Levin and Munksgaard, 1937
7. Charaka Samhita, Edited , translate, and published by AC Kaviratna, Calcutta, 1892
8. Kimery ML, stallard RJ :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and contemporary utilization of various oral hygiene procedures. Period Abst 1968, 16:90
9. History of Dentistry and Dental Care. Toothbrush, Toothpaste, Dental Floss & Toothpicks By Mary Bellis Inventors Expert. 1939
10. George M. Gould, Walter L. Pyle : Anomalies and Curiosities of Medicine (Echo Library)
11. 최진환 : 조선시대의 구강위생학적 지식에 관한 소고 : 대한치과의사학사 연구회지 2: 15-23, 1961
12. 신인철 韓國近代齒科醫學의 沿革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3-30, 1960, 12, 1
13. http://inventors.about.com/od/dstartinventions/a/dentistry_2.htm

이한수 박사와 나눈 이야기들

| 이 병 태

나는 이래서 치과의사가 되었다
치대입시에 덧상 시험 봤다구요
가친께서 연희전문 상과 교수이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오후 1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순탁 장관과 김문조 교수
하이꾸를 왜 하셨는지요
사운드 오브 무직과 하이꾸
치과의사학 강의에 관하여
학회명칭 변경에 관하여
어느덧 나이가 90이나 됐습니다
10년 인터뷰의 에필로그

이한수 박사와 나눈 이야기들

이 병 태 원장

치의학 역사 부문에 햇불을 들어 치의학의 한 분과인 치과의사학齒科醫史學을 확립하였다.

치과의사로서는 처음으로

1973년 《週末의 齒科醫》

1976년 《李漢水齒學博物誌》

1977년 《李漢水東西齒學見聞記》를 펴냈다.

독특한 내력을 듣고 기록하였다

나는 이래서 치과의사가 되었다

선생님께서서는 KS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컫는 이니셜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국민학교를 나오셨지요?

이한수 : 그럼요, 국어가 일본어였어요. 말해 뭐하우. 국민학교 입학도 엄격했어요. 가타카나한자의 일부 또는 획으로 만든 일본글자를 쓸줄 알고 일본말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대고, 역시 일본말로 1이찌부터 100하꾸까지 세어야 했어요. 며칠 후 엽서가 오면 낙방이고 누렁지만 봉투가 오면 합격이었어요.

이한수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초중고등 학교를 다니셨다. 대학은 일제-미군정-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치는 시기에 유소년 청년 시절을 보내셨다. 지근거리에 계셨고 은퇴 후에는 필자 사무실에 자주 들리셨다. 그래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선생님께서 초등학교를 일제 강점기에 다니셨죠?

이한수 : 그럼요. 1939년 용강龍江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면접이라고 할까, 테스트라고 할까, 가타카나를 쓸 줄 알고 일본말로 내 이름과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대고 본적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1이찌 부터 100하꾸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기다리지요. 엽서가 오면 떨어진 것이고 누런 봉투가 오면 합격입니다.

용강초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이한수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지요. 제가 입학할 때는 경기도 고양군현 고양시였는데 5학년 쯤 서울시로 편입됐지요. 대로 건너편은 서울이고 이쪽은 고양군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6.25전쟁 이전이었어요. 골목길을 경계로 저쪽은 돈암초등학교, 제가 사는 이쪽은 종암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놀다가 학교 얘기만 나오면 저는 그냥 왕따였지요.

이한수 : 아하, 그러셨구나. 그 기분 알만합니다. 한 가지 일이 생각나는군요. 등교 길에 우연히 나가사끼 永崎 영기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인사드렸죠. 저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뭘 가르치시니?’하고 물으셨어요. 실제로 잘 모르기도 해서 우물거릴 수도 없어서 ‘영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일이 떠오르는군요.

선생님, 그때 국어가 일본어였으면 이름도 일본말로 했을 정도면 일본으로 다 돼가는 판이었군요. 일본, 참으로 끔찍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한수 : 그때 창씨개명 創氏改名 일제강점기가 극에 달했던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황국/일본 식민화하여 한국인 혼을 깎그리 말살하려던 정책이었다. 을 하지 않으면 학생은 입학이나 진학할 수가 없구요, 어른들은 취직도 못 했어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집은 늘 감시당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대단했습니다.

청주 이 씨와 청주 한 씨는 성을 니시하라西原 서원라고 바꿨대요. 옛날 청주 이름이 서원이거든요. 먼 훗날 자손들 누구 하나라도 조상이나 피붙이를 찾아 청주로 오면 가능하도록 서원이라고 성을 같았대요.

이한수 : 그러셨구나. 저는 기꾸하라 요시오菊原芳雄 국원방응였어요.

가친계선 기꾸하라 지요아끼菊原千秋이셨어요.

선생님은 치과의사로서 임상에서 2000년 4월12일 은퇴하셨다. 이한수 선생님께 어떻게 해서 치과의사가 되셨는지, 여쭙기가 조심스러웠다. 늘 하던 방송 대답이나 잡지 좌담회처럼 정해진 질문도 아니기 때문이다. 600년마다 찾아온다는 황금 돼지해 2007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12월10일 아침, 필자 서재에 들르신 이한수 박사께 문기를 작정했다.

선생님, 치과의사가 되신 이유라던가 치대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한수 : 경기학교 4학년 때였어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1월25일에 개학했어요. 이와무라 도시오岩村俊雄 교장이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보습생補習生 전원을 강당에 소집하셨어요. 이 교장 선생님은 간사이 시고꾸 고찌끼關西 四國 高知縣/ 관서 사국 고지현 지방 사람이라서 일본 중앙무대에 진출하기가 어려워 한반도나 만주지방으로 진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관서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교토京都/ 경도 서쪽, 도쿄東京/ 동경 지방을 간토關東/ 관동 이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동서 간 갈등이 많이 있지요.

보습생이 무엇인지요.

이한수 : 재수생이죠. 우리 때는 한 학급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재수생반이 편성돼 있었어요.

일반학원으로 가지 않는 제도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가?

이한수 : 뭐가 궁금하십니까.

예. 2001년에 금강산관광으로 처음 갔을 때인데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흰 만물상을 오르다가 잠시 쉴 때였어요. 운행 조 紐가 같아서 함께 쉬는 자리였어요. 30대 말 여성이 저더러 ‘예술가 같다’고 하면서 ‘뭘 하시느냐,고 묻길래, 치과의사라고 답하고 나도 물었더니 미혼인데 보습학원을 한데요. 그때 보습이란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한수 : 아하, 그랬군요. 이야기 계속하죠. 강당 강단 위에 수십 장이나 되는 큰 궤도를 걸어 놓고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방학 동안에 일본본토를 전부 돌아보고 왔다. 그리고 일본본토와 한국에 있는 전문학교 현황을 모조리 조사해서 이 궤도에 적어 놓았다. 또 경기 출신이 어디어디 갔는지, 한국인을 뽑지 않는 학교 등 모두를 조사해왔다. 잘 듣고 잘 보고 참고하라.’ 제가 ‘일본본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한 것은 제가 한 말이고 그 당시는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이라고 했거든요.李박사필자는 이해하겠지만 식민통치

일제강점 시대에 상황을 누가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제 외조부께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사형을 받을 형편에서 징역형을 받으시고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셨어요. 요즘 세대도 교육이나 구전 또는 영상매체를 통해 적지 않게 알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잇을 만하면 '독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해서 모르던 어린 아이들까지 일본의 나쁜 과거를 알게 되거든요.

이한수 : 그렇군요. 이와무라 교장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알기 위해서라도 4학년이라도 한 사람 빠지지 말고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평균 70점이어서 원서를 낼 곳이 없었어요. 시국時局을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였지요. 미국 하와이 진주만까지 침공했으니, 생각하면 끔찍한 역사였죠. 전쟁터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군대는 더 필요했죠. 자연스럽게 '조선사람'은 그네들 전쟁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떠했겠어요. 징집徵集 연기가 있는 학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교장 선생님 강의를 받고 저는 도서관로 갔어요. 전국일본+한국 대학입시요강 그리고 입학조건 등을 찾아 봤습니다.

자료에서 좋은 곳, 맘에 드는 대학이 있었는지요.

이한수 : 왕문사旺文社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을 눈여겨보았어요. 징집연기가 되는 학교, 수학시험이 없는 학교를 찾았어요.

수학시험이 없는 학교를 찾으셨다뇨.

이한수 : (웃으시며) 내 수학 점수가 40점 이하였거든요.

(함께 웃으시며) 선생님, 저도 수학이 아주 약했어요.

이한수 : 눈에 뜨였어요. 군 징집이 연기되는 대학을 찾았어요. 일본에는 농과 두 곳, 한국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현 서울대 치대, 이렇게 세 곳이 있었어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께서 일찍 퇴근하셨어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저 일본 가서 시험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묵묵 무답無答이세요. 그 후 꼭 3일이 지났는데. '너, 일본가는 것은 안 되겠다. 포기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부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한수 : 그때가 8.15 직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기울었다고 할까, 하여튼 일본 본토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이 흔들리고 있었나 봐요. 실제로 일본 시모노세끼下關/ 하관과 부산釜山을 오가는 간쑤關金/ 관부연락선을 미국 잠수함이 격침시킨 일이 있었어요.

위태롭기도 했어요. 일본은 작전상 군대와 군수물자를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허가서 소지자 외에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4 일본 소화19년경에 일본 본토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행자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결국 일본 국운國運 때문에 그러셨겠네요.

이한수 : 그럼요. 그해 경치전은 입시를 다른 대학보다 15일 정도 빨리 봤어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가 광범해졌고 군대도 많이 필요한 때라 젊은이들은 모조리 전쟁터로 끌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말 마세요. 징병연기를 받으려고 일본 본토에서도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수험생이 너무 많아서 경치전 본교와 용산중학교, 두 곳에서 입시를 치뤘어요. 저는 용산중학교에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지원했길래 입시장이 두 곳으로 나뉘었는지요.

이한수 : 놀래실 거요. 일본인 경쟁률이 48 대 1이고, 한국 학생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치대입시에 덧상 시험 봤다구요

정말 대단했군요. 선생님 학급 동료들은 프라이드라고 할까 긍지가 하늘을 찌르기도 남으셨겠어요.

이한수 : 그랬었죠. 하지만 저는 공부하느라고 지쳤어요. 아주 진이 빠졌어요. 입시과목은 세 과목인데 일본국사 + 무기화학 + 도화圖畵/ 미술 었습니다.

원서를 내고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제일 약한 과목이 무기화학이었거든요. 모조리 달달 외웠어요. 저한테는 당락當落은 무기화학에 달렸거든요. 무기화학에 네 문제가 나왔는데 4번 문제는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 하셨어요.

이한수 : 내가 뭐랬우. 수학 없는 대학을 선택한 것을. 눈 딱 감구 4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행하게도 세 문제는 열심히 보고 외워 둔 것이었어. 줄줄 썼어요. 콕 쓰고 났더니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도화가 무엇입니까.

이한수 : 그 ‘도화’ 시험문제 제목은 ‘좌수左手를 임의의 위치에 놓고 그려라’ 였어요. 저는 조금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합격통지서가 왔어요.

춘부장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이한수 : 아니, 무표정이셨어요. 3일 후에 입을 떼셨는데, ‘내가 세브란스 박용덕朴鎔德 선생한테 네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치전에 가셨대. 나기라 다츠미柳樂達見/ 유락달견 교장한테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네 성적을 보여 주시더라.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더라’ 하시더라구요.

나기라 다츠미 교장은 어떤 분인가요

먼저 나기라 다츠미 교장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한수 : 나기라 다츠미는 조선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 부유층 자제들이 일본 본토로 유학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귀국하면 반일운동에 몰두하고 민족자주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조선에 실업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사상적 안정을 꾀하여 보통 생활을 하도록 하면 위험하거나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발상發想였군요.

이한수 : 이러한 나기라 다츠미의 주장과 이론이 당시 조선 총독부 당국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어찌 됐거나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 설립과 개교는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 시작과 신지식 치과의사가 배출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개교한 1922년을 포함한 36년간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자주라거나 자생적이지 못한 상태이고 외세의 기능으로 시발되었다는 자유롭지 못한 구석이 있다.

나기라 다츠미는 조선총독부 치과 과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1914년 3월 31일 서울역에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한수 : 나기라 다츠미는 일인이지만 대단한 인물입니다. 총독관저總督官邸/구 청와대 자리를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어요. 필요한 자금은 실업가 도미다 기사富田儀作한테서 지원받고 학교 땅은 관총독부에 얘기해서 저경궁儲慶宮터를 확보하고 철근 콘크리트 빌딩을 올렸으니 대단했죠.

나기라 다츠미는 조선총독과 막역莫逆한 사이였나 보죠?

이한수 : 나기라 다츠미 교장이 총독부로부터 무상보조금 200원을 지원 받았어요. 일반 시민들은 일반 관리비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치대 건물 뒤에 2층 벽돌집이 별채로 있었는데 1940년 조금 앞서서 지은 무기고였어요.

나기라 다츠미 교장은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행정 능력도 대단하셨나 봐요.

이한수 : 내가 학생일 때 나기라 다츠미 교장이 ‘철원에 치전齒專 소유인 교림校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 교림에 관하여, 조영수대한치과의사학회박사가 국가기록보존소에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림에 관한 자료를 찾아내, 이한수대한치과의사학회 종신 명예회장박사가 번역하고, 이병태-신재의대한치과의사학회 명예회장박사 공동으로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뭔가 학교운영에 자신 있는 말씀을 하셨군요.

이한수 : ‘내 조상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내게 조금은 감상적이었고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여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폐교할 때까지도 인적자원과 시설, 건물 등이 증대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사유림私有林까지 갖도록 정열을 쏟았지요. 나기라 다츠미 교장이 서울을 떠날 때도 환송하는 분위로 보내드렸고, 그분이 일본에 귀국했을 때 일화입니다.

쇼후松風회사 측에서 ‘지난 날 후원에 감사 합니다’ 면서 ‘저희 회사에서 점심과 식사는 함께 드시지요’ 라고 말씀을 올렸대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랬었군요. 쇼후 사장이 경성치과의학전문대학교 교과과정에 치과재료학 특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한수 : 맞습니다.

이 쇼후 사장이 나기라 다츠미 교장을 모시고 패전 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내한하셨습니다. 그때가 1962년 4월 말경이었는데 38학회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일화가 있을 터인데요.

이한수 : 쫓기다시피 용산역을 떠났다가 서울역에 환영받으면서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그때 과거에 교장께서 사시던 남산에 있던 사택 앞에 가서 ‘들어 가보시죠’ 했지만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아마도 ‘나기라 다츠미 교장과 이순탁 교수는 이미 지인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가친께서 연희전문 상과 교수이셨습니다.

입학하실 당시 춘부장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이한수 : 연희전문대학延禧專門大學 상과 과장 겸 교수를 하셨지요.

경제학을 전공하셨군요.

이한수 :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도일渡日하셨지요. 고학으로 공부하셨대요.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대학예과과정 검정시험을 거쳐서 교토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진학하셨죠.

아하, 그러셨군요. 대단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순탁 교수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들려주시지요.

이한수 : 1939년경 연전상과사건延專商科事件으로 징역 4년의 옥고를 치루시고 나오셨죠. 하시는 일 없이 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와서 취직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주선으로 아사히 이가꾸 센몽각고오旭醫學專門學校 / 옥의학전문학교 서무과장으로 취직하셨어요. 서무과장 겸 교수이셨어요. 이는 고등계 형사들이 손을 놓은 거죠. 자칫 일제의 앞잡이가 되실 일을 모면하셨던 것입니다.

대화 중이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사전 좀 보겠습니다’하고, 독립운동가 · 사전편찬가 신기철연세대 국문과 1948년 후의 《새우리말큰사전》에서 ‘연전상과사건’을 찾았으나 없었다.

선생님, 연전상과사건이 없는 데요.

이한수 : 연전상과사건은 일본 교토京都제국대학 경제학부 가와까미 하지메河上肇 교수사건과 연계됩니다. 가와까미 하지메 교수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 강의를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시켰다고 해서 투옥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부친께서 그 가와까미 하지메 교수 밑에서 수학하시고 1922 대정11년에 졸업하셨죠. 그리고 귀국하셔서 한국학생들에게 마르크스 사상을 강의하고 전달했다는 죄목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스승이 투옥되니까, 서울에 있는 그 제자인 가친도 감옥에 가셨지요.

일본에서 가와까미 하지메 교수가 출옥되자 가친께서도 출옥하셨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반일反日사상과 한민족독립사상을 교육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보면 불온한 사상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 해서 서대문형무소에 가둔 사건이었죠. 혼자 투옥되신 게 아니라 백남운白南雲 노동규盧東奎, 이 분들과 가친 이순탁李順鐸, 이렇게 세 분이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사히 이가꾸 센몽각고오’가 어디 있었는지요.

이한수 :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일본식으로 고치면서 개명한 것이지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슬픈 과거와 쓰라린 사연들이 무쳐버린다는 생각에서 결례를 무릅쓰고 계속 여쭙기 시작했다.

옥고를 치르시고 어떻게 되셨는지요.

이한수 : 곧 8.15 광복을 맞았죠. 입법의원 관선의원이 되셨고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초대 기획처장관을 역임하셨다가 연세대 대학원장으로 복직하셨지요.

정부가 수립하자 이순탁 교수께서 장관을 하셨군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한수 : 6.25 전에 백남운 노동규, 두 분은 북으로 가셨죠. 북에서 백남운 선생은 문교부 장관격인 교육상을 하셨지요. 그리고 노동규 선생은 폐결핵 때문에 활동을 못하시고, 그 부인은 일본서 교육을 받았는데 북에서 여성동맹 같은 부서에서 크게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순탁 교수님께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 해주시기로 하고 선생님의 학교 수업이 어떠했는지,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이한수 : 그럼시다.

이젠 징집도 면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마음은 아주 기쁘셨겠어요.

이한수 : 징집면제가 아니라 징집연기였죠.

우선 해부학실습을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한수 : 시체해부실습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우리 학년은 못했습니다. 우리 위 학년들은 의과대학에 가서 견학이라도 했겠는지, 아마도 의과대학도 시체해부실습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시기였고 전세戰勢가 일본한테 불리하고 패전 쪽으로 기우는 시기였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전세가 불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는 모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한수 : 그렇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이 수업이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어요. 교수요원, 선생들은 전부 예비역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교직원 모두는 불안했죠. 거듭 말씀 드리지만 강사급 조교

급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없었어요. 원래 학생을 지도할 교수요원이 부족했죠.

일본이 패망 직전이어서 기초의학 교육부문이 여의치 못했군요.

이한수 : 그렇다고 봐야죠. 해부학 교수는 구와야마 桑山였고 조직학교수는 도꾸야마 徳山였어요. 그리고 생리학과 구강외과 교수는 한국인이었어요.

강의는 전부 일본말로 했겠죠?

이한수 : 그렇습니다. 당시는 일본통치, 식민정치, 요즘 말하는 일제강점 시기였기 때문에 국어가 곧 일본어였어요. 한국인 교수도 강의는 일어로 했어요.

일반 서민들도 그랬는지요.

이한수 : 관공서는 당연히 일본말을 썼구요. 백화점에 가면 일어와 한국어를 함께 썼습니다. 백화점 점원은 거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이죠.

교재는 어떠했는지요.

이한수 : 교과서, 교재요? 교재가 어디 있고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1943년, 1944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교과서 같은 것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헌 책방에 가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배경 좋고 발 넓은 친구라야 치대 선배를 통해서 그가 배우고 난 책을 구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힘들었고 거의 없었죠. 완전히 노트 필기였어요.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시기였지요.

프로젝터projector 강의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한수 : 환등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는 지도 몰랐어요. 전쟁 때문에 쇠꼬챙이, 종이 한 장이 귀했던 시절이었어요. 차트라거나 껌도도 없이 공부했지요. 전시戰時였기 때문에 생필품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가 부족하거나 아주 없었지요. 해부학 강의시간에는 어느 부위 어떤 곳을 설명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선생님과 제가 해부학이나 조직학을 배운 시간차이가 꼭 20년이거든요?

이한수 : 세계제2차대전에 승리한다고 주장하던 그들이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해부학실습 시간에 ‘왜 두개골을 나눠 주지 않느냐.’면서 ‘모형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 파손된 것 몇 개만 나눠 주곤 했어요. 조교들은 ‘새 것을 나눠주면 금방 파손된다’는 말을 자주 했지요. 사실 온전한 모형은 몇 개 없었어요.

조직학실습도 중요한데요.

이한수 : 조직학실습 시간에는 학생 1인당 현미경 한 대씩 나눠 주었죠. 그림을 그려내게 하고 출석 겸 성적을 매겼죠. 그런데 어느 날 현미경사건이 생겼어요.

현미경사건이라뇨.

이한수 : 실습이 끝나고 현미경을 반납했는데 현미경 렌즈가 없어졌대요. 현미경 한 대를 못 쓰게 된 거죠. 학생들도 교수들도 놀랐죠.

그 현미경 렌즈 찾았습니까?

이한수 : 조교 한 사람이 말하더군요. '렌즈를 팔 곳은 일정하다. 팔면 적발된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일 텐데 훔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히 찾아보아라.' 하더라구요.

그 말,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훔쳐 갔다 하더라도 도둑으로 몰지 않고, 슬쩍 흘려서 되찾는 형식으로 해서, 아주 우회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교육자적 의도가 좋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한수 : 결국 못 찾고 말았습니다.

저희 때에는 프로젝터를 이용한 슬라이드 강의는 받았으니까요. 교육 보조 재료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과 비하면 짬이 안되거든요.

이한수 : 글썄요. 과제나 리포트는 의례히 컴퓨터이고 CD-롬이니, 동영상이니 하는데, 저는 천지가 개벽했다고 봅니다.

학창시절이지만 군사훈련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한수 : 엄청났어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 봐도 우리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 군사훈련은 세차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한수 : 높은 입시경쟁률로 유명한 학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병역특혜를 누리는 학교였고, 무엇보다도 저 먼 곳, 만주-중국본토-동남아시아 드디어는 하와이까지 천지 사방이 전쟁 중이었으니까

말할 나위가 없었죠.

선생님께서서는 건강하셔서 힘들지만 잘 견디셨겠어요.

이한수 : ‘완전무장’ 아시지? 배낭지고 전투모 쓰고 군화신고 각반치고 장충삼팔식 소총들고 줄을 서면, 출전대세가 된 상태였죠.

소공동 경성치전 교정이 좁아서 훈련을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한수 : 그러니까, 줄만 서서 선두가 뛰면서 교정을 나서면 거기가 서울 한 복판 아닙니까? 대오를 짜고 학교-남대문시장-승례문남대문-조선신궁 앞현 남산식물원 밑, 힐튼호텔 앞-후암동 고개길-용산중고등학교 앞현 전쟁기념관 뒤길- 삼각지연병장현 국방부남쪽을 왕복하는 겁니다.

행군 코스를 보니까 재미있네요.

이한수 : ‘재미있네요’하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코스에, 큰 시장부터 그네들이 제일로 치는 신사神社가 있죠, 학교가 있죠, 고급 주택가에도 관청과 군부대까지 있으니,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면 대단했겠네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눈에 크게 비쳤을 테고 관청이나 고급관리 들도 좋아 했을 것 같군요.

이한수 : 지금은 구보驅步라고 하는데 그때는 가계아시 馬蹄足/ 구족이라고 했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선생님,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이한수 : 열아홉, 스물이었죠. 왜, 우습소? (함께 웃음) 나도 물어 봅시다. 몇 살에 군에 가셨습니까.

저는 1970년 국군에 징집 입대, 훈련받고 육군대위 치과군의관으로 임관했죠. 그래도 훈련은 힘들었죠. 대학 산악회에서 산악활동을 해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한수 : 그렇구려. 바위에 올라 로프 걸고 내려오고, 군사훈련이라도 그야말로 할만 하셨겠어요. 38식 소총이 뭔지요.

이한수 : 정확한 답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에 38년도에 만든 총이라고 해서 그 연도를 붙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하면 그만큼 수업은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이한수 : 그렇죠. 그때는 선생들도 언제나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 비상상태죠. 향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심한 군사훈련은 무리라는 말이 있기도 했어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처지에 오히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고된 일은 군사훈련 말고 또 있었어요.

수업할 시간은 정말 적었습니다. 어렵고 하기 싫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요. 무엇이었나요.

이한수 : 무기고 야간夜間 경비였죠.

군에서 나온 교관도 있었다는데 무기고경비를 학교 자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이한수 : 한 조組가 두 명인데 일본인 1명과 한국인 1명씩 세웠어요.

그 무기창고가 어디 있었죠?

이한수 : 낙막사님도 그 교사에서 공부하셨죠?

예, 예과 2년은 청량리, 본과4년과 인턴 레지턴트 3년 모두 7년을 소공동에서 보냈어요.

이한수 : 그럼 잘 아시겠군요. 교사 뒤편에 좁다란 골목만한 공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7년이나 다녔지만 들어가 본적은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장실 병원장실 여러 교수님 방이 그쪽이어서 자주 내다봐서 지형이나 모습은 훤히 압니다. 1969년 12월에 치대와 부속병원이 지금 연건동으로 이전해서 병원은 1970년 1월부터 진료했고 학교는 4월에 신학기를 시작했지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새로 설치된 에어터빈을 익혔고 유닛체어치과치료의자/ dental unit & chair도 의자형chair-type에서 침대형bed-type으로 바뀌고 스툴에 앉아서 치료하는 임상을 거치고 군으로 나갔죠.

이한수 : 절벽 밑에 골목 같은 치대 뒤편을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던 지난 일을 잘 들었군요. 그러니까 교육과 임상이 엔진에서 에어터빈으로, 입식에서 좌식으로 바뀌는 전환시기였군요.

하여튼 당시 치대건물 바로 뒤에, 왼쪽은 한국은행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공화당 당사로 쓰다가 한 때는 예그린 합창단 합창 소리가 들려서 색다르기도 했어요.

이한수 : 제가 다닐 때에는 뒤에 남선南鮮전기주식회사가 있었죠. 지금 한국전력 전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사 뒤 언덕에 느티나무가 있고 그 밑에 무기창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야식을 줍니까, 상대방이 일본인이니 마음에 있는 말을 터놓고 할 수가 있나, 어쩌다 대화를 나눈다 해도 인간적이라거나 젊음 청춘 같은 이야기는 어림도 없죠.

정말, 고생 스러우셨겠어요.

이한수 : 아주 힘들었습니다. 불평? 어디다 대고 해요, 한마디 못하고 그냥 복종이죠. 군사훈련을 빼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겠지만, 퇴학당하면 군대에 가야 했거든요.

아하, 군대를 가야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죠.

이한수 : 자꾸만 식민지정책- 식민지정책, 이 말을 반복하는데요, 들어 보세요. 군대를 가도 한국학생은 중국본토로 갔고, 일본학생은 나진 웅기 쪽으로 갔지요. 오늘의 나진 선봉이지요. 가까운 곳이지요.

정말 속 보이네요. 일본하고 가깝고 왕래가 편하죠.

이한수 : 말마세요. 졸업 후 동급생이 같은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일인과 한인 급료에 차이가 컸어요. 식민지 수당이라고 해서 일인한테는 1백 원을 더 주었어요. 이렇게 처우가 달라도 누구도 아무 말 못했지요. 경성제국대 출신은 75원이고 전문대 출신은 45원이었죠.

차별대우도 노골적이었군요.

이한수 : 그렇구 말구요. 그 뿐인 줄 아세요?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생물과에 한국인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돌았어요. 과에 따라 한국 학생은 정원의 20퍼센트 정도만 뽑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식민지 정책이죠.

지금 송의여전셋 과학관 · KBS · 송의여중고 · 경성신사 에서 식물채집, 곤충채집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가보면 한국학생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학생이 하나도 없다니요.

이한수 : 과학, 기술, 측량 등 이런 분야는 한국 학생을 뽑질 않았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두철미한 식민지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학 중에 8.15광복을 맞으셨어요.

이한수 :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중이었어요.

마침 재시험기간이었어요. 나는 생화학에 재시험을 봐야 했어요.

83세인 이한수 박사님과 66세 2008년 현재인 필자가 재시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린애처럼 웃었다.

필자는 재시험을 수도 없이 보았다. 의대생이나 치대생이라면 재시험이 본시험이라고 할 정도이고 운명적으로 필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으흐, 재, 재시험이래, 건드리지 마.’ ‘모래 시험 끝나고 대포 한잔 하자.’ ‘야! 놀리지 말고가. 재, 재시험 줄줄 이야.’

선생님, 저는 재시가 아니라 삼시까지 봤는걸요. 과목에 따라 잘 못 걸리면 재시-삼시-구두시험까지 끝내고 학점을 확보하면 내일 모레가 2학기 등록금 내는 친구도 있었죠. 방학이라 집에 내려 올 줄 알았던 아들이 안 내려오니깐 한 달 치 하숙비를 더 올려 보내오기도 했죠. 그럴 때면 동정하는 인정파가 있는가 하면 ‘학구파’라고 빈정대고 놀리면서 친하게 놀기도 했죠.

이한수 : 들으니깐, 실감도 나고 재미있군요. 제가 겪은 재시험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1945년 8월 15일 오후 1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3층 계단교실에 재시험 볼 학생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시험문제를 내기 직전에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재시험 예정시간이니깐 정국政局은 어떠하든 시험에 열중하라.’ 하셨습니다. 순간 일본학생들 안색이 다르더라구요. 그 날 12시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신으로 까지 여기던 일본 히로히토裕仁/ 유인 천황이 육성으로 항복 선언을 발표했거든요. 저는 못 들었는데 일본인학생들은 들었던 모양입니다.

조국 광복, 한 시간 만에 생화학 재시험을 보셨군요

이한수 : 그런 셈입니다. 말도 말우, 재시험도 그냥 보시는 줄 아십니까? 재시험료 10원 씩 내야 했거든요. 시험공부도 시험공부이지만 10원을 장만 하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재시험료가 전문대 출신 초봉의 4분의 1 정도였으니까, 그랬겠습니까. 선생님, 혹시 그때 생리학 시험문제 생각나십니까?

이한수 : 아휴, 생각은 무슨 생각야. 시험문제는 고사하고 재시험 봤다는 기억이 나는 것만도 다행이죠. 8.15 그날이 재시험 날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는 온 식구가 같이 했거든요.

제가 클 때도 그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 정보화시대로, 더군다나 핵가족에다 만혼, 독신주의, 이런 풍조 때문에 끼니마다 가족단위 식사는 힘들어 지고 있지요.

이한수 : 1945년 8월 15일 아침 식사 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여동생들이 둘러앉아 조반朝飯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웃집에 살고 계시고 세브란스 방사선과 과장 정일사 鄭一史 선생님이 급한 듯이 오셨어요. 아버지한테 ‘일본천황이 오늘 12시에 항복하는 말을 하고 종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집 마당에 방공호를 파놓았어요. 그 방공호로 통하는 지하실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군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재시험 잘 봐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앞뒤를 생각해 보니까, 일본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유난히 자기들끼리 몰려 다녔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중적이라거나 사교적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 그들 사정이나 형편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재시험 보시고 댁으로 돌아 가셨겠지요?

이한수 : 그럼요. 집에 돌아오니가 가친께서 벼루와 먹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먹을 갈라고 하세요.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죠. 일장기日章旗를 꺼내 오시더니 태극기太極旗로 고쳐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태극기라는 말도 처음 듣고 처음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태극기도 그리시고 대단하셨군요.

이한수 : 가친께서 왜 태극기를 그리시는지를 알았어요. 무엇보다도 ‘나라를 되찾는다’ 그리고 ‘미군이 온다’ 이런 감을 가지셨다고 느꼈어요.

일본이 항복했고, 부친께서는 태극기를 만드셨고,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는 어렴풋하나마 느끼셨겠어요.

이한수 : 학교에는 이 중좌중령라는 교관이 있었어요. 교련시간인데 비가 와서 4층 1학년 교실에서 대체교육으로 정신훈화精神訓話를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아요.

담화 내용에서 감명 받으신 대목이 있나보죠?

이한수 : ‘일본학생은 민족적 우월감을 갖지 말라. 조선학생들은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좀 더 당당해라. 지금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는 사람에는 워싱턴에 이승만, 중경重慶에 김구가 있다. 너희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 이렇게 훈시하는 어조는 강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중좌, 그 이름 생각나십니까?

이한수 : 알면 이름을 댔지요. 그분은 창씨개명 創氏改名도 안했어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온 不穩한 조선인이라고 해서 주목받고 감시 대상이 됐지요.

이 중좌, 그분 한국인이었나요?

이한수 : 양친 중, 한 분이 일본인이었죠. 그래서인지 조선학생을 괴롭히질 안았습니다.

8.15광복 후에는 어땠습니까.

이한수 : 그 이 중좌는 서울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거나 매 맞거나 몰매 맞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일본인들은 집을 꾸리거나 또는 알몸으로 서둘러 일본으로 갔지요. 이 중좌는 계속 서울에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다음해 1946년에 일본으로 갔답니다. 잊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선생님 느낌대로 인간미와 생활 철학이 분명했던 모양입니다. 정황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한수 : 흥흥洶洶한 소문도 많았어요. 우리에게 8.15광복이지만 패전국 국민에다 입장이 뒤바뀐 처지여서 일본인들에게는 생사 生死가 걸린 긴급사태로 급변해 버린 절박한 일이었죠.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히로시마廣島/ 광도와 나가사키 長崎/ 장기에 원자탄이 터지고 일본 본토 주요 시설도 폭격당하여 폐허로 된 곳이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도 중국 만주 조선 같은 타지에서 팔시당하고 매 맞고 때로는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니까 돌아갔죠. 중국 그 넓은 대륙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사람은 몇 십 날씩 걸어서, 한반도로 와서 조그마한 어선漁船을 구입하면서까지 귀국했어요.

저 1942년 生는 어려서 사회나 물정을 전혀 모를 때였고, 미아리 살 때인데 흰옷 입은 어른들이 신작로新作路/ 현 길음시장 앞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 거 보세요. 얼마나 모두가 얼마나 놀려 있었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러겠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사건인가요? 무슨 일이-

이한수 : 경성일보京城日報1906년 창간/1945년 폐간 마지막 호에 눈을 끄는 기사가 났어요. 내용은 '일본인 잔류자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독립에 적극 참여하고 돕겠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들이 말하던 조선사람, 한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묘한 일이 있었군요. 8월 16일에 일본인 교수들이 학생들과 이별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어디서 했고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요.

이한수 : 저는 2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운영이나 행정, 그리고 부속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그 생화학 재시험은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아니면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한수 : 시험 본 것, 그 자체로 끝났어요.

학교 자체가 와해라고 할까, 무능이라고 할까,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채점은 하셨는지, 했다하더라도 발표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제가 본과1학년1963년 때 생화학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성낙웅 교수께서 강의하셨어요. 엄숙하셨어요. 첫 시간에 ‘몇 명은 낙제. 시험점수로 결정한다.’ 하시고 실제로 유급시키셨어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렸죠.

이한수 : 그랬군요.

제가 다닐 때1944년도 의대 교수가 출강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제가 재시험에 걸린 이유가 떠오르는군요. 재시험 자를 발표하면서 ‘이한수는 단백질 소화는 위 위에서 된다고 썼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다 옳게 썼다. 재시험이다’ 하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노트를 뒤져 보니까 말씀대로 ‘위에서 한다’고 잘못 받아 적어 놓았어요. 그냥 줄줄이 외운 것이 화근이었죠. 얼마 안을하던지, 정확한 실수였습니다(함께 웃음).

혹시 일본어 강의가 힘들었던가요?

이한수 : 아닙니다. 우리 한국학생들 중에서 일본어로 하는 강의를 못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일본학생들과 우리나라학생들 간에는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이한수 : 지적 잘하셨어요. 한국 선생들은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일인학생과 반도출신 한국학생이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15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분했는지, 참으로 억울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암암리에 점수 차별이 있었군요. 저도 채점을 30년 넘도록 해왔지만, 흑백차별도 아니고... 저희들 선대 先代에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다니, 참으로 비통합니다.

이한수 : 일인 日人선생들은 ‘조선 노 각세이朝鮮의 學生’라고 부르면 비하하거나 업신 여긴다거나 천시하는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하여 ‘한포 노 각세이半島의 學生’라고 하였습니다. 혹자或者는 ‘어쩌면 민족民族이라거나 조선朝鮮이라는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반도半島라는 명칭으로 대치시킨 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8.15 이후 2학기를 어떻게 맞으셨는지요.

이한수 : 세상이 확 바뀌었죠. 미국식으로 새 학기가 9월에 시작됐죠. 38선 이북은 구소련이 내려 왔고,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美軍政이 시작됐습니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청美軍政廳 문교부현 교육과학부는, 경성대학교와 서울 시내 9개 관립전문학교와 유일한 사립학교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해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약칭 국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해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초대 총장에 법학박사 해리 비드웰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대위를 선임했어요. 나라는 좌익과 우익으로 갈리고 학생단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좌익학생들은 국대안 반대시위를 벌이고 시위를 했죠. 이미 치과대학생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좌익학생들은 3층 강당에 진을 치고 강의를 방해하면서 수강受講 거부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나아가서 ‘박명진 학장을 몰아내자’ 고도 했습니다.

저의 1년 선배들은 1947년 7월 11일 미국인 총장이 수여한 졸업증서를 받았죠. 학생들은 ‘외국인 총장을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저항했습니다. 1947년 10월 25일, 1년 2개월 만에 이춘호李春昊 박사가 초대 총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춘호 박사는 6·25전쟁 때 납북되셨는데 이때 박명진 학장이름이 총장후보로 거론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반대도 있었다면서요.

이한수 : 지금은 대학로, 당시 서울대학교 본부를 들어가려면 교문 앞에 다리가 있어요. 지금은 복개되어 없죠. 좌익학생들이 떼를 지어 교문을 막고 서서 등록하러 들어가는 학생들을 막았습니다. 공포감도 주었죠. 불안했습니다.

이따금 선배님들께서 ‘당시는 그랬다구’식으로 그런 말씀을 주시더군요.

이한수 : 우리들 중에서도 파가 갈렸는데, 치대 좌익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교외에 모여서 세뇌교육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어쩐지 하고 그렇게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에 통 나타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제 동급생 중에서도 공부시간이면 늘 앞자리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들도 좌익단체 핵심당원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1946년, 1947년, 1948년... 이 시기에 2학년, 3학, 4학년을 보내셨는데요. 강의와 실습,

임상실습, 병원생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이한수 : 치대 3학년 4학년 학생, 이한수 개인 이야기로만 말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물자가 절대부족이거나 아주 없었죠. 생필품은 더했죠.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죠. 건물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러니 있는 치과시설도 엉망 쪽으로 가고, 치과재료나 약품도 부족하거나 없었죠. 광복은 됐지만 대중들의 치과인식은 절박한 생존 문제에 뒷전 중에서도 뒷전이었죠.

선생님, 돌이켜보니 숨 막히는 시기였어요. 통치는 일본에서 미군 美軍으로, 사회는 좌와 우로, 지도층도 분열된 것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구석, 어디선가 치과 치료는 계속되었다고 보는 데요.

이한수 : 다른 곳이 아니라 치대부속병원이고 개인 치과의원 이었습니다. 치료를 요구하는 계층이 있거든요. 또 어느 사회나 부유층은 있거든요. 부유층은 교수님이나 개인치과로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치과대학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임상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장 부속병원장은 누구였는지요.

이한수 : 치대 초대학장에 박명진 朴明鎭 박사, 초대부속병원장은 이유경 李有慶 박사였습니다. 절대적인 인물들이었죠. 보존학에 이유경 박유신 김만수 노광욱 선생님을 비롯해서 구강외과에 이춘근 송재형 호정진, 기초에 김영창 김동순, 월남하신 김수철 김용관 유종덕 선생이 강의를 하셨죠. 몇몇 분들이 헌신적으로 학교를 가꾸고 병원을 세우는 데 정열을 쏟으셨지요.

보철과에도 여러 분들이 계셨겠지요?

이한수 : 근무하신 연월일은 정확하게 댈 수는 없지만 보철과에는 정보라 이영옥 김정규 심태석 장완식 김조환 선덕영 송재형 허태운 선생님들이 계셨죠. 시대적으로 이분들이 애쓴 일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어렵해서는 안 됩니다. 업적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도 원내생 院內生 하셨죠?

이한수 : 그럼요. 환자를 대하고 진료에 입문하는 필수 과정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원내생이란 말이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치과 보철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내생 때 보신 기공실은 어떠했습니까.

이한수 : 기공실에는 기공사 1명이 있었어요. 그 기공사한테 이 학생, 저 학생, 모두가 부탁하는

형편이었죠. 학생 수가 많으니까 술을 피하곤 했죠.

기공사도 힘들었겠네요.

이한수 : 그러다 보니까 요령 있는 학생들은 담배 사주고 술 사준 그런 축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 것은 잘 해 주었어요.

그런 대열에 끼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불평도 있었겠어요.

이한수 : 그렇지만 초지일관해서 자기능력으로 과정을 지켜나간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기공사는 일본인이었겠네요.

이한수 :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생각나질 않는 군요.

대개 누구나 기공실에 관한 추억이나 얘기 거리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없으신지요.

이한수 : 유종덕 선생님이 보존과에 계셨는데 가끔 기공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야, 너 담배 있냐?’ 하시면서 학생들과 친하셨어요. 보존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하지요.

일본에서 수입한 크렌샤가 나빠서 발수가 잘 되질 않았어요. 크렌샤는 요즘 유극有棘근관침barbed broach입니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지요. ‘선생님, 치수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발수되지 않은 치수조직은 FC가 조직을 고정시킨다. 잔류 치수조직이 미이라화 된다’ 하셨어요. 우리는 선생님의 그런 지침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FCformocresol를 많이 썼어요. 사실 제가 은퇴2000년4월12일할 때까지도 계속 썼거든요. 전에는 발수하기 전에 아비산亞砒酸도 자주 썼지요.

요즘2008년2월, 저도 씁니다. 소아치과영역에서 FC가 유치 치근단을 넘으면 영구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독성이 이야기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비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치근단을 넘어 나가면 뼈 괴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60대 중반 제 또래 치과의사들은 배우기는 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FC가 대신한 셈이죠. 그런데 지금 청장년 치과의사들이 아비산 외국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세미나에 나가서 배웠대요.

이한수 : 저는 아비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원내생院內生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취는 어떠했는지요.

이한수 : 마취제는 프로케인 이었습니다. 새하얀 직경 5mm 정도 크기의 타블렛을 증류수에 타서

췌습니다. 흔들어야 잘 섞이고 잘 녹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사하셨군요.

이한수 : 지금의 덴탈 시린지dental syringe가 없었어요. 그냥 유리 주사기로 했지요. 우리는 이런 마취를 ‘국소압박침윤마취’라고 했지요.

꽤 아팠겠군요.

이한수 : 발치라면 무조건 아픈 것으로 인식됐죠. 발치할 때는 치료실이 뒤집히는 것으로 통했죠.

그래야만 했던 것도 마취제와 관련된 한 시대상입니다.

이한수 : 아니, 세상에 어느 의사가 일부러 아프게 치료하고, 어떤 치과의사가 이를 아프게 빼려고 하겠어요.

필요에 따라 X-선 촬영도 했을 텐데요.

이한수 :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입된 영화촬영용 필름을 구해서, 그것을 잘라 치과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주 흐렸어요.

보철 환자, 아무래도 지대치 형성과 이를 다듬고 깎고 하는 일을 많이 했을텐데요.

이한수 : 전기가 안 오는 날이 허다했으니까, 주로 풋 엔진foot engine으로 했죠. 치료실 구석에 늘 비치해 놓았죠. 학생은 밝고 선생님은 그저 세파레이팅separating / proximal cut만 하는 정도였지요. 오늘날처럼 교합면을 삭제하는 일은 아주 힘들었죠. 버- 포인트- 다이아몬드 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죠. 기술부족이나 실력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풋 엔진을 보기만 했습니다. 핸드피스handpiece는 어떤 것을 쓰셨나요.

이한수 :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와 컨트리 앵글은 체이스 핸드피스와 SS화이트 핸드피스였습니다. 엔진부터 핸드피스까지 벨트로 연결되어 버나 포인트를 돌리는 것, 아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치대부속병원이 소공동시대를 마감하고 연건동으로 이전하면서 유닛체어 기전이 엔진추진식engine-driven에서 공기추진식air-driven으로 탈바꿈 하였고.

기계마다 취급과 사용에 애로가 있기 마련이죠. 선생님 시절에, 에어터빈이 도입되기 전에 쓰신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이한수 : 벨트가 가끔 말뚝을 부러요. 엔진 도르래에 걸린 것이 세 개의 자유자재 접철대를 거쳐 핸드피스 후방 도르래를 왕복하면서 핸드피스 앞 구멍에 낀 버를 회전시키죠. 이때 벨트가 속도를 내면서 돌아, 오래 사용해서 낡고 늘어나죠. 어떤 때는 벨트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핸드피스를 쓰고 나서 어떻게 깨끗이 하고 기름은 어떻게 치는지, 한 마디로 사용법을 배우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금방 망가지고 말았죠.

인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한수 : 모델링 컴파운드, 석고로 했습니다. 학생 때 봉투에 든 알지네이트는 보기만 했습니다.

모형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한수 : 질 좋은 하얀 석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사정이 안 좋아서 회색 석고를 사용한 생각이 납니다. 작품을 만들다가 석고모형이 깨졌어요. 그날 집에 와서 '실패해서 다시 만들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들으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세브란스 치과에서 얻어다 주신 석고가 새 하얀 것을 보고 좋기도 했지만 훌륭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실습재료 보급은 잘 됐는지요.

이한수 : 그때 건물 1층 오른 쪽 작은 현관을 들어서면 화장실 왼쪽, 당시 서무과 편에 쇼후松風/송풍치과재료점에서 실습용 재료를 팔았습니다. 학생은 이 재료점에서 석고 한 봉지씩 사기도 했죠. 미러mirror, 핀셋pincette, 익스플로러explorer, 이런 것은 무척 귀했지요.

학생이 실습재료를 사야 했군요.

이한수 : 그랬습니다. 일제 미러를 쓰다가 미제 미러를 써 보니까 미제 미러가 직경도 크고 금속광채가 좋고 거울반사 능력도 월등히 좋아요. 더러는 학생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강매한 경우도 있지요.

기공실에서 조각도 하셨을 텐데요.

이한수 : 굵은 젓가락 정도의 팔각 진 것이었고 일제는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감색이었습니다. 조각도는 작은 일제를 많이 썼지요.
매몰도 하셨겠는데요.

이한수 : 들어 보세요. ‘매몰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라. 교정 校庭에 나가서 고운 모래를 한줌 가져오라. 그것을 섞어서 매몰하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서무과 앞마당에 비온 후에 물이 흘러간 자리에 군데군데 모인 부드러운 모이고 가늘고 고운 모래를 긁어모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학생들이 다투거나 경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한수 : 케이스가 많아가지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속병원 형편을 아는 환자, 좀 개인 사람들은 주로 개인 치과를 많이 이용했지요. 8.15 이후 사회혼란 시기니까, 어쩌면 자연스러웠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혹시 1차 매몰, 2차 매몰을 하셨는지요.

이한수 : 그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주조는 압박주조를 했어요. 주조할 때면 주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이 둘러싸고 구경했죠.

선생님, 저희 때는 원심주조였는데, 아들 성공이나, 딸 실패이냐에 신경을 썼죠. 성적 폼하하는 듯한 은어였지요.

이한수 : 지금처럼 전부주조관full casting crown이 아니었어요. 교두만 조각-매몰-주조해서 밴드band에 납착땜질하는 모리슨관Morrison crown의 변형이었죠. 주조교두관cast cusp crown 이라고 했어요. 금을 아낀다고 밴드를 얇게 하면 교두하고 붙인 부분이 곧 터지곤 했지요. 진짜 모리슨관도 압인한 교합면 두께가 너무 얇아서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았죠. 당시 금은 보철과 김정규 교수한테 차트를 보이면 도장을 찍고 내주셨습니다.

하루는 기공실에서 총의치를 매몰하고 있는데 심태석 교수께서 미국 치과의사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매몰, 좀 깊게 됐나 보다’ 하셨어요. 미국 유학준비 중이라서 미국인 접촉이 많으셨나 봐요.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셨어요.

방학 때 봉사진료 나가신 적 있으신지요.

이한수 : 1947년경입니다. 지원 학생을 4-5명씩 세 팀으로 나눠 치과진료팀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세 팀이 어디어디로 갔는지요.

이한수 : 나는 김문조金文祚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1회 1940년 후 선생이 인솔하신 팀에 속했습니다. 진료지역은 춘천-강릉-울진-김천 었조. 미리 보건사회부에서 연락해서 인지 현지 공무원들이 안내했습니다.

진료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이한수 : 발치만 했습니다. 병에 든 프로케인을 유리 주사기로 마취했지요. 요즘은 상상조차 못할 행위가 아니고 뵈니까. 프로케인은 신비스러운 약, 설파다디아진은 특효약으로 통했어요.

구강외과, 보철, 보존, 기공, X-선, 치과재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한수 : 4학년 때, 구강외과 강의시간이었어요. 이춘근 선생님이 강의하셨는데 제가 ‘페니실린 발명자가 누구입니까?’하고 질문했어요. 갑자기 받은 질문이어서 즉시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 이후 얼마나 미안스럽고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 대화도 잘 못하고 지내 왔다우.

이젠 일본 군대에 끌려가는 것도 면했고 대망의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한수 : 졸업 날짜가 1948년 8월 20일 일겁니다. 서울대 치대 2회 졸업생이죠. 박명진 학장님께 인사드리려고 용기를 내서 학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죠. 추울 때라 난로 옆에 계셨습니다.

‘저 이한수입니다. 학장님, 제가 세브란스병원 치과에 가게 됐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했어요. 개인 면담은 처음이었어요. 저를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학생 교육시키시라, 자네 장래 걱정하시라, 많이 바쁘시겠구나’ ‘아버지 얼굴을 못 뵈는 날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게. 모교도 자주 들르고...’

박명진 학장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며칠 쉬다가 세브란스병원 치과서울역 건너편에 있었음에 출근했죠.

1년 선배 지헌택池憲澤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첫 출근은 언제 하셨나요.

이한수 : 오라, 8월 23일부터 출근했어요. 그 때는 발령이고 뭐고 없었어요. 주임교수께서 근무하라 하면 그것이 곧 임명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과에 근무하셨는지요.

이한수 : 과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치과방사선과, 이런 식의 과별 간판이 없었지요.

종합 치과진료 실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경지에 도달하셨겠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이한수 : 무급조교였지요. 박용덕 朴鎔德 선생님께서 저와 동기생 김선기 金先杞를 불러 ‘앞으로 1년간은

견학만 하라'하셨습니다. 그래서 닥터 김과 2, 3층을 다니면서 치료실과 기공실까지 돌았죠. 1년은 꼬박 무급조교로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1950년 4월 1일에 유급조수가 됐어요.

저는 인턴 때 1967년 수당으로 1,300원을 받았거든요.

이한수 : 월 2만 원 받았죠. 엿 한 가락에 1천 원 었습니다.

동기 두 분이 재미있으셨겠네요.

이한수 : 아니죠. 저만 세브란스병원 치과에 남고 동기생 김선기 선생은 박용덕 치과의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박용덕 선생님은 오후에는 개업의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종각 대각선방향 종로에 개업하고 계셨지요.

일제강점기-일본패전과 조국광복-미군정-대한민국 정부수립, 불과 5년 사이에 글자 그대로 격동기에 국가나 개인,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 안정과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할 시기였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일본서 교육받으신 분이순탁 교수가 어떻게 미국계 특히 기독교계에 근무하실 수 있었는지요.

이한수 : 당시에 학문적으로 경제학은 미국보다도 일본이 앞섰다는 게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가친께서 연희전문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최현배 선생이나 백낙준 박사와는 계통이 달라서 자주, 잘 어울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일본 고등계에서 체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서 늦게 오셨지요.

이순탁 교수님께서 이승만대통령의 초대 정부에 입각 하셨다면서요.

이한수 : 광복 후에, 미군정 입법의원, 연희대학교 초대 상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민국 정부 초대 기획처 처장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셨지요. 당시에 김문조金文祚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 제11회 1940년 추선배 께서 아현동에 사셨는데 서울대 구강위생학교실 조교수이셨어요.

이순탁 장관과 김문조 교수

옛날에 남영동인가, 용산고등학교 입구에 김문조치과위원을 하고 계셨지요. 상당한 활동가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수 : 그렇습니다. 1948년 여름 방학 때 김문조 선생이 학생들과 무의치의촌 봉사진료를 떠났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당시 남은 꿈도 못 꾸는데, 글썄 김문조 선생께서 사회부 보건국 전 보건부, 을지로입구에 있었음/ 현 보건복지부에서 앰블런스를 지원받아 떠났어요.

앰블런스로 돌아왔으면 한두 지역이 아니었겠는데요.

이한수 : 기억이 자세하지 않습니다만 강원도 횡성-강릉-삼척, 경상북도 울진-언양-청송-평해-김천을 돌아, 우리 진료팀과 앰블런스는 김문조 선생 고향으로 갔지요.

그 많은 지역을 다 하셨나요?

이한수 : 그렇고말고요. 우리가 가면 면장, 어떤 때는 군수가 나와서 맞아 주곤 했지요. 우리가 가는 리로 이장은 온갖 정성을 베풀어 주었지요.

저도 느꼈지만 대접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오히려 감동적이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한수 : 맞아요.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됐지만 시골에서 사람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죠. 이가 아파서 찢찢 매는 것도 참는 수밖에 없었지요.

김문조 선생 고향이 어딘데요.

이한수 : 대구에서 경산 쪽으로 30리 쯤 들어간 시골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지요. 고향에서, 김문조 선생이 그 시절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것은 옛날 장원급제와 같지요. 처가는 김천에서 큰 부자였어요. 앰블런스를 몰고 자기 고향에도 보은報恩한 것이지요. 그런 분이었지요. 경산 고향 일대와 김천 지역에 큰 화제 끼리었지요.

제가 듣기로는 김문조 선생님은 사회활동도

이한수 : 한번은 '사회부보건국에 구강위생연구소 예산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에 '국민구강보건사업은 암흑'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사회부 예산에 좀 넣었으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정부에 치과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그래. 알았다' 하시던가요?

이한수 : 그런 말씀 안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해당 부처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사회부 예산에 2백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 예산은 4월에 집행됐습니다. 당시 2백만 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해에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예산이 초과에 투입되기는 처음이었죠.

가친께서 2대 총선에 낙선, 6.25 직후 납북당하셨죠

이한수 : 4월이 가고 5월이 왔어요. 1950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가친께서 서울 서대문 을구乙區에서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어요. 연대 대학원 원장으로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젊은 교수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는 늘 신촌 역전 자택에서 쉬고 계셨어요.

1950년 6월 25일. 남침, 6.25전쟁이 일어났죠. 6월 28일 아침 7시 전후해서, 정치사상범으로 체포당하셨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당했으니까요. 동네 청년 빨갱이들과 치안유지대라는 사람 30여 명이 와서 집을 포위했어요. 납치인지, 임의동행인지, 하여튼 잡혀 가셨어요.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총살당했어요. 어디까지나 남침이죠.

체포라니요.

이한수 : 가친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내각에서 초대 기획처장현 재정경제부 장관이셨으니까, 북측 입장에서 보면 ‘반동’이죠.

북한 세상이 됐으니, 신촌 역전 파출소를 접수한 동네 좌익 수십 명이 강제로, 그러니까 납치당하신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지프차로 모셔 갔지요. 신촌역전파출소로 가셨다가, 서대문경찰서에서 구충독부 도서관현 을지로사거리 명동입구로 수감 장소를 옮기더니 야간열차로 이송, 납북 당했다는 소식만 들었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고 있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납치당하신 날부터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다가 40이 되시면서 실성失性도 하셨는데 1968년 뇌출혈로 돌아 가셨습니다.

정말 뼈저리도록 가슴 아프신 과거입니다.

이한수 : 우리 집에는 외할머니께서 함께 계셨어요. ‘한수야. 앞집에 일러 놓았으니, 잠은 앞집에 가서 자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곧 유엔군과 국군이 9.28 서울수복 작전을 이룩했죠. 외할머니께서 어떤 영감이 있으셨는지, 하여튼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인민군이 다 지치고 굶고 그랬는데 앞에 말씀드린 김문조 선생께서 집 앞에 쓰러진 인민군에게 밥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미아리 고개를 넘어 춘천으로 갑니다’ 하더라요. 김문조 선생은 북아현동, 한 막다른 골목집에 사셨습니다.

인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후에 오해도 받으셨겠네요.

이한수 :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극우파적 사람이거나 김 선생님을 깎아 내리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동기생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이한수 : 김선기, 그 친구는 1950년 초에 결혼했는데, 6.25직후 환자이송을 하면서 월북했어요. 부인을 남겨놓고..., 그냥 비극 천지지요. 3개월 만에 9.28수복으로 서울을 되찾았지만 벌써 잃을 것은 다 잃었고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죠.

다음해 1.4후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한수 : 1951년 1월 4일, 1.4후퇴 세브란스병원 피난열차를 타고 피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애야, 너만이라도 가거라’ 하셨죠. 그때 세브란스병원은 거제도도로 가는데 저는 대구에서 내려요. 일주일 만에 외가댁으로 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안동에서 30리 들어가 있는 예안禮安으로 피난했죠.

예안이 어디쯤인가요.

이한수 : 이퇴계 선생 생가와 15리 떨어진 곳인데 지금은 수몰되고 없지요.

선생님 가족이 대가족이셔서 이동이 쉽지 않으셨겠어요.

이한수 : 할머니, 어머니, 저, 남동생 셋, 여동생 셋, 찬모, 침모, 모두 11명이었죠. 할머니와 둘째여동생은 서울 집에 남아있고 이화여자대학교 2학년인 큰 여동생은 미군부대에 취직해 나갔고 배화여고 다니는 막내여동생은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기숙사로 갔죠. 결국 어머니께서 남동생 둘을 데리고 외가로 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밀양육군병원 문관이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한수 : 제 나이가 당시 26세였어요. 외가댁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 신학진申鶴鎭씨인데 육군 대령으로 밀양육군병원 병원장이래요. 저는 치과의사이겠단, 결심했지요.

안동에서 밀양까지 거리가 먼데요.

이한수 : 6.25 전시였기 때문에 모두가 유동적이었거든요. 대구까지 나와서 부산 쪽으로 가는 군납품 개인 트럭을 얻어 타고 무작정 밀양에서 내려요. 즉시 육군병원 본부로 찾아 가서 신고했죠. 저를 보시더니

즉석에서 문관에 입관 받았어요. 제7육군병원 문관이 됐어요. 원장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전시라서 설비나 시설도 불비한 점이 많았겠죠?

이한수 : 그럼요. 외상환자가 전부였어요. 입원실은 교실을 썼고 운동장은 텐트로 둘러 싸여 있었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중공군 포로 환자도 두 명이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군 동료들과 근대김치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공군 포로 환자가 우리 텐트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속으로 ‘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하고 들어오게 했어요. 주눅거리더니 들어 왔어요. 동료가 중공군 포로에게 먹으라고 했더니 못 먹는다는 시늉을 해요. 말은 안 통하지만 배가 고파서인지 받아먹었어요.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지지고 복고 튀기고 해서 먹지만, 속이 비었는데 안 먹고 배겨?’ 밥도 김치도 잘 먹었어요.

중공군 포로 환자가 착했던 모양이죠?

이한수 : 둘 다 외상환자인데 한 사람은 거의 다 나았는데 보호자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들은 밀양이 어디인지 지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우리말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한수 : 우리 쪽에서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소통이 뭐 필요해요. 치료해주고 먹여 주고 재워주는데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입원실로 들어가니까 그 중공군 포로 환자가 마주 보이는 한국군 입원환자를 가리키면서 종이에다 杖장자를 써요. 왜 그러냐, 하고 그냥 나왔죠.

뒤따라 나오던 위생병이 말해서 알았는데 중공군 환자가 맞았대요. 그래서 곤장 친다 할 때 杖자를 써서 나한테 하소연했는데 글썄 모른 척 했으니, 야속했겠죠.

전쟁 포로이지만 선생님의 인간 감정에 매료됐던 모양입니다.

이한수 : 전쟁이 나쁘지요. 이 친구는 늘 가슴에 가족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 보는 겁니다. 한번은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뒤돌아섰죠. 그랬더니 열른 내 앞으로 오더니 잘못했다는 시늉을 했어요.

그 후 그들은 어찌 됐는지요.

이한수 : 포로교환 때 갔어요.

서울에는 언제 올라 오셨는지요.

이한수 : 1951년 10월쯤 휴가를 내서 상경했습니다. 귀대하기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복귀할 수 없었어요. 부대에서도 허락하였죠.

당시 눈에 보이는 서울 거리도 형편없었을 테고, 경제와 생활상도 아주 어려웠을 때였는데, 귀경하셔서 어디서 근무하셨는지요.

이한수 : 미5공군 본부 한국인 인사관리처가 원남동 로터리 우체국자리에 있었는데 거기로 가서 면접했더니 미5공군 본부 부속병원 치과현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건물 뒤 건물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밀양육군병원에서는 월 2만 8천 환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월 18만 환을 받았습니다. 꽤 많았죠. 미 공군도 옮기고 서울대학교병원도 올라오고 제자리 잡기가 시작되었죠. 남으로 피난했던 국가기관 학교들이 속속 상경했고요. 미5공군 본부 부속병원 치과에 5개월 정도 근무했죠.

1952년이 되면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서울로 수복했어요. 이 회사에 외삼촌이 영업부서에 장기 근무하셨는데 마침 거기서 치과의사를 뽑았어요.

기회가 돼서 그때부터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속병원 치과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한전병원 치과에서 48세까지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임상 치과의사로서 선생님께서 치과계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큼니다. 그때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속병원 치과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한수 :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쪽으로 가는 서소문로, 중앙일보 본사 건너편에 있었죠.

1952년, 한전부속 치과에 치과의사는 몇 분이 계셨는지요.

이한수 : 과장님과 저, 두 명이었습니다.

과장은 이세덕李世德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7회/ 1945년 8월 15일 추선생이셨고, 제가 과원課員였습니다. 후에 이세덕 과장, 다음으로 김규택金逵澤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第12回 1941年 추선생이 오셨지요.

돌아보면 초창기 치과의사협회나 동창회는 안중서安鍾書, 김용진 金溶璿, 박명진朴明鎭 이런 분들 역할이 컸지요. 저는 종로 관수동에 개업하신 김용진 회장님 치과로 자주 찾아가 뵈곤 했습니다.

하루는 김용진 회장님한테 '대학인사에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원고공치를 들고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박명진 학장께 말을 건넸데요. '학장님, 소문에 사람 쓰는데 편중된 느낌이 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니까, 대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편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체時體말로 학연 또는 지연, 이런 것이겠죠. 제 느낌에 지역 편중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한수 : 바로 보셨어요. 박명진 학장 말씀대로 사실 시대적으로 양성된 교수요원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때였으니까요.

우리나라치의학-치의학교육-서울치대동창회-대한치과의사협회 이야기를 하자면 박명진 학장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한수 : 그럼요. 6.25 후에 폐허가 된 서울을 누구보다도 미국-미군이 잘 알고 있었죠. 특히 미8군 치과군의관들은 한국 치과 임상과 기초, 나아가서 치과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죠.

저도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영옥-김주환-지현택-김인철-김규식-진용환 은사 여러 분한테서 들었거든요.

이한수 : 저도 정확한 사실이라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정보라 박사가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영어 구사력이 뛰어 났죠. 거기에서 따르는 매너manner가 보통이 아니셨지요.

정보라 박사님은 학생 때 축구도 하셨고 스냅 댄스도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한수 : 역시 많이 들으셨군요. 피규어 스케이팅도 특출 나셨어요. 연희전문 스케이트장에 나오시곤 하셨거든요.

연희전문 스케이트장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이한수 : 지금 연세대학교 정문 안 바로 왼쪽이 넓은 공터였어요. 하여튼 대단했던 분이지요. 동부인해서 나오셨어요. 그 시절에 그런 풍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때입니다. 거기다 빨간 유니폼을 입으셨으니 더 말해 뭐하우. 당시에 남자가 빨간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 한 것이지요. 이름 자체로서도 ‘보라’라고 하신 것은 요즘과 같지 않습니까?

정보라 박사님, 대단하셨던가 봐요. 제가 인턴때 환갑이셨거든요.

이한수 : 제가 듣기로는 미 군정청으로부터 정부요직을 맡아달라는 부탁도 받으셨다 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개인적인 성품도 있었겠지만 치의학에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도미하셨지요. 정보라 박사님은

치의학자이면서 당대에 지상至上的 치과의술과 그 인기도 최고로 달린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중개업이라거나 그런 제한은 없었는지요.

이한수 : 금방 얘기 하셨잖아요. 혼동의 시기였거든요. 정확한 날짜 라거나 일시는 댈 수는 없지만 정보라 박사께서 개업하셨던 곳, 두 곳을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이해나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 개업하셨었나요.

이한수 : 지금 서울 남산 제3호 터널 입구 좌측에 개업하셨어요. 거기는 서울의 중심가였고 생활력 있는 주택가였거든요. 거기서 치료받았다거나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기공사도 공지가 대단했지요. 당시에 다동에 개업하신 이유경 선생님 치과 역시 당대에 유명한 치과 중 하나였지요. 누가 뭐래도 '보철에는 정보라, 교정에는 이유경'이란 말이 돌았어요.

그때 등장한 기공사가 있었어요.

이한수 : 누군가. 사실 세브란스 치과에도 잘하는 치과기공사가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군요. 근데 그이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김성희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곳은 서울 종로3가 도로 북측 로변 건물 2층 한덕우치과의원에서였습니다. 한 치과의원을 제 동기 송건일 원장이 인수했거든요.

이한수 : 오오라, 이름 들었어요. 그분이 발을 좀 절었던가요.

맞습니다. 인성이 착한데다가, 일에 피나 요령을 펼줄 모르고 시키면 '하면 죽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마도 하는 말로 '진국'이었나 봅니다.

이한수 :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김성희 그분,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원만한 인상이 남아 있어요. 성실한 외모가 풍겼지요.

1970년대 까지 종로3가에서 내과의원을 개업해 성공한 개업의의 표상이었던 이돈석 원장님을 아시지요. 그 사모님 말씀이 17, 18세쯤인 김성희 총각을 이유경치과의원이 아니면 정보라치과의원에서 일하도록 했대요. 듣기로는 아래윗집에 살았는데, 그 집 사람들이 워낙 착실해서 천거됐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이영옥 선생님 자서전 《90에 쓴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들과

찍은 사진에서 김성희씨를 보았어요.

이한수 : 새롭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군요. 김성희 기공사는 정보라 이유경, 당대에 실력과 명성이 지극했던 분들한테서 전수받았군요. 그 기공사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두 분은 명실 공히 국내외,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돈독했죠.

정보라 박사께서는 미국으로 가셔서 시카고 지역에서 대학교수로 학문적으로 자리 잡으시면서 미국치과의사협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였다는 사실을 저도 학생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수 : 이런 시기에 박명진 학장이 미국에 가셨으니 사교와 인간관계가 몸에 밴 정보라 박사의 역할은 우리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꽤 하셨을 겁니다. 미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요직을 권했다 소문도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 가셔서 그냥, 치과만 하셨거든요. 거기다 미국 치과계의 정상급 인사들과 인맥이 쌓이게 됐죠. 그러니까 박명진 학장이 오자 정보라 박사께서는 미국의 실력자들과 만나고 회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치의학 실체에 관해 대화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정보라 박사를 짧게 평가하신다면-

이한수 :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 멋을 내고 단정했던 선생님의 패션 감각과 그 모습은 특기할 만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과 어울려도 대화나 태도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 점이야말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선생님 뿐 아니라 제 은사께서 들도, 당대에 내로라하는 유명 치과의사로 정보라 이유경 박명진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넘어 갈 수가 없나 봅니다.

이한수 : 제가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속병원 치과에 근무하면서 한번은 이유경치과의원에 심부름을 갔어요.

아니, 심부름을 가시다니요.

이한수 : 아마도 협회 일이 아니면 DSC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DSC는, 편찬위원장을 하실 때<서울특별시치과의사협회>1995년에 자세히 밝혀 주셔서 아주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때 아마도 원고를 들고 갔을 겁니다. 이세덕 과장님도 치의학, 치과 임상, 치과의사들의 활동에 크게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저는 본과 3학년 때, 서울치대 학생신문인<치대신문> 기사 때문에 이영옥 학장-유종덕 학생과장 허락을 받고 이유경치과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서울 중구 다동 호수그릴 옆에 있었거든요?

이한수 : 맞아요, 거기입니다. 제가 응접실에 들어서니까 그냥 ‘치료실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환자들에게 제가 치과의사라는 것을 미리 알려 놓으셨더라구요.

이유경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약속된 치과-치의학 관계여서 서로 시간도 아끼고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골드 크라운금합금구조관 교합면을 삭제하시면서 쇠막대기 같은 것으로 자꾸만 재셨어요. 그게 바로 볼리 게이지Boley gauge더라구요. 그때가 1950년 대 말이었어요. 우리 한전병원 치과에 그게 없었어요. 볼리 게이지가 꽤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전력 시설이니까 전기 걱정은 안 했지만 엔진-벨트 식 삭제기구로 하나까 지대치형성, 특히 교합면 삭제는 늘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죠. 스톤이나 포인트 종류도 지금과는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풍랑만파風浪萬波를 헤치고 귀항歸港하는 어선이 있듯이 선각자라고 할까요? 앞서 가는 분들에게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울 것이 많았죠. 역지로 캐스팅구조해서 지대치에 맞춰보다가 교합이 높아서 삭제하다 보면 얇아지거나 구멍 날 때가 있거든요.

볼리 게이지,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한수 : 당시에 그 볼리 게이지, 어떤 치과재료상에 없었습니다. 재료상이 드나들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말하더라구요. ‘어떻게든지 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을 만한 곳에 선을 대 봤습니다’ 한두 달이 그냥 지났어요. 볼리 게이지 없이 그냥 지냈어요. 반 년 쯤 지나서 구해왔어요. 그 후 교합면 두께는 확실하게 지켰지요.

이유경치과의원에서 배운 게 또 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경영 방식이었죠.

경영방식, 궁금합니다.

이한수 : 기공실에서 보철물이 완성되면 수부로 보내고 환자가 완납해야 꺼주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치료비는 이렇게 받아라’하는 교육은 받지 않았거든요.

앞서, 안중서 김용진,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시기였는지, 공보이사도 하셨지요?

이한수 : 했지요. 안중서 김용진, 두 분이 줄곧 하셨죠. 두 분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가능치 않습니다만, 안중서 선생님은 만주에서 개업하신 깔끔한 해외파라고나 할는지, 김용진 선생님은 털털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죠. 두 분이 역할은 요즈음 사람 머리카락 추진력의 열배는 된다고 봅니다.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두 분은 ‘치과계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하이꾸를 왜 하셨는지요?

선생님 이야기 방향을 바꿔 보시죠. 선생님께서 치과계에 미친 부분을 보면 아주 남다른 데가 있거든요. 치과의사가 되시기 전, 경기중학교에 다니실 때 벌써 문학 활동을 하셨어요. 선생님, 하이쿠가 뭔지요.

이한수 : ‘하이쿠’는 일본 정형시定型詩인 ‘배구俳句’를 말하지요. 세계에서 제일 짧은 시詩이죠. 우리나라 시조도 짧지요.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한테, 일본 정형시는 글자 수가 17개를 넘지 않아요. 왜, ‘하이쿠’를 했느냐 하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국어교과서였던 일본어교과서에 있던 시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만일 당사가 영국이나 미국이 점령해서 영시 英詩를 접하고 매력을 느끼셨다면 선생님께서 영시의 대가가 되셨을 까요?

이한수 : 그랬을 지도 모르죠. 수학 없는 대학을 찾다가 치과의사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들으시면 방향이 없는 소리로 들으시겠지만, ‘한편으로 구소련 러시아 통치권에서 학창을 보내셨다면 러시아 문학에 심취하셨을는지도…’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의 저술활동과 치의학 분야에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보면 감이 오거든요. 선생님께서 하이쿠에 심취하신 동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한수 : 1943년 전조선배구대회全朝鮮俳句大會에서 특선했고 8.15 광복 전에 사계斯界의 거장 巨匠 다카하마 교시高濱虛子の 선 選에 두 번이나 입선했어요. 여기서 자신을 얻었지요.

한국에서 선생님의 하이쿠 활동이 명성이나 활약만큼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한수 : 글썄요.

이 질문에 선생님의 속은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이다. 치과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시라서 배척하는 일본에 대한 감정도 요인이 돈다.

동인 同人활동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이한수 : 2010년 10월 21일에 창간 100주년을 맞은 전통 하이쿠 월간지 호도도기스詩鳥의 추천작가 겸 동인이라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혹자는 일본?’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자부심이 대단 하시겠어요.

이한수 : 독학으로 외국시를 외국어로 써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죠. 한계와 벽이 있음을

절감합니다.

선생님께서 골프 테니스 등산 등 아무런 레저 활동 없으신데요.

이한수 : 생애 중, 여가 대부분을 하이꾸 공부에 쏟았습니다. 1967년부터 7년간 국제대학에서 일본시가(日本詩歌) 강좌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요.

이한수 : 뭐,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저는 학생시절부터 자신의 직업, 취미 등을 깊이파고 드는 사람이 부러웠고 그것을 책으로 내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과 하이꾸

선생님, 영화 'Sound of Music', 아시지요.

이한수 : 내가 영화관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전에서 두어 번 보았죠.

아주 신선한 영화라고 여깁니다.

그 영화는 '에델바이스'라던가 알프스-수녀-수녀원- 가족-가정-나치-오스트리아독립 등, 간단한 것 같으면서 복잡하고 긴장감이 넘치죠. 여쭙고 싶은 것은 트랩 대령이 군인이면서 가부장적이면서 독일나치를 배격하거든요.

이한수 : 당연하죠. 아니 이 박사 회갑기념으로 낸 《이대로 저대로 제대로》에도 과거에 방송했던 내용을 쓴 적이 있잖우.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은 다르겠으나 크게 다른 것이 있겠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억하시는 것, 대단하십니다.

이한수 :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시시의 영화, 남성의 영화, 여성의 영화, 가톨릭의 영화, 수녀의 영화, 아이들의 영화, 알프스의 영화, 그리고 사랑의 영화, 많은 표현이 있었지요.

선생님, 그 많은 뜻을 하이꾸로 쓰신다면 어떨지요.

이한수 : 아하, 골똘히 생각해야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려보려 본 적이 없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깃털 달린 티롤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박사를 보면 ‘에텔바이스’라거나 ‘사운드 오브 뮤직’이 문제겠어요?

그 트랩 대령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거든요.

이한수 : 작품 속 인물이지만 오스트리아 독립과 사랑과 가족, 모든 것을 다 이룩하는 거, 나이한수는 못 합니다. 이 박사 이병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운드 오브 뮤직’ 과 ‘하이꾸’, 숙제를 주셨습니다.

80세가 넘는 이한수 박사의 말씀에는 내가 가진 알프스의 낭만이나 인지상정人之常情이 그득했다.

이한수 : 알프스 얘기가 나와 기분이 서늘합니다. 이 박사 필자께서 백두산을 수도 없이 다녀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1932년 여름방학 때 원한경 박사께서 연희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산진에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계꾼을 쓰기도 했고 천지 깊이를 측정했는데 이것이 최초 측정이라고 했어요.

이한수 박사께서는《이치의학사전》편찬에 전력하는 필자에게 일본《齒學辭典 치학사전》을 주셨다. 그러면서 필자가 묻지도 않은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한수 : 언젠가 일본서 쇼후 겐지松風憲二씨의 아들인 쇼후 신지 松風慎二가 서울에 왔어요. 그때 치과대학이라곤 서울대학교에 하나뿐이고 대학이 소공동에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안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연일 쇼후 신지씨를 서울대 치대 학장, 치대부속병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면담을 주선했습니다.

여행경비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이한수 : 그때 서울이나 한국 측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출판사 의치학사가 부담했어요. 대구로 가서 변중수 동산병원 치과과장을 만난 기억도 납니다.

저도 학술대회장과 (주)신흥 사장실에서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자그마하고 몸매가 호리호리한 느낌을 받았습나다.

이한수 : 잘 보셨군요. 건강하고 날씬한 편이지요.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수고했다며 《齒學辭典 치학사전》 한 권을 선사 하더라구요. 그 사전, 아주 요긴하게 보았어요.

저한테 주신 바로 그《齒學辭典 치학사전》이군요.

이한수 : 아닙니다. 하루는 김규택 선생님께서 ‘그 사전 나 좀 봅시다.’ 하셔서 ‘그러시지요’ 하고 드렸어요. 아주 학구적인 선배이셔서 그냥 유익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는 얼마나 지났는지 잊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규택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사전, 여기 있수’ 하시면서 새 사전을 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드린 것은 헌 것인데요’ 했더니 ‘그 사전에 내가 이것저것을 써놓은 것도 있고 책이 헐기도 했어요’ 하시면서 ‘받아요,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전이 바로 그 사전입니다.

김규택. 이 분이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초대 학장이셨죠.

이한수 : 아마도 학장이 아니라 학과장으로 출발하셨을 겁니다.

젠틀 하시죠. 제 느낌입니다.

이한수 : 그러므로, 덕이 큰 분이거든요. 남의 단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분입니다. 헌 사전을 가져가시고 새 사전을 주신 것을 보고, ‘이 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요.

이제는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 꽃을 피우신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제목을 부친다면 ‘이한수와 한국 치과의사학에 관하여’ 입니다.

이한수 : 1964년 1월말,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춘근 학장께서 인편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의사학醫史學 강의도 우리 치과의사 중 누군가가 해야 한다. 때가 된 줄 알라. 내 보기엔 닥터 리가 적격이야. 맡아 줘야겠어’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 방면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이한수 : 그런 면이 있었지요. 치대 학창시절에 치의학 인접 학문 분야에는 비록 일제 강점기였지만 분야별 역사가 다소나마 연구된 것이 있었어요. 유독獨하게 치과사齒科史라고 할까, 치의학의 역사History of Dentistry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지요.

그렇다면 이춘근 학장께서 잘 하셨네요. 그때 어느 분이 의사학-치과의사학을 강의하셨는지요.

이한수 : 우리나라 의사학의 태두泰斗 김두중金斗鐘 서울대학교 의사학 교실 주임교수가 강의하셨고 이어서 그 교실의 이영택 李英澤 교수께서 하셨지요. 본과 1학년 1학기에 주1회 1시간으로 1학점짜리 과목이었죠.

선생님께서는 일본 교수한테서 강의 받으셨겠네요.

이한수 : 첫 고백입니다. 저는 의과학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사훈련과 전쟁준비 때문에 받아야 할 수업을 못 받고 지냈지요.

난감 難堪하셨습니다.

이한수 : 난감하다 말구요. 우선 수업 받은 학생들 노트를 구해 보았죠. 자료를 찾으려고 도처에 있는 도서관을 찾았으나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대략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국내 도서관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서적이나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재를 찾는 데 아주 애쓰셨군요.

이한수 : 애써도 애쓴 보람이 있어야죠. 낮에는 치과 경성전기주식회사 부속병원치과,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속 한일병원 치과 전신에 근무해야죠. 선배님들 중에는 의과학에 관심을 두신 분이 한 분도 없었죠. 오히려 선배나 동료들은 ‘이한수는 의과학이나 하고 하이쿠 같은데 취미가 있으니 치과의사로서 돈을 벌 수 없다’고 농담할 때마다 서로 웃었지요.

당시에 종로에 ‘과학서적센터’ 그리고 광화문 신문에 ‘범문사’ 같은 서점에서 외국서적, 주로 영어 원서를 수입해서 판매했죠.

이한수 : 그랬죠. 그때만 해도 아직은 해외서적을 입수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환율도 원서는 세 배 정도 비쌌다고 기억됩니다. 선편으로 보내오니까 3개월- 6개월 이상도 기다려야 했죠. 원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학시절에 영어로 배운 적이 없고 영어 원서를 독해할 실력이 달렸거든요. 달렸다기보다는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다행하게도 일본어만은 조금 능숙했던 게 저를 살렸다고 봅니다.

선생님 개인한테만 다행이 아닙니다.

이한수 : 실제로 의과학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단연 앞서 있었습니다. 이 점이 내게 도움을 주었고 또 상당한 자신감을 주었죠. 자료 수집은, 남다른 관심을 가졌죠. 문헌이나 서적 뿐 아니라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글줄이나 기사라도 의과학과 조금이라도 관계있어 보이면 모두 스크랩 했습니다. 정리된 학식이 없이 강의에 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임전태세臨戰態勢은 다 되셨다고 보이는 데요.

이한수 : 열성은 다했지만 초기 강의는 토막토막, 여러 항목을 나열하는 식이었죠. 자신이 보기에다 빈약할

수박에 없었어요. 동서양의 상호 관계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이죠. 몇 해가 지나니까 의사학이라는 큰 산맥을 어렵듯이 어렵하게 된 것을 느꼈어요.

서울대 치대 출강이후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한수 :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신설되자 출강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연세의료원 구강위생과도 담당했어요.

선생님 대신 강의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한수 :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1965년에 박사학위를 마친 최진환崔鎭煥 서울대치대 11회 추선생이 전공학과를 의사학으로 정하겠다고 진로를 정했어요. 첫 단계로 의사학 강좌를 물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뜻이 훌륭해서 그렇게 하고 최진환 박사가 여러 해 강의를 했지요. 그때 수도 의대현 고려대 의대에도 출강했었죠. 의사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만 두셨지요.

이한수 : 의사학 전공 전임 교수로 대학에 있으려면 서울대 의대 의사학 교실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의대 측에서는 최 박사가 의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요. 서울대 치대는 지금2000년대도 치과위생학 교실이라거나 전공 교수가 없는 형편인데 당시 모교 형편은 더 어려웠죠. 최 박사는 잠시 치과개업을 했지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할 것을 결심하고 로스앤젤리스로 떠났죠. 그때 그 일은 최 박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치의학계로서도 막대한 불운이었죠.

‘그때 그 일’이라고 하신 말씀은 최진환 선생님께서 대학 교수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한수 : 어쩔 수없이 모교 강의를 또 제가 맡게 됐지요.

처음에 대한치과연구회현 대한치과의사학회 전신을 창립하시고 선생님께서 회장을, 최진환 선생님께서 총무를 하셨지요.

이한수 : 그때 만든 우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 학회지1960년 12월 1일 발행 창간호는 세계 치과학계에서 최초였습니다. 이어서 1961년에 제2호, 1962년에 제3호가 나왔지요.

여기저기 기록을 찾다가 알게 된 DSCDental Study Club 치과연구회가 있는데 선생님도 그 멤버 중 한 사람이셨던 사진을 봤거든요. 하여튼 ‘연구회’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한수 : ‘연구회’라는 이름이라는 발상은 치과대학을 갓 졸업한 최진환 선생이었어요.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최 선생은 자아와 포부와 의견을 자세히 말했고 저는 전적으로 그의 뜻을 수용하고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학회지 낼 경비가 없어서 기부해주셨던 선배님들과 회사금 내용을 학회 뒷 표지에 게재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쇄는 요즈음의 워드작업 필자 또는 저자가 직접입력 이전에는 사진식자였고 그전에는 활자 인쇄 시대였지요. 그 이전이 바로 등사^{謄寫}시대였지요. 유지^{油紙}를 철판 위에 놓고 철필^{鐵筆}로 한자 한자씩 필사공이 써서 등사판에 대고 밀어서 한 장 한 장 걷어 내는 아주 고달픈 작업이었죠.

그 작업을 어디서 하셨는지요. 치과대학에는 등사실이 있었지만 아주 붐볐어요. 시험지, 과제물 등을 등사하려면 아주 힘들었거든요.

이한수 : 당시 김용진치과의원이 있던 종로2가 관수동 골목, 청계천 쪽으로 쭉 들어가면 아주 작은 인쇄방이 있었어요. 우리 연구회지 제작에 4일은 걸렸습니다. 최진환 선생이 앞장섰지요. 초창기 학회활동은 활기찼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 박사가 한국 치과계를 떠난 후 그 빈자리 회복은 불가능했을 정도였지요.

학회를 창립하시고 힘차게 전진하다가 힘드셨겠습니다.

사실 최진환 선생님은 총무 역할뿐 아니라 한국의 의사학- 치과의사학을 국제적으로 선두와 첨단에 올려놓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한수 : 학회가 어려워지자 이동섭 이덕일 김관홍 김정균, 이런 분들이 자주 회동했습니다. 저는, 요청해오는 치과대학의 강좌를 맡아야 해서 힘도 꽤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회지 발간은 1984년 김정균 회장이 맡으면서 제4호가 나왔으니 얼마나 긴 잠을 잤습니까. 이 제4호 제작도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박사 필자와 김정균 회장 아니었으면 오늘의 학회지 발간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월간 치과연구 덕분에었죠. 거기 이희백 주간이 열심히 해주었지요.

김정균 선배는 재학 시절, 제가 뒤따라 다닌 산악회 선배였고 무뚝뚝했지만 굵은 데가 없고 착하시죠. 대신 추진력 있고 정의감과 인간친화력이 있지요.

이한수 : 1984년부터 학회지가 재출발해 아주 흐뭇했습니다.

1985년 경, 그 동안 강한 내용과 강의를 바탕 하는 사실 事實들을 총정리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는 발표해야할 글논문/논설/개설 등이 많으셨어요.

학회지 출간에 원고+제작비+편집제작진, 이런 필요조건에서 두 가지는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회지 발간의 뜻은 순풍을 받게 됐다고 봅니다. 1980년대면 선생님께서 60대이시고 저는 40대였거든요.

이한수 : 말씀드린 대로 20년간의 강의록과 자료에다 《주말의 치과의》1973년, 《이한수치학박물지》1976년, 《이한수동서치학견문기》1977년을 정리하고 적절히 합쳐서 1988년에 치과대학교재로 《치과의사학》과 《한국치학사》를 출간했습니다.

두 가지 책《치과의사학》과 《한국치학사》가 나왔을 때 제가 선생님께 출판기념회를 하자고 말씀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말리셨어요. 저는 지금도 아쉽습니다.

이한수 : 일반 서적도 아닌 특정 소수들만의 책이고 대중적 또는 창작도 수상도 아니라서 선뜻 할 수도 없었죠. 이 박사필자도 경험하셨지만 책이 팔리지 않는 현실과 수요자도 적어서 초판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까 출판사에서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됐죠.

제가 강의에 사용할 교재는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소개해도 사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이한수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책을 낸 다음이었는데, 출판사측에서 30세 전후 젊은 실무자가 오더니 대뜸 저에게 해대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냐'며 항의하는 거예요. '1천부를 찍었으면 출판 초에 최소 기본으로 3백부는 팔아 줘야 출판사도 운영할 게 아니냐' 하더니 '학계는 갖가지 상책도 많은데 너는 뭐냐'고 덤비기까지 하는 겁니다.

'출판비조로 3백부를 인수해라.' 이런 뜻이었어도 표현방법이 좀 과격했군요.

이한수 : 할 말이 없더군요. 고생에 고생을 했는데, 그건 그렇고 해대는 사람이 내 자식보다 젊은 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당시까지 소장했던 일체의 자료들을 미련 없이 깨끗이 버렸습니다. 3일간이나 걸렸습니다.

후학들이 자료를 부탁하면 다 없었다고 하셔서 '긴가 민가' 했죠. 그럴 수가 있을 까.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수 :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눈물도 나오지 않구요. 당한 일과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끗해진 서가와 책상을 보니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힘차게 내던진 문헌과 복사물, 스캔본과 메모류, 모두를 불태워도 아마 한 나절은 족히 탔을 겁니다. 분량이 많았지요.

대답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필자 마음 역시 처절凄切하고도 처절悽絶했다. 이런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 뜻밖에도 기창덕奇昌德 서울대 齒大 2회 1948年卒 박사에게서 2000년 3월 20일 별세하셨다. 그런가하면 동기동창이신 이한수李漢水박사께서는 핸드피스를 놓고 2000년 4월 12일 은퇴하셨다.

《치의학역사산책》2001년, 서문에서.

기창덕 박사는 자신이 소장하던 모든 자료를 서울대 의대에 기증하였다. 그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남모르게 고생한 그 회한 悔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이미 저에게 저술과 출판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수 : 그럼요. 누구보다도 말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이지요. 말해서는 안되는 말을 했나 싶군요.
아닙니다. 절대 누구를 욕하고 원망하신 일이 아니니까요. 저술가, 편찬가의 애상哀想을 피력하셨습니다. 선생님 형식이지만 꼭 여쭙어 봐야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즈음 치과의사학에 연구자나 회원이 적다고 해서 학회 명칭까지 바꾸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한수 : 치과의사학회 회원이 없다시피 한 것을 개업가에 있는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저이한수 김정균... 이런 우리들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History of Dentistry 치과의사학/ 齒科醫史學이 어떻게 개업가의 학문이나' 이겁니다.

주객主客이 바뀌고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됐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한수 :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됐다'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자기 분야 역사를 무시 합니까.
제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는 국사國史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없어졌고, 대학시험 과목에서도 빠지고, 이게 될 일이었는지, 자국自國의 역사를 도외시度外視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한수 :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사는 일본사였고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너무나 헤이해진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 나라에서 국사國史, 교육정책에서 국사國史, 담당학계에서조차 국사國史를 버리고 있으니 되겠어요?

대대는 소소를 포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국사를 소홀疎忽히 하니깐, 그 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한수 : 말씀대로, 대통大統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힘든 일이지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치과의사학에 관여하는 후학들에게 또는 앞으로 치과의사학에 필요한 사항과 과제는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수 : 조심스럽습니다. 제 견해로는 현재 한국 치의학 발달사는 조금 연구되어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잘 연구되어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분발奮發해야 합니다. 치과의사학은 선현先賢과 선학先學을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사학적史學的 글을 쓸 때는 경솔히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과의사학은 그 안에서 역사-철학-윤리학-역사-지리-해양 관련성을 찾아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서울에서 벌어질 때였다.

월간 치과연구에 원고를 주고 오시던 길에 세종로 사거리와 세종문화회관 주변 거리와 주변은 온통 붉은 T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을 보고 놀라셨던 모양이다. “아휴, 광화문 일대가 대단하구려” 이한수 박사님께서 원장실로 들어오신다. 2002년 6월 10일 오전 10시쯤이다.

‘붉은 악마’들 대단하지요? 저는 오늘 아침 7시에 시청 앞 프라자 호텔 일식당에서 ‘남북치의학 교류협력위원회’ 조찬회를 했어요. 2층인데, 창밖으로 시청 앞 광장이 바로 내려다 보였어요. 그 이른 시기에 벌써 인파가 많이 모였어요. 끝나고 시청 앞으로 나와 보니 덕수궁 앞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차도를 걸어서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왔어요. 인도는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한수 : 우와, 거리가 제 평생에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야단법석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월드컵 인파가 이렇게 대대적이라고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1960년 4월 19일에, 4.19혁명 그날 딱 찬 군중 속을 헤치고 경무대로 돌진했던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2002년 6월 10일 오전, 정말 대단한 풍경입니다.

이한수 : 오-필승 코리아, 오-피스 꼬레아. 어떻게 정했는지. 외치는 구호도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쓰고 있는 Korea, Corea, Coree 등 국가 명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리가 발달한 유럽 고지도도를 보면 ‘Korea’가 아니고 ‘Corea’ 나 ‘Coree’로 돼 있거든요.

이한수 : 저는 등산이나 지도 쪽은 모르겠구요.

우리 치과계에서는 1946년에 정보라 박사께서 처음으로 치과영역에서만이라도 Corea로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정보라 박사, 벌써부터 Corea와 4 + 4 주장하셨거든요. 정말 선구자 이셨습니다. ‘붉은 악마’라고 했지요. 그 붉은 악마들이 흔들어 대는 손수건에 Corea라고 인쇄 됐더라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군요. 선우양국鮮于良國씨도 4+4를 주장하셨죠. 치과대학 체제를 없애고 지금 말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것이었죠. -2002년 6월 10일-

앞서 정보라 박사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모 슬하에서 연희전문 사택에 살면서 창천유치원에 다닐 때 충치 치료를 받으러 서울 역전 세브란스병원 치과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치료해 주신 분들이 정보라 이유경 김정규 선생님들 존함을 일찍이 존함을 알고 있었죠.

제가 4학년 때 1948년 1학기 초였습시다. 하루는 정보라 선생님께서 ‘나는 미국 간다. 너희들 공부 잘해라’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치과의사학 강의에 관하여

지난 토요일 2002년 7월 13일, 가든 뷰, 서울대 병원 임상연구동에 모였을 때 얘기인데요. 저학년 본과 1학년 또는 예과에서 치과의사학 齒科醫史學을 강의하려면 치과의사학 齒科醫史學보다는 치의학 발달사에 가깝게 강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한수 : 그러므로, 질병사 疾病史, 치과의료문화사 齒科醫療文化史, 치과재료사 齒科材料史 등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도 있죠. 치과의사학 齒科醫史學은 치과대학 교과 과목 중, 인접 학문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잠시 쉬어 가는 편안한 과목이라고 알려 주어야 하죠. 짐작은 가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치과의사학 강의 12년 동안 느낀 것을 간단하게 발표했어요. ‘첫째 치과의사학 강의는 고학년본3·4에서 해야 하고 둘째는 1학기면 2시간, 2학기면 1시간은 돼야겠다’ 했어요. 이어서 이 두 가지를 내세우게 된 이유 셋을 들었습니다.

‘첫째 고학년이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치의학 기초 용어조차 모르는 처지여서 의학·치의학 발달과정조차 이해시키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둘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요즘 학생들은 국사 國史·세계사 世界史를 너무나 모른다. 셋째 거의가 한자 漢子 문맹 文盲이다. 따라서 한중일 韓中日 역사를 스쳐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요. 이게 어디 저만 느끼고, 남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한수 : 나는 알아듣겠는데, 더 설명하셨구려.

‘의료보험만 해도 비스마르크 Bismarck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도 설명해야 합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정보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이어서 북에서 온 북한 특사 팀을 맞은 후에 일본의료보험제도 1950년 개보험을 도입하여 급조하게 된 사연 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이런 것들을 일러 주어야죠. 장단점을 가려보아야 하고 뭔가는 실패한 구석이 있을 것이니 의료보험사 憵만 설명하려 해도 간단치 않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시간이 모자라고 때로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겁니다.’ 했어요.

이한수 :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치과대학들에서는 커리큘럼에 구색 맞추기 위한 것이면 안 되죠. 모든 의대에서 의사학 교실을 신설하고 있는 점을 우리 모두는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 아주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부터 국가적으로 역사를 무시하고 도외시키고 있으니,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학문이나 학과를 개업가에서 주장하고 외쳐서야 되겠는가, 이건 큰 문제지요. -2002년 7월 19일(금)-

2002년 10월 12일, 오전 9시, 이한수 박사님께서 대기실 옆에 꾸민 좁은 필자 서재로 오셨다.

이번 주에는 처음 오셨던가요?

이한수 : 아니죠, 월요일 7일에 왔었지요. 일찍 출근하셨구요. 그저 쉬지를 않으시는군요.

아, 네. 이것저것을 여쭙던 생각나는군요. 다음날 8일(화)에 모교에서 치과의사학 강의를 했습니다.

이한수 :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그걸 압니까.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5분 전에 들어가 칠판 구렁이에 '1942년 생, 21회 졸업, 치과보철학전공, 개원 30년 째, 李丙台.' 라고 쓰고 제가 저를 소개하고 강의했죠.

이한수 : 알아들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강의를 끝내고 김명기 교수실에 들렀어요. 눈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물었죠. 저는 아직 시력에는 별 지장이 없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선생님 다음은 김명기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이상하다고 느껴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의사 왈, 환자를 많이 보느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시겠지요, 하면서 병명을 망막분리증detachment of retina이라고 하더군요. 대략 1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희소한 질병인데 치과의사에게는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색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더군요, 방벽에 발라 놓은 도배지가 떨어진 것을 다시 붙여 놓는 듯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선배님필자도 조심하셔야 오래오래 진료하고 저술도 하십시오.”

“어허, 눈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는 올해로 치과의사가 된지 35년이 됩니다. 특히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에는 관심이 큼니다. 안경은 여러 개이고 맞는 것을 선택하지요. 특히 30여 년 된 사전편찬에 마무리중이어서 깨알 같은 글씨를 매일 빠트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여담 같지만 생선찌개를 먹을 때면 눈알을 먼저 파먹습니다. 손자 녀석들과 같이 먹을 때면 일부러 경쟁적으로 먹지요. 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김 교수실을 나왔습니다. 편찬중인 《이치의학사전》의 detachment항에 d. of retina를 첨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치과의사의 직업병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한수 : 나도 시력이 좋지 않아져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 증상이 약하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이나

글도 꼭 보아야 할 것이 아니면 삼가고 있는데 이 선생필자도 눈을 너무나 혹사하는 거나 아닌지. 좀 쉬어가며 하세요. 늘 옆에서 보기에는 타고 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전 교정 작업을 5교5校에다 새 용어를 추가하고 넣고 고치고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눈과 시력이 대단하십니다.

정말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시력과 건강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조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27일 (목).

은퇴하신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필자가 개원하고 있는 것에 늘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

이한수 : 이 선생은 치과를 여기, 이곳으로 옮긴 지가 몇 번 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한수 : 나는 30년을 했는데 이사를 세 번 했더군요. 마지막이 신문로, 그 전은 청계천 광고, 처음이 태평로 뒷골목이었어요. 한일병원지금 한전병원 치과에 다니면서 야간에 개업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여기는 사서 오셨다고 했지요?

집 없는 서러움, 집 없는 사람한테는 내 집 마련은 지상 최대의 소원이다. 치과의사에게는 내 소유 건물에서 개원하는 것이야말로 무주택자의 내 집 소유와 같다. 이한수 박사님께서도 개업치과의사의 애로隘路와 애수哀愁를 느끼셨던 것 같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돌아가신 해에 현대 광화문빌딩현 현대해상건물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지요. 열떨결에 은행 신세 좀 지고 구입했지요. 2001년 12월 3일,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한수 : 아휴, 잘 하셨우. ‘임대로 올려라’하는 애기, 빌딩 주인이 바뀌면 옮겨야 하고-. 치과의사들이 그런 면에서 참으로 불편하지요. 세상에 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스트레스 중에 집 스트레스가 제일 크지요.

학회명칭 변경에 관하여

치과의사 수가 증가하고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증가하였다. 특히 개원가의 상황은 나날이 급변했고 진료도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되어 사회마저 동조한 추세이다.

많은 치과이사들은 저수가 경쟁- 환자유치 경쟁- 심해지는 시설 및 내부 장식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웃 간, 동료 간, 선후배 간, 나아가서 술자와 환자 사이에도 불화로부터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학계에서는 치의학 교과과정에 윤리학과 철학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나아가서 인문학 사회학 또는 인문사회학 강좌도 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지난 번 임원회에서 학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전은 아니었습니다. 청력에 이상 없으신 선생님께서 잘 못 들으신 듯 어리둥절 하셔서 그런지 필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이한수 :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임원회에서 학회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한수 : 좋은 의견, 훌륭한 대안이 있나보죠?

학회 이름에 윤리 인문 사회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윤리학 의철학을 강조하면서 '사회치의학' 방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한수 : 아예 사학史學의 사史를 빼구요?

제안하는 측에서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그렇게 하면 어떠할까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한수 : 그래, 이 박사필자는 뭐라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치과의사학회' 명칭에 늘 불만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한수 : ... ?

의견을 말했죠. '치과의사학회'이니까 '치과의사들의 학술 모임'인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언론에서 마저 史를 師로 써서 혼돈이 있고, 일반은 설명을 해야 알거든요. '치의학사학회 齒醫學史學會' 또는 '치의학역사학회 齒醫學歷史學會'가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한수 :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김정균 박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날 김정균서울대 치대 19회 1965년卒, 전 치협회장.치과의사학회장 선배께서는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history는 어디까지나 history이지 사회학sociology과 인문학humane studies과는 다르다.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 명칭을 바꾸지 말고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끼리 우리 학회와 별도로 그런 학회를 만들라고 해. 안 그래?' 이러시더군요.

이한수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후 임원회에서, ‘명칭변경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당장 여기서 토론했다고 해서 다음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또 이런 제안을 폐기하지도 말고 지속해서 토론하고 연구하자고 했습니다.

이한수 : 그러니까, 아직 미제未濟의 안건으로 남아있군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회에 참석 못할 터이니 이박사가 제 뜻을 전해 주세요.

어느덧 나이가 90이나 됐습니다

2013년 4월 15일 月. 맑음.

아주 오랜 만에 들르셨다

건강이 괜찮으셔서 큰 다행입니다.

이한수 : 이 박사, 어느덧 나이가 90이나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그 사전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나을 적마다 묻지만,

벌써 30년이나 지났어요.

이한수 : 그래, 몇 페이지나 됩니까.

본문만 A부터 Z까지 어휘가 16만 정도 됩니다. 이제 2,180페이지 작업이 끝나 갑니다.

이한수 : 야아, 그야말로 대작입니다.

나는 기력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건강하실 때 끝내셔요. 말씀드릴게, 몸 상태가 서서히 환경사로 저하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계단처럼 낙차가 큰 폭포처럼 급락하는 거예요. 이 박사, 공부하라는 말, 운동하라는 말, 이 두 말이 나는 아주 듣기 싫었어요. 실제로 운동이라곤 모르고 살아 왔거든요. 친구는 느릿느릿 비활동적이고 외가는 팔딱팔딱 활동적인데,

저는 친탁을 했나봅니다. 친탁 했나 봐요. 그리고 내가 다닌 서울 아현중앙감리교회에 나이순으로 제가 넷째였는데 얼마 전에 94세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다가 오는 거지요. 이 박사,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필자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명言明이시다. 90세 선배께서 72세 후배한테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운동과

거리를 두고 살아 왔는지 되새겨 볼 사건이다. 4주 전 2013년 3월 16일부터 주말에 인왕산 악산 그리고 북한산둘레길 산책을 시작하여 천만 다행이다.

10년 인터뷰의 에필로그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10년이 넘습니다. 하신 말씀을 정리한 것을 틈틈이 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수 : 제가 은퇴하고 십 수 년 간 이나 서재이자 집필실 겸 원장실, 언제나 원장 뒤편 스톨에 앉게 하고도 불편해 하지 않은 마음 씀씀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李漢水 1926(丙寅)년 10월 17일 생. 90세.

李丙台 1942(壬午)년 9월 20일 생. 72세. -2013년-

〈對韓齒科醫史學會誌〉 원고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통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서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 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3, 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2는, 김 등2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 (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컬러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 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및 7월 마지막 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 편집부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3층 보철과 백장현 교수

Tel : 02-958-9342, Fax : 02-958-9349, email : paek217@gmail.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활동내역

1. 2014년 2월 20일 : 제3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지하 1층 전통찻집

일시 : 2014년 2월 20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참석자 : 이병태, 조영수, 박준봉, 홍예표, 변영남, 이우철, 권궁록, 백장현

안건 : 1.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

2. 학회지 발간 준비

원고모집 : 권훈, 유미현, 조재오 교수

학회지 발송 명단 확보

2. 2014년 3월 25일 : 대한치과의사학회 학술집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14년 03월 25일 (화) 19:00

장소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C 세미나실

연제 및 연자

19:00 - 20:00 양치질의 고찰 (변영남 원장님)

20:00 - 21:00 약사여래의 서원 (배광식 교수님)

21:00 - 21:10 휴식

21:10 - 21:40 정기총회

3. 2014년 7월 12일 : 치과의사학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협의회

장소 :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3층 교수회의실 (다산실)

일시 :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14:00-18:00

참석자 : 김병옥, 박호원, 조영수, 유미현 등

내용 : 치의학사의 소개, 고대 미대륙과 극동지역, 고대 그리스, 이슬람 세계의 치과의사학의 대한 강의를 진행, 강의 후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토의가 이어짐.

4. 2014년 8월 29일 : 제4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지하 1층 전통찻집

일시 :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참석자 : 이병태, 조영수, 이우철, 권궁록, 백장현

안건 : 1. 종합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준비

2. 치과의사학 교수협의회 workshop 찬조금 지출

3. 분과학회 분기별 활동사항 치협에 보고
4. 학회지 발간 및 발송
5. 치과의사학 강의 현황 파악

5. 2014년 10월 31일 : 제5차 이사회 개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지하 1층 전통찻집

일시 :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참석자 : 이병태, 이우철, 권공록, 김희진, 백장현

안건 : 1. 종합학술대회 토의

광고, 장소, 전공의 발표, 연자, 등록비

2. 학회지 발간

3. 공직치과의사회에서 치과의사학 교재 편찬 비용 보조 건 논의

4. 학회사업으로 한중치과교류사 토의

6. 2014년 12월 6일 : 추계 종합학술대회 및 이사회 개최

날짜 및 시간 : 2014. 12. 6 (토) 12:00-20:30

장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제1강의실 및 8층 A 세미나실

주제: 치과 인문학의 르네상스

프로그램

12:00-12:30	등록	
12:30-14:00	전공의 Session	보철과 치주과 전공의 발표* (8층 A 세미나실)
12:30-13:30	학술강연 1	치과인문학의 실제 (유미현 교수)
13:30-14:30	학술강연 2	치과치료용 현미경의 역사와 최신 경향 (장성욱 원장)
14:30-14:50		Break
14:50-15:50	학술강연 3	교합의 역사와 임상 적용 (백장현 교수)
15:50-16:50	학술강연 4	치과의사학과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 (권훈 원장)
16:50-17:10		Break
17:10-18:10	특별초청강연 1	Clinical anatomy of the face for the botulinum toxin injection (김희진 교수)
18:10-19:10	특별초청강연 1	Application of botulinum toxin in clinical dentistry (김성택 교수)
19:10-	시상식 및 폐회	

7. 2015년 2월 27일 : 이사회 개최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지하 1층 전통찻집

일시 :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참석자 : 이병태, 홍예표, 권공록, 김희진, 백장현

안건 : 1. 학회지 발간

2. 총회 준비

對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부

고 문	김 정 균	부 회 장	류 인 철	대 학 이 사	김 지 환
고 문	박 승 오	부 회 장	김 희 진	대 학 이 사	박 호 원
고 문	신 재 의	총 무 이 사	권 공 록	대 학 이 사	김 성 태
고 문	변 영 남	재 무 이 사	맹 명 호	이 사	정 진 형
고 문	김 평 일	대 외 이 사	유 동 기	이 사	이 준 규
		교 육 이 사	박 용 덕	이 사	권 호 근
자 문 위 원	김 종 열	학 술 이 사	이 우 철	이 사	이 종 찬
자 문 위 원	차 혜 영	편 집 이 사	유 미 현	이 사	임 용 준
자 문 위 원	허 정 규	정 통 이 사	박 영 준	이 사	강 신 익
자 문 위 원	홍 예 표	정 책 이 사	조 영 식	이 사	김 명 기
자 문 위 원	백 대 일	기 획 이 사	전 민 용	이 사	이 주 연
		연 구 이 사	김 형 섭	이 사	박 찬 진
명 예 회 장	조 영 수	국 제 이 사	백 장 현	이 사	박 덕 영
회 장	이 병 태	대 학 이 사	이 재 목	감 사	조 영 수
부 회 장	박 준 봉	대 학 이 사	김 병 옥	감 사	배 광 식

對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 33권 제1호 통권 35호 2014

Vol 33, No 1, 2014

201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병태

편집인 : 권공록

발행소 : 對韓齒科醫史學會

110-7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지하상가 64호

전화 : 02-736-0445

전송 : 02-6280-8570

homepage cafe.daum.net/denhistory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 33권 제1호 통권 35호 2014년

한국 치과의사학 연구 동향과 저서

Shin, Jae-Eui

민간치과의료지원 단체의 역할

Shin, Duck-jai / Jeon, Kiha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Kweon, Hoon

18세기 피에르포샤르의 전문가주의와 계몽주의

Lee, Jue-Yeon

이(齒) 위생

Shin, You-Suk

구강술의 발달과 구강위생관리의 고찰

Park, Joon-Bong

이한수 박사와 나는 이야기들

이병태 원장